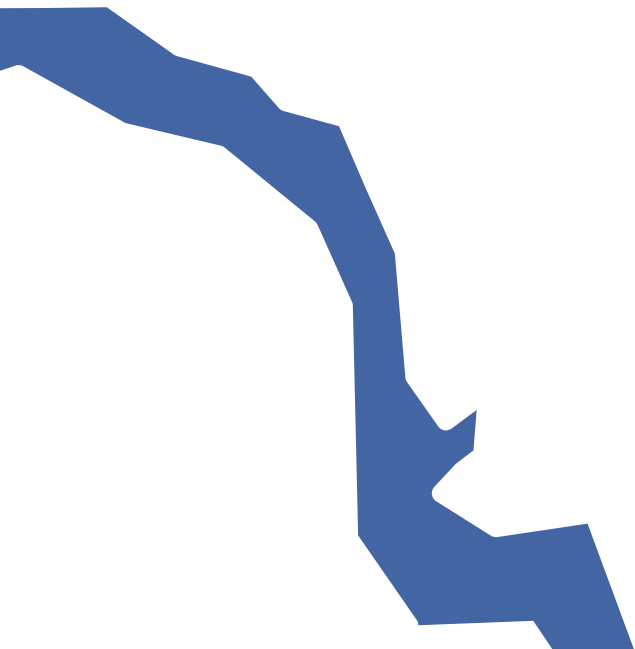


양평  
아트  
아카이브

버들평야  
예술가,  
이야기 열 넷



## 일러두기

- 『양평아트아카이브』는 양평을 창작의 거점으로 하는 예술인 14인의 기록물이다.
- 이 책은 지역문화 전문기자가 14인의 예술인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과 양평문화재단이 진행한 구술채록, 활동 이력 아카이브로 구성되었다.
- 본 아카이브는 작가 본인의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인명, 장소 등의 명칭은 작가의 검증을 따른다.
- 책의 순서는 예술인 14인의 출생년도순으로 배열되었음을 일러둔다.

# 인사말

양원모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 양근에 깃든 예인, 지평이 품은 예인

양평은 양근지평을 묶어 일컫는 땅 이름입니다. 이곳에는 용문산과 봉미산이 있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져 함께 흐릅니다. 산세가 좋고 물이 맑아 예술인들이 양평에 와서 살고 싶어합니다. 양근은 조선 초 실학자들이 만민평등에 기반한 천주학을 받아들여 신앙의 요람으로 일군 곳이며, 지평은 조선말~대한제국 때 항일의병이 펼쳐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민(愛民) 애족(愛族)의 정신이 양평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지요.

양평에는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작가 등 시각예술인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현대미술사에 기술된 작가들과 기술될 작가들이 있습니다. 양평문화재단은 국립현대미술관이 펴낸 『한국미술 1900~2020』을 주목하며 앞으로 한국현대미술사, 경기현대미술사, 양평현대미술사 구성이 유기적 상관성을 갖기를 바라며 양평 예술인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술사가, 비평가, 큐레이터, 저널리스트를 모셔와 <양평 아트아카이브> 대상 작가를 선별하고 그 가운데 14인의 작가부터 아카이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민들이 이웃한 예술가들을 친근하게 소개 받을 수 있도록 연성 인터뷰와 구술 채록을 결합하고 작가 프로필을 상세하게 수록하는 것으로 아카이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때가 되어 학예연구가 깊어지고 아키비스트가 특화되면 영상 아카이브를 포함하여 심화된 아카이브로 나아가길 바래 봅니다.

양평이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생태 자산과 예술 자산입니다. 양평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생태 자산과 예술 자산이 담지한 미래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해 나갈 기대하며, 귀한 시간 내어 2021년 <양평 아트아카이브>에 흔쾌히 임해주신 14인의 작가분께 손 모아 고마움의 맘 전합니다.

그리고 양평군민께서는 양근에 깃든 예인, 지평이 품은 예인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따듯한 눈길로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카이빙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정 중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양원모

여 백

# 기획의 글

이유림

양평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주임



## 기획의 글

<2021 양평 아트아카이브-양근에 깃들고 지평이 품은 예술가, 이야기 열넷>은 양평에서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인 14인의 예술세계와 삶의 행적, 그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하는 도서 발간 사업이다. 본 사업에서는 양평에서 거주,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주목하여 동시대 예술인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비교적 지역 사회에서 덜 알려진 예술가들을 소개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이 책은 학술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읽기 쉽게 기록해 주변에 있는 예술가를 친숙하게 마주하는 안내서로서 만들어졌다. 미술에 호가의 입장에서 예술가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담백하게 기록하는데 집중했다. 다만 예술가가 제공한 자료들과 기본정보들을 함께 실음으로써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양평의 예술가 중 시각예술가를 가장 먼저 주목한 이유는 지역 거주 예술인 중 타 분야 대비 시각예술가의 수가 현저히 많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양평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양평예총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인 487명 중 미술분야 예술인이 233명으로 드러났고, 지역작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평군 내 미술단체 등록 회원은 524명으로 집계되어 이 결과 이상의 시각예술가가 양평에서 거주, 활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평은 지리적으로 북쪽과 동쪽으로 강원도와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북한강을 끼고 서울과도 가깝다.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을 가르며 아름다운 풍광까지 누릴 수 있으니 그 시각적 즐거움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드는 곳이다. 양평에 와 처음 안 사실이지만 면적이 서울보다 1.5배나 크다고 하니 예술가들에게는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규모의 작업실을 사용하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다.

양평은 한국 현대미술사의 중요한 역사 현장이었다. 1980년대 후반, 삭막한 도심을 떠나 한적한 교외에서 작업에 몰두하기 위해 양평에 예술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양평 곳곳에 ‘화가마을’이 조성된 이후 지속적인 예술인 유입과 예술활동이 이뤄졌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 역시 대부분 지역 연고는 없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위와 비슷한 이유로 양평으로 이주한 이들이다. 14인 중 양평이 고향인 정원철, 김창환은 각각 1993년, 2016년에 작업을 위해 귀향하였고, 1980년대에 민정기, 안창홍, 1990년대에 서용선, 이재효, 김용철이 2000년대에는 육근병, 이영섭, 이재삼, 최운영, 김나리, 천대광, 이소연이 작업공간을 찾아 이주해왔다.

양평의 화가마을은 경기도 내 타 지역의 예술인 집단 창작촌처럼 별도로 구획된 공간이 아닌 예술가들이 선택한 지역 곳곳에서 자생적인 예술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만큼 양평은 결속력 강한 소집단 활동이 타 경기 지역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결성된 예술인 공동체 안에서 상호 네트워크와 개인의 안정적인 작업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한편 이런 양평예술의 특징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난관이었다. 이 넓디넓은 양평에 산개해 조용히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실체를 밝히려면 직접 발 벗고 찾아나서야 했다. 우선, 사전 연구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에서 발생, 생산되는 미술활동을 조사, 서술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 미술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두 차례의 선정위원회를 진행했다.

1차 선정위원회에서는 다수의 시각예술가 중 <2021 양평아트아카이브> 사업의 참여 예술가의 당위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우선 선정위원들은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기록하고 연구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예술가들을 검토했다. 구술사로 기록할 만한 예술가는 확고한 작업세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정 연령대 이상의 작가들을 추리고자 했다. 다음으로 현재도 활발한 작업과 전시 활동을 하는 작가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

들에게 양평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추천받아 목록화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 참여 예술인 14인의 2배수인 28인을 선정했다.

2차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위원들이 한국미술사 내 기여도, 뚜렷한 예술세계, 연구의 가치 등을 고려해 28인의 예술가에 대한 선정의견을 내고, 순위와 종합점수를 매겨 최종 14인을 결정했다.

위 과정을 통해 민정기, 서용선, 안창홍, 육근병, 최운영, 이재삼, 정원철, 이영섭, 이재효, 김용철, 김나리, 김창환, 천대광, 이소연 작가가 선정됐다. 대략 한 달의 시간 동안 이들을 방문해 만나고 이야기를 청취, 기록하였으며 직접 자료를 건네받았다.

이 책은 크게 작가의 인터뷰, 구술채록, 작가의 활동 이력으로 구성되었다. 작품 도판은 작가가 제공한 대표작과 인터뷰 중 언급된 작품 위주로 삽입되었으며, 작가의 활동 이력은 전시경력, 수상경력, 행정경력, 평론목록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보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넘겨지 않았던 사업

예산과 기간 핑계를 대본다. 하지만 그 공백들은 향후 양평문화재단의 과제로 남겨두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 양평문화재단은 시각예술인에서 시야를 더 넓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을 발굴, 기록하는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더 밀도 있고 다채로운 아카이브를 구축해 지역예술연구에서 나아가 현대예술사에도 중요한 연구 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해나가고자 한다. 이번 <2021 양평 아트아카이브-양근에 깃들고 지평이 품은 예술가, 이야기 열넷>이 올해 출범한 양평문화재단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암울하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작지만 알찬 책이 예술가들의 다양한 사유와 경험을 공유해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일어나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았을 때, 가까운 미술관에서 혹은 예술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 책 속 예술가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낯선 이의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준, 오랜 시간 양평 지역을 기반으로 뜨겁고 열정적인 삶과 예술을 이어온 예술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여 백

## 목차



인사말	6
양원모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기획의 글	10
이유림 양평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주임	
민정기	20
서용선	34
안창홍	54
육근병	68
최운영	82
이재삼	104
정원철	116
이영섭	134
이재효	148
김용철	160
김나리	172
김창환	190
천대광	204
이소연	218
CV	232

여 백



양평  
아트  
아카이브

민정기  
서용선  
안창홍  
육근병  
최운영  
이재삼  
정원철  
이영섭  
이재효  
김용철  
김나리  
김창환  
천대광  
이소연





#### 민정기 1949~

서울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다. 80년대 민중미술작가로,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우리나라 자연풍경을 기반으로 사회·정치·역사를 아우르는 인간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은 작품활동을 한다. 1987년 자연 속에서의 작품 활동을 꿈꾸며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로 이주해왔다. 80년대 후반 양평에 화가마을이 조성되는데 주축이 된 작가 중 한 명이다. 현재는 양서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 민정기

2018년 4월 27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 남한 땅을 밟은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의 집 1층 로비에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촬영을 마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기념촬영 배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어떤 기법으로 그린 그림입니까?”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북한산을 그린 서양화지만, 우리 한국화 기법이 사용됐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2007, 캔버스에 유채, 264.5x452.5cm

바로 민정기의 500호짜리大作인 ‘북한산’ 2007년 작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북한산’이 역사적인 남북정

상 회담장에 걸린 것은 80년대 ‘현실과 발언’의 창단 회원으로 민중미술의 1세대 작가인 민정기에게는 여러 가지 감회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이었다.



영화를 보고 만족한 K씨, 1981,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x162cm(2ea)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한 청년 화가 민정기가 화단에 던진 도발은 ‘이발소 그림’이었다. 당시 화단의 엘리트주의에 반하여 서민생활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의 그림을 내온 것이다. ‘세수’, ‘포옹’, ‘돼지’ 등이 그의 대표적인 이발소 그림이다. 이발소 그림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현실과 발언’ 동인에 참여하고부터다. 80년대 민중미술의 출발을 알린 ‘현실과 발언’에는 작가와 평론가들이 함께 활동했다. 그중 ‘키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미술평론가 최민이 민중미술의 이론을 제공하면서 동인전의 주제를 제시했다. ‘도시와 시각’, ‘분단과 6·25’라는 ‘현실과 발언’의 전시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민정기는 ‘도시와 시각’ 전에 출품할 작품을 고민하다 통속화를 파는 가게

에 들었다 그곳에서 돼지 그림을 발견하게 되고 통속화가 가지는 대중적인 소통방식에 착안해 키치 풍의 그림인 돼지를 출품하게 된다.

민정기는 ‘현실과 발언’에 동인으로 참여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저는 투철하게 정치적이거나 문화운동을 담당한다는 소명 의식이 있었다기보다는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으로서 목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하기보다는 연대를 통해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이 내용도 풍성해지고, 작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10년간 동인 활동을 했다”라고 말한다.

민정기는 ‘현실과 발언’ 창립전이 동숭동 문예회관 2층에서 열릴 때 전기가 끊겨 암전된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당시에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전시된 ‘현실과 발언’의 창립전을 막으려는 소극적인 방해였던 셈이다. 하루 만에 문예회관에서 철수한 창립전은 인사동 동산방화랑이 용기있게 장소를 제공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 한다.

1987년 양평으로 이주해 온 민정기는 서후리에 거주하며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담은 풍경화를 집중적으로 그리게 된다.



벽계구곡(여류), 2007, 캔버스에 유채, 81x312.5cm

민정기는 지리학자인 최종현 교수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답사하며, 인문, 지리, 역사에 대한 시각을 넓혀갔다. 민정기의 풍경화가 시각적 이미지 이상의 다양한 인문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도 답사의 효과라고 작가는 말한다.

동학과 관련된 그림을 그릴 때는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이 원주에서 체포되고, 체포된 장소에 있는 비석과 비석에 글을 쓴 작가의 필체와 내용, 최시형 선생의 별명이 ‘최 보따리 선생’이었다는 사실 등, 실제 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민정기의 풍경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요소가 됐다.

대작 ‘북한산’을 그릴 때도 북한산을 수도 없이 답사하고, 고지도와 사료를 보며 많은 시간을 들였다. 민정기의 북한산은 고정된 시점에서 보이는 산을 그린 것이 아니라 직접 수없이 산을 오르며 직접 가까이서 본 산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여러 시점이 혼재된 모습의 풍경화다. 민정기 풍경화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벽계구곡도, 1992,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x336cm

‘벽계구곡도’ 1992 는 민정기의 인문 지리학적인 풍경화를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가 살았던 서종면에 있는 벽계구곡 지도와 함께 구한말 외세에 대항한 이항로, 최익현, 양현수의 초상을 넣고, 양현수가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서 프랑스 군을 격파한 전투도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순국한 군사들의 공적을 기린 비각 등을 같은 화면에 배치했다. 이 그림을 보면 작가가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양평의 수입리 계곡과 강화도를 구석구석 답사하며 작품에 넣은 이미지를 눈에 담는 모습이 상상된다.



구보의 이발3, 2019, 천 위에 유채, 101.5x151.5cm.

‘구보의 이발3’은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쓴 작가 박태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에 출품한 작품으로 박태원이 이발하는 배경으로 청계천이 등장한다. ‘구보의 이발1’에는 1930년대 청계천 모습이 나오고, ‘구보의 이발2’에는 청계천 고가도로가 막 건설될 시점인 1970년대가, ‘구보의 이발3’에는 현재의 청계천 모습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민정기의 그림은 ‘읽는 재미’가 있는 그림이다. 민정기는 그림의 영역, 감상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기만 해서 끝나지 않고 어떤 내막을 가진 이미지, 사연이 읽히는 그림이 좀 더 감상의 폭이 넓어지며 그림을 보는 것이



힐링이 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했다.



원로로서 양평의 미술 발전에 대해 한 말씀 듣고 싶다고 하자, 민정기는 화가 주재환과 그의 아들 만화가 주호민 합동 전시 [호민과 재환 2021.5 국립현대미술관](#) 를 예로 들었다. 공공미술관이 능력이 있는 큐레이터와 돈보이는 기획력으로 미술의 저변을 넓히는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었다.



## 민정기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서양화가 민정기입니다. 소띠 49년생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양평에 들어온 지는 제법 됐네요. 도시에 내내 있다가 1987년에 자연 속으로 들어오고 싶고, 자연을 그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종면 서후리에 작업실을 갖고, 30년 정도를 잘 보냈습니다. 지금은 양서면에 있습니다. 1970년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모친이 별세하셔서 양서면 모광리에 모셨습니다. 반백년 됐네요. 산소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이곳에 자리하게 된 연유 중에 그런 것도 있죠.

### 3. 양평과 작업활동

양평이 상수도 보호구역이어서 공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좋아 예술인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췌.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이동하면 강원도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제천, 단양도 멀지 않고, 한강을 끼고 북쪽으로만 가면 강원도 홍천 같은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을 갈 수 있어서 서양화 작업하는 하는 입장에서 캔버스에 풍경을 담아내는 데는 양평 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 4. 작업소개

##### 동인활동과 개인작업

제가 작업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리에 관한 답사와 공부, 역사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시는 분이예요. 제가 예전에 ‘현실과 발언’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동인으로 활동할 때 현실과 발언을 위해 답사도 함께 하고 지도해 주셨던 분인데, 그림을 그리는 분은 아니지만 본인의 문화적 소양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던 분입니다. 그분과 지금도 같이 답사도 다니고 저 개인적으로도 답사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문민정부 들어서 동학에 관한 대형 기획전이 많이 있었거든요. 농민전쟁, 동학,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 최시형 선생 관련한 큰 기획전이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민족 미술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쪽에 있으니 동학 2대 교주인 최시형 선생이 근처인 원주에서 체포된 기록이 있어요. 홍천군 서송면에는 동학기념 탑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 현장 답사를 통해 모으며 작업 방향을 잡고 있지요.

80년대 민중미술 활동을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다시 뒤 돌아 생각해 보면 정치적이거나 적극적인 문화 운동을 했다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했고, 미술 활동을 하는데 소위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현실을 묵과하거나 작업에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80년대 한국의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환경에 의해 더 예민하고 더 포괄적이고 대처하는 방법이 더 논리적이고 풍부한 분들이 계셨던 반면에 그런 것들 시대정신을 작업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책무와 책임감 등으로 대처하는 여러 과정도 있었죠. 이것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분도 계시지만, 당시에는 그룹도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더 내용도 풍부해지고, 표현방법도 더 효과적 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이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한 10년 했습니다. 현실과 발언이라는 동인은 이론을 하는 사람과 화가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적 현실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미술활동 자체를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학연, 지연은 해체되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평론가의 비평을 바탕으로 시국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예술가들을 추천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연대 동인이었습니다.

성향적으로 말하자면 당시의 저의 작업은 상대적으로 아주 비판적인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는 하게 되었

쪼. 큰 틀로는 구상을 다뤄야 한다, 구상을 회복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작품이 읽기 쉬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이발소그림'이라고 해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들에서 착안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을 일구는 농부라든지,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라든지, 농부의 아들이라든지 공통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 군상을 표현했죠. 저의 경우는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작업들은 장난에 불과 한거였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가야지만 농촌에서 살다 온 친구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들을 끄집어내면서 대작을 하게 됐죠. 저는 대중들의 이미지 속에서 흔히 보여지는 구상을 차용해서 그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살아 온 환경이 인지와 창작의 밑거름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매년 이곳저곳에서 전시를 하다보면 이론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주제를 잡게 되는데 최민 선생이라는 분이 '도시와 시각'이라는 주제를 주면서 저도 그것에 맞춰서 보다 더 직접적이고 유치하고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반성을 하다보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나 시간, 흐름, 우리의 환경과 내용을 더 넓혀가고 심도있게 들어갈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현실과 발언 활동이 제 작업을 이어오는 데도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 5.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양평이 경기도이다 보니 양평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경기도미술관이나 경기문화재단에 초대가 되어 전시도 많이 하고 기획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는 관장이나 학예인력, 많은 분야의 기획자들 등 여러 가지 직책의 전문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오랜시간 접해오면서 경기문화재단이나 미술관이 운영되어 오는 것을 보면은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미술행사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그것이 매우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많은 문화예술기관들, 양평의 농업 박물관, 곤충박물관, 역사, 인물과 관련한 기념관 등의 기관들과 문화재단이 연계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소기의 여러 가지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의 이런 조직이 여러모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연구하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 백



#### 서용선 1951~

서울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 동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도시와 역사, 인간에 관심을 가지고 장소가 가진 서사를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로 표현하는 작가이다. 꾸준히 작업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며 작품에도 작업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형작업을 하고자 1995년에 양평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거주,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 서용선

“제 직업이니깐요, 매일 그림을 그리죠”



70의 나이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캔버스 앞을 지키는 서용선 1951~ 은 쉴 틈 없이 작품활동을 하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 만큼 망하면 안 된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스스로 다그치고 있다”라는 서용선에게 젊은 시절 그림은 마지막 희망이자 돌파구였다고 한다. 가정환경과 개인

적인 시련 때문에 제때 대학을 가지 못한 서용선은 스물다섯 살 늦은 나이에 자신에게 가장 쉬운 그림으로 1975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한 평론가의 글을 읽고, 대학입시 준비 때부터 자신이 그리기에 급급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을 한다는 사람이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때부터 서용선의 작품활동에는 그림 못지않게 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글은 인간의 지능이 발달한 이후의 산물이고, 선사시대의 역사적 기록은 그림이다. 글과 그림은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가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때부터 역사와 사회현상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80년대라는 녹록지 않은 시대상과 개인적인 방황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서용선의 그림은 나무와 자연에서 점차 역사의 현장과 그 속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단종의 죽음과 포츠담 선언, 한국전쟁, 세월호, 노근리 학살사건 등 역사적 현장들이 캔버스에 들어왔다.

마고 신화를 주제로 한 연작들도 서용선의 역사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관

심을 가지고 추적하다 보니 마고 신화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백성들의 생각, 1991, 캔버스에 아크릴, 194x517cm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그림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지요, 크게는 국가부터 작게는 인간의 개인사까지를 포함한다”는 게 서용선의 생각이다.

서용선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굵은 선과 붉은 열굴빛으로 강렬한 시선을 끌며, 등장인물들이 처한 비극을 극대화한다. 심지어 그의 자화상은 붉은색 눈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붉은색의 인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 서용선은 이렇게 말한다.



빨간눈 자화상, 2009, 캔버스 위에 아크릴259x194cm.

“80년대 초반부터 원색을 많이 쓰기 시작했지요. 당시에는 붉은색 같은 원색을 그림에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붉은색은 임금의 용포나 관혼상제에나 쓰는 색이기도 하고요. 왜 붉은색을 그림에 쓰면 안 되냐는 유교적 체제에 대한 반항적인 의미도 있지요. 처음에는 붉은색을 칠하면서 이거 너무 자극적이지 않느냐 망설였어요. 그림과 현실을 너무 1:1로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그림인데 붉은색 눈이면 어떻냐는 생각을 했지요. 이런 타부가 깨지면서

일종의 ‘색채 해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또 붉은색은 일종의 기제 같은 역할을 해요, 일단 관객의 시선 강렬하게 끌어들이고 그림에 주목하게 하는 힘이 있지요. 붉은색은 억울함과 불합리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강렬한 색깔을 쓰며 그림을 그리면서 형상에 몰입하게 되면, 그러한 분노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용선의 인간과 사회에 관한 관심은 그의 작품활동 무대를 캔버스를 벗어나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으로 넓혔다. 2000년부터 20년간 활동해오고 있는 ‘할아텍 할 예술과 기술’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탄광촌 그림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광부를 위하여, 2004, 퍼포먼스



철안역 벽화-채탄, 2007,  
콘크리트벽 위에 타일, 300x500cm

서용선이 2020년부터 약 10개월간 양평의 가루개 마을에 있는 철거를 앞둔 빈집을 활용한 작품활동 ‘가루개 프로젝트’는 빈집의 문과 창문 벽에 그림과 글씨를 써넣는 작업이었다.

긴 시간 동안 서용선은 떠오르는 생각의 단편들을 집에 새겼다. 이 프로젝트 중간에는 음악과 무용 등 다른 장르의 예술가가 스스로 찾아와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과 드로잉이 가득 담긴 벽면을 뜯어내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서용선의 생각-가루개 프로젝트’라는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가루개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



가루개 프로젝트 전시장 전경

역사에 바탕을 두고, 대중과 사회, 정치적인 내용에 관심을 뒀던 서용선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09, 조선일보 제26회 이중섭미술상 2014 을 수상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서용선은 서울대 교수 시절, 해외 작가들의 대작들을 보면서 공간의 제약 없이 작업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양평으로 이주했다. “양수리를 지나오면서 넓은 강변과 풍경을 보면서 가슴이 탁 트리는 해방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라고 말했다.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서용선은 끊임없는 작업과 전시에 몰두한다. 얼마 전에는 열흘을 기한으로 전시가 열릴 갤러리에서 현장 작업한 대작 드로잉을 중심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화단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작가지만 지역 갤러리의 어떠한 초청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시를 가려서 하라’는 주변의 편지를 듣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서용선은 “‘범주’를 가지면 구분 생기고, 자신만의 ‘탐’에 갇힐까 봐 더 걱정”이다. “아무리 작은 전시라도 전시가 주어지면 마감을 위해 계속 작업을 하는, 나 자신을 다그치는 일종의 기제로 삼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서용선의 작품에는 작가서명 대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날짜와 작업을 한 날을 숫자로 새겨 넣는 독특한 방식을 고수한다. 위 작품은 현재 작업 중인, 미완성 작품이다.

얼핏 보기에는 서용선의 작품은 굵은 터치와 생략된 이미지 처리로 빨리 그린 그림처럼 보이지만, 서중면에 있는 그의 작업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그가 한 작품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용선의 그림에는 작가의 서명 대신 날짜가 적혀있다. 작업실에 있는 한 그림에 적혀있는 ‘2016.6.24.26.27.28.7.3’ 이란 숫자는 2016년 6월 24일 그리기 시작해 26일, 27일, 28일 그리고 7월 3일 작업을 했다는 의미다.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서용선은 코로나가 와서 그동안 손을 보고 싶은 작품들을 꼼꼼하게 손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라며 작품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드러냈다.





서중면에 위치한 서용선 작업실 풍경



## 서용선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오랫동안 현대도시와 도시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역사와 자화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용선입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1995년부터 양평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대학에서 재직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미술의 흐름을 보다 보니 해외작가들은 큰 작품들도 서적에 나와 있고, 국내 전시장에서도 큰 규모의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큰 작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한옥의 방 안에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제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진 찍는 분의 소개로 처음으로 양평으로 와 봤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40대 중반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팔당을 지나고 한강대교가 보이고, 특히 양수리를 들어오는데 주변이 트여있는 것을 보는데 제 몸속에서 무언가가 펼쳐지고, 감각이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복잡한 생활을 하다가 시야가 트이는 곳에 오니 자유로운 느낌을 강하게 받고 이곳에 자리를 잡고자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곳에 작업실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형제 1남 4녀, 누님 3, 여동생 1 들과 함께 이주를 했습니다.

### 3. 양평과 작업활동

#### 소머리국밥과 할아텍(할 예술과 기술·Hal Art&Technology)

제가 그룹활동을 좀 했어요. 그 그룹에서 ‘소머리국밥’이라는 식당 현 양수역 뒤편 에 전시장을 마련해서 전시활동을 했습니다. 그 식당에 소머리국밥이라는 큰 간판이 달려있었는데 그 간판을 그대로 두고 싸게 임대를 하고 10년 가까이 갤러리로 운영했죠. 이곳을 움직인 단체가 ‘할아텍 할 예술과 기술·Hal Art&Technology’ 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제가 처음으로 관여해서 만든 예술인 단체인데 저희 작가들이 폐광지역인 강원도 태백을 매달 방문해서 문화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마침 지금 태백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멤버 작가들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울과 태백의 중간지점인 양평에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양평에서 만나서 태백에 함께 이동을 하기도 하고, 태백에서 하기 힘든 활동은 양평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양평으로 많은 작가들이 유입되기도 하니 양평이 중요한 거점이 되었죠.

소머리국밥을 운영했던 ‘할아텍’은 Hal Art&Technology의 줄임말로 미디어작가와 협업해서 활동한 예술

단체입니다. 현재 양평 양수리에 살고 있는 이경희라는, 조각과 미디어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컴퓨터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Interactive Art* 를 공부하고 와서 합세하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한 예술까지도 수용한다는 관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할아텍은 활동 작가들이 고정적이지는 않고, 활동에 따라 참여를 하기도 빠지기도 하는 형식입니다. 올해 20주년 기념전시는 약 4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쪽에는 전문 갤러리가 없기 때문에 전시공간도 고정적이지 않고 석탄박물관, 다방, 비닐하우스 같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 가루개프로젝트

양평 가루개 마을에 철거 예정인 헌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철거하기 전에 1년간 그 집에서 ‘글과 그림’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글쓰기’라는 것과 ‘말하기’, 소리와 이미지의 관계를 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벽면을 거닐면서 그날그날 생각나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그 글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형상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 고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집을 지나거나 방문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 나눈 것을 적기도 했습니다. 퍼포먼스 공연도 하고, 악기 연주회, 토론 등을 진행하면서 관객들의 반응을 작업에 반영하기도 하는 관객 참여적 과정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강남의 갤러리JJ에서 결과물을 전시했습니다. 글을 쓴

벽지, 유리창문이나 문짝 등을 뜯어내어 꼴라쥬한 것들을 모아 올해 3-4월에 전시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의 장소성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풍경화를 그리듯이, 그런데 이 작업에서는 글, 소리라는 것에 추상적인 요소를 더 접목을 시킨거죠.

#### 4. 작업소개

##### 역사를 그리는 작가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불합리하죠. 그런데 조선초기의 권력 싸움, 친족간의 문제, 권력이라는 것은 본능 같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단종과 세조는 아주 극단적이고 상징적인 비극적 인물이죠. 이 작업을 86년부터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하다보니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한국전쟁에 대한 작품도 그리기 시작했죠. 마고도 사실 역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국사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그 시원 중에 하나가 마고라는거죠. 모든 역사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사를 주제로 작업을 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로 기록된 것이 역사

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래에는 그런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글은 굉장히 지능이 발달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 전에도 인간이 살고 활동했던 것은 너무도 확실하잖아요. 돌도끼를 보면 인간이 만들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것들은 너무도 확실하잖아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역사로 봐야 한다. 특히,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저는 그림이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그것이 개인적 관심으로 인한 미시사적인 것이어서 공감을 많이 못 얻을 뿐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전쟁의 경우는 제가 그렸다고 해도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그리는 것과 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역사가 되는 거죠. 기록을 하면 역사가 되는 거고, 기록을 하지 않으면 역사가 되지 않죠. 그 중에서도 저는 그림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국가라는 것의 역사를 말하지만 작게는 지방사, 개인사가 있을 수 있죠. 저는 모든 것을 폭넓게 역사로 보는거죠.

### 빨간눈의 자화상

제가 80년대 초반부터는 원색을 많이 씁니다. 현대미술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내 자신이 깨달은 점도 있고, 자각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색으로 화면을 표현하기 시작한 게 80년대 초인데, 원인은 잘 모르겠지

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억울한 일이나 불합리한 것을 보거나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할 수 밖에 없을 때 일어나는 분노같은게 있을거예요. 저의 경우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본능인건지, 후천적으로 생겨난건지 모르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그 형상에 제가 몰입이 되면서 그런 감정들이 정화되고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몰두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 전에 내가 가졌던 감정들이 다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히 붉은색의 경우 저에게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붉은색이 아닌데 붉은색을 칠하고 나면 해소되는 느낌. 빨간눈의 자화상을 그릴 때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붉은색을 칠하면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지 망설였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자극적이지만 한 번 해보야겠다 하면서 이게 별 문제가 아닌건데, 이건 그냥 그림인데, 이것에 현실의 문제를 너무 일대일로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가 없겠다. 붉은색을 칠하고 나니 편해지는.

눈을 붉은색으로 하는 것을 왜 기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많은 가치관들이 이제는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나의

어른에 대한, 조상에 대한 상하관계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깨닫는 것을 그림에서도 색채문제에 있어서 느끼거든요. 절제되고 조선시대에는 원색을 못쓰게 하고 관혼상제나 종교행사에서만 쓸 수 있었죠.

지금은 넓게는 민주화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에게 자유가 많이 주어졌고, 색채해방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저는 작가로서 더 앞서서 과감하게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70년대에 그림을 그릴 때와 지금 그릴 때 도시가 많이 바뀌었어요. 간판도 빨간색, 조명도 빨간색, 서체도 다양하고, 너무 자유로워졌죠. 그런것들이 시대의 진보, 다양함을 의미하죠. 저는 요즘은 오히려 색을 좀 절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한 20년간 무채색을 안썼어요. 제가 작업을 하는데도 색을 사용하는 경향이 바뀌고 있어요.

## 5. 향후 활동 계획

제가 젊은 시절에 늦게 작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을 활동을 놓지 않으려고 저 자신을 다그쳤던 것 같아요. 기획이 좋은 전시를 좀 가려서 하라는 비난을 절 위한 충고로 귀담아



들으면서도 저는 제 작업활동이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전시가 주어지면 마감을 위해 계속 하게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제로 여기고 있죠.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억제하려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도 계속 작업을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 6.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양평이 서울과 가깝고, 양평과 서울을 오가면서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아서 지역에서 작업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는 높을거예요. 하지만 양평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군 규모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데가 있겠죠. 경험한 바로는 한국 전체 미술관들이 건물 외형에 비해 내용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작품이 있으면 사람이 저절로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체제, 뼈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 인력들을 갖춰야 하고, 어떤 작품을 어떻게 수집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할 것이냐 하는 뼈대를 만드는 게 참 쉬운 작업은 아니죠. 미술관의 생명은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틀림없이 사람이 모여들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미술관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기획자만이 할 수 있는데 대안공간들을

많이 발굴, 기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공간, 작업공간 등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작가, 지역작가를 돕는 것과 좋은 미술관, 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역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양질의 기획을 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이 꼭 양평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사람을 데려와도 되죠. 양평의 모든 지역작가를 수용하는 것은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들도 지역미술관에만 만족하면 외부로 활동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어려워지죠.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 백



#### 안창홍 1953~

80년대 민중미술작가로 활동한 현실과 발언 동인 중 한 명이다.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작가이다.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그 안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인간군상들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표현한다. 도시의 풍경과 문명을 멀리서 바라보기 위해 1989년에 양평으로 이주해왔다. 뛰어난 작가정신으로 회화, 조각, 최근의 디지털 회화까지 꾸준한 매체실험을 해오고 있다.

## 안창홍



양평 작업실에서의 안창홍. 뒤에 보이는 작품은 ‘화가의 심장’ 부조 연작이다.

안창홍 1953은 자신을 문명과 인간관계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그리는 현실주의 작가라고 소개한다.

1989년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사를 온 것도 ‘문명의 이기심을 먼 곳에서 바라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라고 말한다. 당연히 그의 젊은 시절을 관통하는 현대사도 안창홍의 주요한 작품의 주제가 됐다. 군사독재 시절 질곡의 역사, 경제발전 뒤

의 어두움, 빛이 강할수록 어두움도 짙어지는 현실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안창홍의 체제 비판적인 성향은 어린 시절 겪은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듯했다.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갖춘 안창홍은 그의 성향과 닮지 않은 가정 형편과 맞불려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그림에 몰두했다. 부산에서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미대 지망생을 가르치는 화실이 잘 돼도 너무 잘됐다. 대학이란 제도권을 부정한 안창홍이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는 미술 과외선생이 된 현실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다. 과감히 화실을 때려치우고 서울 화곡동으로 올라왔다.

이런 성향의 안창홍이 ‘현실과 발언’ 그룹의 일원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미술 그룹인 ‘현실과 발언’ 내에서도 안창홍은 ‘경계 대상’이었다. 그의 표현대로 ‘결’이 달랐다. 운동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는 작품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안창홍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 속에서 개인적인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독일의 여성 국민화가 케테 콜비치 Käthe Kollwitz 1867~1945 를 예로 들었다. 민중미술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화가의 테크닉 부족도 중요한 이유가 될 터이다. 안창홍은 이를 ‘시간 분배 비율이 달랐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안창홍이 그려왔던 인물들은 보통 사람들이다.

“나는 역사의 뒀안길, 잊힌 민중들의 삶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기록물이나 사진 자료들을 수집하고 들추어내어 차용하거나 변용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해 낸다.”



가족사진 1982

‘보통 사람들의 향기’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안창홍의 가족사진 연작과 아리랑 연작 속의 인물들은 눈을 감거나 심지어는 눈을 도려낸 모습을 하고 있다. 감은 눈은 지쳐있는 민초들의 삶을, 뚫려있는 눈은 자신의 뒤쪽을 바라보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의 인물화들은 ‘절망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는 작가의 민중에 대한 애정의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베드 카우치

이런 관점에서 안창홍이 그리는 ‘베드 카우치’ 연작의 누드화 속의 인물들은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작가가 사는 마을의 이웃 사람들이 누드화의 모델로 등장한다. 그중에는 안창홍이 10년을 줄라 결국은 옷을 벗은 이웃 사람도 있다.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보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안창홍의 그림 속에서는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나체를 당당하게 들어내면서 관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객은 누드를 감상하기보다는 누드화 속의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비로소 안창홍이 말하는 ‘보통 사람의 향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도 같다.

안창홍을 얘기할 때 ‘화가의 똥’과 ‘화가의 심장’을 빼놓을 수는 없을 듯하다. 안창홍은 “나는 정신적으로 힘겨울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분노가 차오를 때, 고독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자화상을 그린다”라고 말한다.





화가의 똥, 1999, 천에 아크릴릭, 194x97cm

돌산 꼭대기에 앉아 한 손에 휴지를 들고 똥을 싸는 화가. 그가 싸는 똥은 여러 색의 물감을 짜놓은 것처럼 무지개 빛깔이다. 의도적으로 B급 감성으로 처리한 화풍.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림에서 느끼는 직설적인 비유나 은유보다는 “그림은 결국 ‘소통’이고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 골똘히 연구하는 조형 어법”이라는 안창홍의 말로 답변을 대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화가의 심장’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화가의 심장을 둘러싼 가시덩굴, 붓을 움켜잡은 백골, 물감 튜브와 꽃 등으로 이루

어진 부조 작품은 작품 속 요소들이 지니는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작품을 대하는 작가의 자기성찰과 열정을 되새기는 과정으로 보는 게 나을 듯하다.

가장 최근에 안창홍이 집중하는 작업은 '유령 패션' 연작이다. '유령 패션'은 얼굴과 신체가 없는 모델들이 하나같이 값비싼 명품들을 입고 있다. 누구나 갈망하는 명품 옷을 입은 유령 모델들은 피를 흘리고 있다.



유령 패션, 2021, 캔버스에 유화물감,  
162x113cm



유령 패션, 2021, 캔버스에 유화물감,  
162x113cm

안창홍의 '가족사진', '봄날은 간다.', '베드 카우치' 연작과 최근의 '유령 패션' 연작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당혹스럽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안창홍의 이런 시선은 그가 취중에 썼다는 그의 예술관이 잘 요약하고 있다.

“빛과 그들의 틈, 욕망과 절제의 틈, 물질과 정신의 틈, 선과 악의 틈, 이곳과 저곳의 틈. 이 세상의 모든 상반된 가치의 경계, 예술은 규범과 단정의 산물이 아니라, 모호함과 불안함과 갈등의 긴장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야 더 아름답다.”

자신을 ‘호기심 대마왕’이라고 일컫는 안창홍은 곧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난도질’을 멈추지 않는다. 최근 연작인 ‘유령 패션’은 놀랍게도 핸드폰 앱으로 그린 디지털 그림이다. 작품의 유통방식도 디지털 에디션을 만들어 디지털 액자에 넣어 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터뷰 말미에 안창홍은 그의 고향인 밀양에서 ‘안창홍 기념 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그가 40년을 넘게 살아온 양평에 자신의 집과 작업실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안창홍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그림 그리는 안창홍입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89년도에 양평에 왔습니다. 30년 넘었네요. 부산에서 입시생들 가르치는 화실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제도권 교육을 거부한 사람인데 입시생을 가르친다는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생업으로 삼다가 입시제도가 바뀌고, 학생들 입시 성적이 좋게 나오니 수강생이 많아지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생겨 화실문을 닫고 서울 화곡동으로 이동해서 등지를 틀었습니다. 가족들을 부산에 두고 혼자 살다 보니 안일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차에 양평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양평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어요. 당시 제가 있는 이곳 근방에 글 쓰는 후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배 집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곳에 다리가 없었어요. 용문에 내려서

이동하려는데 건너편에 후배가 햇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불에 의지에 길을 건너고 후배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이틀 후에 유럽여행을 예정하고 있었어요. 후배한테 “야, 내 여가 들어오면 땅 좀 있나?” 물었습니다. “형님, 여기는 얼마든지 있죠.”라는 말을 듣고 유럽여행을 마친 후 바로 서울 화곡동 집을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무작정 들어왔으니 집은 없었고, 지금 작업실 옆쪽에 있던 폐가를 대충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살기 시작한 것이 30년이 지났습니다.

### 3. 양평과 작업활동

저는 현실주의 작가이기 때문에 문명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것들을 파헤치고 그립니다. 주로 도시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것도 중심에서 좀 더 지독한 문명이기 文明利器 를,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평으로 들어온 것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더 큰 틀로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골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시골이 좋아서 양평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원래 황무지처럼 허허벌판, 빈 밭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창고를 직접 블록 쌓아 짓고 지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점점 자연에 동화되고, 인간이 만든 문명만큼 자연도 치열하잖아요. 그런 자연의 생리가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

을 많이 얻기도 하고, 시골에서 바라본 도시의 문명의 어떤 근원을 그리고 파헤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에 동화되고, 요즘은 자연풍경도 많이 그립니다. 근 20년 정도 지나면서 자연의 위대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평을 그린다고 보다는 양평이 품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보는 것이죠.

#### 4. 작업소개

주로 인물을 많이 그리죠, 모델을 두고 그리는 관음증을 유발시키는 인물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녹아있는 보통사람들의 모습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이 아랫동네에 사는 분, 지금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농부를 설득해서 누드를 그렸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삶에 녹아있는, 보통사람들의 혈기 血氣 를 그리는 것이 주 작업입니다.

작업장르가 다양해요. 우리나라 역사가 매우 치열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가 격변기 속에서 발전해왔는데 그 격변기 뒤에는 항상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뒤쪽 그림자는 더 진하잖아요. 저는 그 역사의 뒤안길에 희생당하고 사라져간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게 있어요. 큰 타이틀로 ‘아리랑’이라는 주제인데, 그 속의 소주제로 ‘가족 사진’ 시리즈, ‘기념촬영’ 시리즈 등 여러 가지 역사 속의 인물

들. 사진 속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사진을 다시 화면에 옮겨 그리면서 1차원의 세계가 3차원으로 전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작업들에서 등장인물들이 눈을 감거나 까맣게 표현되는데, 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흔히 눈을 통해서 마음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역사의 뒤편에서 갈갈이 찢어지고 가족이 와해되고 해체되는 그 속에서 황폐해져 가는 인간의 심리를 눈을 통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특히 눈을 감고 있는 작품들은 질곡의 역사 속에서 지쳐있는 민초들의 또 다른 내면의 세계로 관객들이 침잠하도록 유도하는 요소입니다. 또, 입체도 해요. 제작년에는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입체작업들로만 큰 대형 초대전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연작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5.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우리처럼 작업을 오래 해 온 작가들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작업만을 위해 양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술계는 나이를 떠나 1%의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저도 1%에 해당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외의 작가들을 위해서 레지던시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작가들을 많이 불러서 작업, 거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교나 유휴공간들을 레지던시로 리모델링 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제작되는 작품들을 군립미

술관에서 전시하고 적당한 금액으로 매도를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양평이라는 곳이 개발 제한구역이므로, 문화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풍광이 좋고, 작업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젊고, 좋은 작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은 작품들이 제작되어 양평의 많은 곳에서 그 작품들이 보여지는 예술도시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는 200년 된 유서 깊은 레지던시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직접 도시계획에 참여하여 가드레일 하나까지도 예술로 변모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로 변모해갈 수 있도록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예술전문인력들이 행정과 실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간혹 공공기관에 설치된 조각작품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더 투명한 방식으로 작가 선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작품을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양평군만큼 좋은 작가들이 많은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는 양평의 좋은 작가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큰 규모의 작업실이 작가들 사후에 많은 부분 기증, 매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 좋은 마음으로 기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술전문직 인력들이 애정을 가지고 양평의 예술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작가들이 타지역으로 이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귀향을 할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인 밀양에서 2년 전부터 안창홍 시립미술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의 작품은 그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양평이 저에게 더 중요한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평의 예술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육근병 1957~

경희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청년작가 시절 한국작가로서 최초로 카셀도큐멘타에 초대되는 이례적인 기록이 있는 작가이다. 영상, 사진, 사운드 작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해와 실험정신을 탁월한 감각으로 드러낸다. 15년 동안 양평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양평에서 찍은 사진들로 에디션을 제작하기도 한다.

## 육근병

무덤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흙더미에 비디오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모니터 속에는 커다란 눈이 관객을 바라보고 있다. 전시 작품을 보러 온 관객이 도리어 작품에게 관람을 당하는 듯한 이 처음 보는 기묘한 작품이 육근병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작품 ‘풍경의 소리+터를 위한 눈’이다.



1989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  
 풍경의 소리+터를 위한 눈, 1989, 클레이, TV모니터, 가변설치

육근병은 실제로 누군가의 무덤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사

람의 눈만 촬영한 영상을 틀어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작가 자신도 섬찟하고 무서웠지만, 무덤과 눈의 조합이 주는 강렬한 이미지와 다양한 의미 전달력에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느꼈다.

이 작품이 포함된 육근병의 첫 개인전은 그를 단번에 미술계의 ‘주목받는 뉴페이스’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대학 졸업 후 2년 정도면 개인전을 여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육근병은 8년을 묵혔고, 후배들의 성화에 못이겨 1988년, 서울의 작은 화랑에서 3주간의 일정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찾는 사람도 거의 없는 개인전이어서 처음 며칠만 나가고 집에 있는데 갤러리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누가 작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육근병을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은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초대 학예실장이던 [故유준상 1932~2018](#) 씨였다. 유준상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파리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전공하다 미술인으로 전향한 당대 최고의 미술평론가였다.

우연히 육근병의 개인전을 보게 된 유준상은 “이 젊은 작가가 도대체 누구냐”라며 며칠을 계속 갤러리를 찾다가 결국 작가를 만나지 못하자 갤러리 주인에게 부탁한 것이다.

육근병을 인사동에 있는 부산식당으로 불러낸 유준상은 “네 작품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스타일이다, 너 도대체 누구냐. 이제부터 자네가 나설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유준상의 추천으로 1989년 청년 작가전에 초대받은 육근병은 89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홍대와 서울대 출신이 판을 치던 당시 미술계에서 육근병의 표현처럼 ‘제3세계 대학’인 경희대 출신 작가가 상파울루 비엔날레 *Bienal De Sao Paulo* 의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것은 자체가 이변이었다.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육근병은 대형 사고를 쳤다. 국제전에 처음 나간 한국의 육근병이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대상 *Grand Prize* 후보 2명 중의 한 명이 된 것이다. 결국 대상은 세계적인 조각가인 미국의 마틴 퓨리어 *Martin Puryear 1941~* 에게 돌아갔지만, 육근병은 세계 미술계의 떠오르는 스타가 됐다. 당시 육근병의 대상 후보 소식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대서특필됐다. 한국 작가가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대상 후보가 된 것 자체가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육근병은 비엔날레가 끝나자마자 일본 미술계의 초청을 받아 상파울루 한국 영사관에서 바로 비자를 받아 곧바로 일본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육근병은 일본 기자들의 열띤 취재 경쟁을 겪게 된다.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린 육근병은 1992년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현대미술제인 아홉 번째 ‘카셀 도큐멘타’에 주최측이 선정한 전세계의 유망 작가 15명의 중의 한 명으로 초청을 받는다. 1955년부터 5년마다 열리는 카셀 도큐멘타는 피카소, 칸딘스키, 백남준 등이 초청받은 권위가 있는 미술제이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백남준 5회에 이어 육근병이 2번째이고, 한국 국적으로는 육근병이 최초다.

1992년 카셀 도큐멘타의 스타는 미국의 조나단 브롭스키 Jonathan Borofsky 1942~ 와 육근병이었다. 당시 도큐멘타를 취재한 연합뉴스는 “이번 도큐멘타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미국 작가 조나단 브롭스키의 설치작품 <하늘을 향해 걷는 사람>과 나란히 위치한 육 씨의 작품은 개막일에 취재진의 열띤 취재대상이 됐다 1992. 6. 23. 연합뉴스”라고 보도했다.

조나단 브롭스키와 육근병은 지금은 친구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전시 장소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갔던 사연이 있다. 육근병이 전시 장소로 배정받은 곳은 프리데리치아눔 Fridericianum<sup>1)</sup>을 마주 보는 프리드리히 광장 맨 앞쪽이었다. 누가 봐도 명당자리였다. 문제는 브롭스키가 이 자리를 탐낸 것이다. 당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며 카셀 도큐멘타의 특별 초대

1) 독일 헤센 주 카셀(Kassel)에 1779년에 완공된 박물관이다. 본래 귀족과 영주의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 지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세계 최대규모의 현대미술 박람회인 <카셀 도큐멘타Kassel Documenta> 개최지로 유명하다.

작가였던 브롭스키가 육근병의 자리를 요구하자 주최측은 육근병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권유했다. 현재 광화문의 명물이 된 흥국생명 본사 앞의 거대한 움직이는 조각 ‘망치질하는 사람 *Hammering Man*’을 만든 바로 그 브롭스키였던 것이다.



1992 카셀도큐멘타 설치 전경

호락호락할 육근병이 아니다. 몇 마디 주위들은 독일어로 육부터 내뱉을 육근병은 교포의 도움을 받아 카셀시의 중재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육근병의 손을 들어주었다.



1992 카셀도큐멘타 전경

“나는 자랑스러운 아티스트다. 그리고 나를 초청한 사람은 위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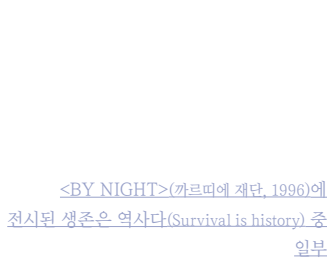
법원에서 육근병은 이렇게 말했다.

독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육근병은 이렇게 말했다.

“DNA가 작가인 작가”

육근병이 작품들은 영상, 소리, 사진, 드로잉 등 모든 기법을 동원해 관객의 시선과 생각을 사로잡는다. 작가이면서 그룹사운드 옥시전 Oxygen의 리드 보컬 겸 기타리스트로도 활동할 만큼 음악적 재능까지 겸비한 그는 작품을 위해 역사와 인





<BY NIGHT>(까르띠에 재단, 1996)에  
전시된 생존은 역사다(Survival is history) 중  
일부

문학을 섭렵했다.

“나는 지금 지성의 날개로 높게 서서히 날며 관찰 중에 있습니다”

‘아티스트로 불리기보다는 인문학자로 불리는 게 더 좋다’는 육근병은 911테러로 중단된 뉴욕 UN 본부 건물을 그의 작품으로 감싸는 프로젝트를 다시 준비 중이다. 아마도 이 프로젝트에는 그동안 육근병이 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보여주었던 ‘생존은 역사다 *Survival is history*’ 시리즈의 완결판이 될 것 같다.

미술계에서는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런 칭호를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다만 생전의 백남준이 육근병에게 해준 이 말만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육근, 이게 말이지, 앞으로 남고 뒤로는 까지는 일이야!”라며 대중의 환호와 평단의 찬사 뒤에 작가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애환을 솔직하게 후배에게 털어놓는 인간적인 백남준에 대한 육근병의 기억이다.

작가가 되기 위해 육근병처럼 많은 재능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역시 DNA를 타고 가야 할 것 같다.

## 육근병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작가죠. DNA가 작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DNA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형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운명처럼 생각하면서 작가의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학 당시 하이퍼리얼리즘 페인팅 작업을 하고,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는 새로운 매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매체가 비디오였습니다. 전공분야는 아니었지만 취미로 음악도 했습니다. 음악이 미술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티스트’라는 수식어는 보편성을 가진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는 인문학자라고 칭합니다.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티스트로서 어떤 자세로 존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식, 인지가 중요하고 본인의 지론이 필요합니다. 역사 책을 많이 보면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티스트라는 주제로 예전에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 천에 관객들이 말하는 것을 쓰는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별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술이라고 여깁니다. 예술은 기본적으로 증폭성과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은 종교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예술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숨을 쉬게 하는 것이 예술이고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작업의 모토는 ‘구우일모’입니다. ‘아홉 마리 소의 털 한 가닥’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며, 소박하고 특별할 것 없는 것들의 삶의 역사에서 의미를 찾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이곳에 들어온 지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주한 원주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젊을 때부터 유명 갤러리의 전속작가로도 활동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기는 했지만 돈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공간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작가임에도 예산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가면서 집사람에게 작업공간을 지을 곳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양평으로 알아냈더라고요. 와보니 정말 맘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 3. 양평과 작업활동

<The Sound of Landscapes> 연작은 양평에 와서 제 작품세계가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작업은 제가 자연계와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니까요. 이 작품은 컬렉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연계에서 받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자연공간에서 24시간 동안 보고 듣고 호흡하는 것에서 오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저에게는 매우 행운인거죠. 양평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기보다는 자연환경이 저에게는 너무도 좋은데 이곳이 마침 양평이라는 것이죠.

### 4.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눈이 갖는 상징

보통은 관람객이 작품을 보러오잖아요. 그러는 동시에 작품이 그 사람을 본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죠. 굉장히 고귀하면서도 저한테 계속 대화를 걸어오는 느낌이에요. 화면 속 눈을 볼 때마다 받는 느낌이 달라요. 그때 오는 느낌에 반응을 하고 편집을 하게돼요. 어릴적에 유난히 '본다'는 행위에 많이 주의를 기울였어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곳이 있구나. 늘상 보이고 주위가 닿는 곳이 아닌 소외되는 곳이 있구나. 그 곳에서도 빛이 나고 재미있는 것들이 벌어지는구나 생각을 했

있죠.

##### 5. 향후 활동 계획과 행보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 아카이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몇 번 왔다갔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동베를린 쪽에 작업실을 두고 있습니다. 도큐멘타 출신이다보니 독일에 서 지원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아직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평에 작업실을 이용하는 동시에 독일에 도 작업공간을 하나 더 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중단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계 187개국 어린아이들의 눈을 UN빌딩 외벽 삼면에 투사하는 작업인 미국 UN프로젝트를 14년째 준비 중에 있고, 영국, 프랑 스, 베이징에서도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 백



**최운영 1949~**

1981년 창립한 <겨울·대성리 31인展>부터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바깥미술회의 주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바깥미술’이라는 개념을 창안해 고유의 바깥미술을 개척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서구중심의 제도권 미술과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 시대의 암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성리를 거쳐 제주도~난지도~자라섬~두물머리 등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사회적 부조리함을 지닌 곳을 이동해 다니며 미학적 실천을 해오고 있다.



## 최운영



2020년 양강섬에서 열린 바깥미술회 기획전 <부유하는 섬>에서 최운영이 그의 설치작품 앞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최운영의 작품설명은 길어야 1분 정도이고 한 문장으로 끝낼 때도 많다.

원래 이 지면은 작가 최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평 문화재단은 이 책을 위해 작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에 걸친 선정 회의를 거쳐 최운영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작가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운영은 개인 작가로서 인터뷰나 책 수록을 거부하면서 ‘바깥미술회’라는 단체로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양평문화재단은 작가의 의견을 수용했다.

40년 전인 1981년 1월, 겨울 20대의 젊은 작가 31명이 가장 추운 계절에 가장 추운 강변에서 전시회를 하겠다고 대성리에 모였다. 바깥미술회의 출발점이 된 <겨울, 대성리 31인> 전의 시작이다. 김정식, 김학연, 이흥덕, 임충재, 정진석, 최현수, 홍선웅 등 중앙대학교 출신 ‘다무’그룹 작가를 주축으로 탄생한 <겨울, 대성리, 31인전>은 현장 미술품 전시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 평론 등 함께 참가하는 종합예술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최운영과 함께 81년 창립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동인으로 있는 회원 중 한 명인 임충재 작가는 이렇게 회고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열기가 있을 때였는데, 한국의 미술이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젊은 패기로 부딪혀보자고 시작했죠. 그 후 종합예술제에서 미술작가들만 남아 미술전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생태 미학과 생태 미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전 지구적, 인류적 문제인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오늘날의 ‘바깥미술회’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페스티벌 다다 × 바깥미술회> 개막식 투어, 작품 설명 중

1992년 바깥미술 창립 선언문에는 바깥미술회의 창립 배경과 추구하는 가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예술도 맹목적으로 수용된 서구 사조의 영향으로 관념화되고, 개념화되었으며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줄곧 탈자연화를 거듭해왔고, 우리의 창조적인 사고의 문은 마멸되어가고 있다. 소위 60년대, 70년대의 모노크롬, 미니멀리즘으로 대변되는 관념적이고 표현을 절제한 형식주의 미학이 주류를 이루어 바깥으로 뛰쳐나가 느끼고 체험하는 예술, 그래서 풀 한 포기, 나뭇가지 등 자연의 생명체들과 ‘살아있는 공간’을 대중과 같이 갖고자 하는 ‘겨울, 대성리 정신’이 왜곡되고,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다.

1992년 ‘바깥미술회’가 정식 창립되면서, 전시의 명칭도 <대성리전>에서 <바깥미술전>으로 바뀐다. 아울러 대성리라는 장소적 제한을 넘어 양평, 신촌, 여주, 천안, 양재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변화의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들이 함축되어있다.

*첫째, 겨울이라는 한정된 계절과 대성리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야 한다.*

*둘째, 타성화되고 불거리에 치우친 행사 위주 전시에서 벗어나 작품의 질적 향상과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셋째, 확대된 규모에 비해서 그것을 감당할만한 운*

영 체제가 부족하다.

넷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장소와  
형식 실험이 필요하다.

-'바깥미술회의 창립' 중 발췌

바깥미술회는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서 시작해 자라섬  
을 거쳐 2017년 겨울부터 양평 두물머리에서 매년 겨울에 정  
기전을 열고 봄이나 가을에 기획전을 열고 있다.

바깥미술회의 전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중 하나는  
철저한 현장 작업 중심이라는 점이다. 전시 참여 작가들은 전  
시 개막일 1주일이나 열흘 정도 앞서 양평에 도착한다. 어떤 작  
품을 할 것인지 미리 구상은 해 오지만 작품이 설치될 야외 장  
소의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작품에 쓰이는 재료  
도 되도록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환경문제  
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시가 끝나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료를 우선하는 것이다.

현장 중심 작업원칙 때문에 전시가 임박하면 두물머리에  
는 흰색 몽골 텐트가 설치된다. 작업기간 동안 작가들이 비바  
람을 피하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인 셈이다. 정  
식 개막전에 두물머리의 텐트를 찾으면 쉬고 있는 작가와 차 한  
잔을 나누거나, 작가들의 작업을 도우면서 작가들과 답소를 나  
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음료수나 간식을 가져가면 작가들의





전시 개막일을 앞두고 작가들이 텐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오른쪽 나무를 깎는 작가가 최운영이다.



하전남, 문히다, 2021, 양강섬에서 수집한 자연재료, 한지, 마끝, 조개껍질+인간  
박각미술회 전시에는 때때로 참여작가의 퍼포먼스도 등장한다. 재일동포 작가 하전남은  
벚꽃나무의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알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원산지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는 양강섬에 있는 벚꽃나무에 한지로 설치작업을 하고 개막일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바깥미술전의 또 하나의 원칙이자 전통은 ‘작가 회의’다. 작가 회의는 주로 전시장 주변의 허름한 모텔에서 열린다. 여건이 되는 작가들은 전시 기간에 합숙하며 매일 밤 작가 회의를 여는 것이다. 전시에 발표할 작품을 소개하고, 제작 의도를 설명하고, 동료 작가들의 반응을 듣는 자리는 전시회마다 이어지는 전통이다.

2021년 가을, 양강섬에서 열린 바깥미술회 기획전은 양강섬 일대에 설치작업과 바깥미술회 창립 4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생태문명으로 전환-대지를 상상하다> 2021.10.9.-10.18, 양평 생활문화센터 및 양강섬 일대 이 동시에 열렸다.



바깥미술회 창립 4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생태문명으로 전환-대지를 상상하다>

전시전경



최운영, 강에서 올라가다, 2021, 가변설치  
바깥미술회 창립 4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 <생태문명으로 전환-대지를 상상하다>  
(2021.10.9.-10.18,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양강선 일대) 출품작품

20대에 시작해 백발이 성성한 60대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바깥미술전을 이어오며 신념을 지켜 온 것에 찬사를 보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 대성리와 자라섬을 떠나 양평으로 오게 된 이유도 바깥미술회의 신념 고수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아직 청년의 패기를 잃지 않고 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양평의 품을 찾아온 바깥미술회에게 양평이 얼마나 든든한 동지가 되어줄지 지켜볼 일이다.



임춘재, 21c 인간군상(비닐인간), 2021,  
가변설치





김유아, 못된연인, 2021,  
 흰옷, 나무, 가변설치



Mori Taeko,  
Right and Lines Requiem- 진혼, 2021,  
 가변설치



김창환, 행복한 시절, 2021,  
 차광막, 철, 밧줄.



김보라, 고인물, 2021,  
 방수천, 나무못, 돌, 물, 가변설치



김용민, 환상(幻像)의섬, 2021,  
 가변설치



하전남, 문히다, 2021,  
 양강섬에서 수집한 자연재료, 한지, 마끈,  
 조개껍질+인간, 설치 및 퍼포먼스



이부라, 그게 나였어, 2021,  
혼합재료, 가변설치



정혜령, 어제의 무개, 2021,  
가변설치



정하음, 드러내기, 2021,  
가변설치



김효명, 더부살이, 2021,  
혼합재료, 가변설치



최수옥, 어머니 안녕하세요?, 2021,  
혼합재료, 가변설치



김용철, 선을잇다-그날 비탈진 곳에 분  
바람길 따라 걷다, 2021,  
잘린 생대나무, 마스크테이프,  
야광테이프, 가변설치

바깥미술회 창립 4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생태문명으로 전환-대지를 상상하다>  
(2021.10.9-10.18,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양강선 일대) 출품작품

## 바깥미술회 1981 최운영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저는 개인적인 작업보다는 바깥미술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 최운영입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양평으로 이사 온 시기는 2002년입니다. 서울은 집세가 원체 비싸서 이사를 자주 다녀서 작업을 열심히 하려고 양평에 왔습니다.

### 3. 작업소개: 바깥미술 활동과 그 정신

- 바깥미술의 전신<겨울·대성리 31인>展과

바깥미술의 태동

바깥미술 초기의 대성리 작업 애초부터 자연환경을 주장하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서구미술 교육, 제도교육을 통해 받은 교육은 자연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한 해, 한 해 하다보니 그 이후에 바깥미술 동인이 85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전통문화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이나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군가가 약속을 하거나 한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죠.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미술 평론가에게 의견을 듣기보다는 당시에 서강대 국문과에 계셨던 민속학자 김열규선생님을 찾아뵙고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부터 그분이 세미나를 참여하시고, 연구발표를 하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죠. 당시에도 우리가 막연하게 시작을 했지만 자연 환경에 대해서 그때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환경’이라는 것의 문제를 90년대 중반 이후까지 잘 인식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자연환경, 생태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번역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80년대 운동권에 있던 분들이 감옥에서 공부해와서 환경 단체를 만들고 했죠. 그래도 90년대도 자연환경, 생태에 대한 용어 자체가 구별이 모호했고, 사람들이 아직도 환경문제에 대해 정확히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죠. 우리도 그때부터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자연환경문제를 지향한다 하긴 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진 못했죠. 연구자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작업을 얘기할 순 없어요.

제도권, 주류미술이 아닌 것도 있죠. 우리가 대성리로 뛰쳐나갔을 때는 서구미술에 대한 반하는 감정이 컸죠.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암울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그치만 바깥에 나

가서도 참 어려웠었어요. 당시에는 화랑이나 미술관 같은 발표의 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공간이 없으니 대성리가 일종의 분출구가 된거죠. 그곳이 우리 정신적 예술 활동 발표의 요람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주체적인 멤버는 아니었어요. 몇 년 거듭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바깥미술 동인을 만들 때 동인 네명 중 한 명이 됐어요. 그때부터 개인 작업보다 이것에만 열중에서 하게 됐죠. 그게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어요. 바깥미술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개인전을 몇 십 년 전에 한 후로 개인 작업은 포기한지 오래예요. 그냥 그런 성향이 된 것 같아요. 바깥미술을 하면서 저한테 많은 변화가 일어난거죠. 개인이 강해야 집단도 강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바깥미술회는 정교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바깥미술이 있는거죠. 나의 바깥미술, 너의 바깥미술, 현재 바깥미술회원은 7명이므로 ‘7개의 바깥미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단이 공동적으로 내거는 목소리는 있죠. 하지만 정형화 되어 있거나 이데올로기적이라면 지속되지 못해요. 자기만의 바깥미술을 하다보니 각자의 바깥미술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런데도 연구자들은 우리의 형식을 나름대로 읽어내는 것 같아요. 자연환경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쉬운 것인데 함축된 의미는 아주 크잖아요.

### - 자연속으로

97년도 경북공의 <역사와 환경>展에 함께한 김경서 선생이 생태미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우리 바깥미술회도 그 용어와 개념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현안은 결국 기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나인 것인데 바깥미술회의 경우는 이전부터 그 문제를 안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전시 형태, 방법에 대한 변화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것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는데 최소한 우리를 보거나 그 옆에서 들으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이라도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미술은 상당히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전시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없죠. 다만 최소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들에게도 충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려면 우리가 충실히 좋은 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런 계기가 된 전시들이 <열린예술>展 1993, 서울, 신촌 <역사와 환경>展 1997, 경북공 국립민속 박물관 과 99년도에 <제부도 갯벌에서의 바깥미술 전-스스로 살아 숨쉬는 땅>展 1999, 제부도 이었어요.

90년대 중후반에 대중문화단체가 당시 많이 생겨났어

요. 동이나 구별로 하는 신촌문화축제 같은 곳이 대표적인 건데 지역별로 기획회사들이 개입을 하면서 문화예술축제라는 형태를 만들었죠. 신촌의 경우는 우리와 결합이 잘돼서 신촌문화축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큰 계기가 되죠. 우리 같은 단체들은 대부분 예술, 미술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진화는 이루어지지만 외부에는 강한 충격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시대정신을 이야기할 때 큰 움직임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열린예술>展, <역사와 환경>展이 자연환경, 생태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계기였죠.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기획한 게 <제부도 갯벌에서의 바깥미술전-스스로 살아 숨쉬는 땅>展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갯벌이 망가지던 시기여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어요. 기획회사가 갯벌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주민에게 소액만 주고 무자비하게 자원들을 캐갔던 거예요. 갯벌은 그 지역의 밭이에요. 갯벌은 생활 터전이라는거죠. 제부도의 경우는 주류상권은 외지인이 쥐고 있어요, 현지인들은 파라솔 정도 놓고 조개구이 팔면서 작게 장사를 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전시를 하냐는 식으로 많이 반대들을 했어요. 작업을 하러 갔는데 주민들이 막아서 우리가 다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와 막걸리를 들고 가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가치를 느끼면서 지속해왔

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가 전시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생각이 어느정도 있었나봐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상권을 크게 가지고 있는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들어와서 작업을 하라는 유혹도 있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주민들과 타협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을거예요.

이 외에도 다른 전시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96년 양재 시민의 숲, 천안 등을 돌아다니면서 일 년에 서너 번의 전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활동들을 지속해 오다보니 2002년에 난지도라는 곳에서의 기회가 온 거예요.

2002년은 제가 양평에 왔던 시기인데 이때 난지도에서 했던 전시의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양평으로 오기 전에 흑석동에 살아서 난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가 온통 난지도로 모였기 때문에 그곳은 주민이 살 수가 없었죠.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서울시가 난지도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싶어했죠. 난지도 정화사업 초기에 바깥 미술도 작업에 돌입해서 저희도 월드컵 열릴 때 개막을 했죠. 난지도, 생태에 대한 전시를 했는데 난지도가 온통 다 쓰레기로만 이루어진 곳이라 쓰레기를 다 처분할 수 없었어요. 그 위에 흙을 50cm 정도만 덮었는데 그 위로도 풀하고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세 달 동안 해야되는데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기초도 하고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하는



데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바람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특히 또 우리는 기후조건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설치하고 구상할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난지도의 문제를 주제로 전시를 했어요. 그게 바로 공교롭게 양평에 오자마자 그해 가을에 준비를 해서 다음 해 5월에 개막을 했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물론 전시만 보러 온 게 아니고 난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많이 왔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작품이 전시기간 동안 계속 훼손이 됐죠. 저는 당시에 ‘난지도의 정화의 불’이라는 작업을 하고, 회원들도 난지도의 치유를 주제로 작업을 했었는데, 작품이 있으니 촬영하기도 좋고, 작업 특성상 회원들이 작품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전시 동안 작품이 많이 훼손되면 새벽에 작품을 보수하고, 또 망가지고 새벽에 또 보수하고 했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서울 도심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험이 많지 않아요. 서울 중심을 벗어난 외곽에서, 바깥미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작업을 하다가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행사때 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처음 우리의 활동지역이었던 대성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곳이 개발이 되면서 가평군청도 우리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기획분양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기가 힘들어서, 가평군청의 좋은 분이 자라섬을 소개해주면서 서울에서 멀다는 고민이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작

업공간을 얻기가 힘들기도 하고, 젊은 작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2004년이었죠. 자라섬에서 터를 잡게 되었고, 그 후 사대강 사업 착수 다다음 해에 그 곳을 떠나왔습니다. 사대강 사업이 시작하면서 바로 떠났어야 하는데 국제전 때문에 이미 해외작가가 국내에 들어와있었고,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걸 두고두고 후회해요. 아침에 와서 작업을 하려고 작가가 미리 봐놨던 장소를 가면 사대강 공사를 한답시고 새벽에 이미 포크레인으로 다 해집어 놔있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회원들도 용납이 되지 않았지만 타협을 했죠. 전시는 하자고. 우리뿐 아니라 사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외작가들에게도 알리는 계기가 됐죠. 최소한 그런 오래된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향하면서 했다면 사대강 문제에 대해서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나갔어야 하는데 부끄럽게도 그때 그러지 못했어요.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렇게 2년 정도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자라섬도 떠났어요.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공원화가 되었고,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 미술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양강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찾는 곳은 우리주변에 자연환경 속에서도 인간이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이 상처받은 곳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거기가 많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공간이라면 굳이 미술이 필요없지 않느냐, 미술이 없어도 좋다.

하지만 우리 미술이 필요한 곳은 상처도 받고, 사람들에게 많이 훼손된 곳이라고 생각해요.

### - 바깥미술

미술계에서도 항상 우리들을 아웃사이더 대우를 하지만 오래 활동을 하다보니 우리를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용어도 상당히 많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설치미술이라는 용어를 우리 용어로 바꿔서 바깥미술이라는 우리가 만든 용어를 미술계에서 종종 쓰기도 했어요. 우리가 미술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은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바깥에서 전시를 하면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사동 갤러리에서 상영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바깥’이라는 용어가 우리들의 용어가 됐고, 또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바깥’이라는 용어가 꼭 ‘안’의 반대가 아니라, ‘안’을 수렴하는 ‘바깥’이죠. 실내에서도 전시를 하기는 하지만 실내전시는 바깥 전시가 끝나면 실내로 다시 가져와서 슬라이드로 작품들을 다시 보고, 연구자, 작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오고 있어요.

### 4.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몇 년 전에 통합지원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도입하면서 2월 달에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겨울 프로젝트는 카달로그를 못만 들고 있어요. 미술관, 문화재단의 행정처리 기간에 따라 2월에 하는 프로젝트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사비로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겨울프로젝트는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가치예요. 일년 중에 가장 추운 2월을 택한 것이 우리들의 정신이고 모태였습니다. 보다 더 악조건은 없다는 생각, 전세계적으로 겨울에 프로젝트 하는 곳은 없고 거의 우리는 유일해요. 타협을 한다면 3월 달에 해야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겨울을 빼면 바깥미술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겨울프로젝트는 우리만의 가치이고 정신이에요. 겨울에는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요. 해도 짧은 계절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힘들죠. 변명을 하자면 우리의 작업은 완성된 조형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가치의 공유는 사실 관객 뿐 아니라 작가끼리의 공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업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닌 작가들 만이라도 서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몇 년 그렇게 떠돌다 보니 두물머리 와서도 공교롭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멈춰버렸고, 올해는 하지 못하게 되었죠. 지금도 우리가 겨울 준비를 어찌해야 될지 고민이 있어요.

여 백



#### 이재삼 1960~

강릉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수학하였다. 서구 중심적 이해와 시각을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해 한국적 정서를 연구하고 표현하는데 주력해왔다. 목탄으로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독보적인 기법을 구사하는 작가이다. 양평에서 10년 넘게 거주, 대형 작업을 하면서 인문적 삶을 실천하고 있다.

## 달빛 화가 이재삼

이재삼은 목탄으로 그림을 그린다. 폭포, 대나무숲, 옥수수밭, 소나무와 매화나무. 그것들은 모두 달빛 아래에 있다. 강원도 영월 출신인 이재삼에게는 어릴 때, 익숙하게 봐왔던 풍경이다.

이재삼은 기억하고 있다. 달빛 아래 칠흑 같은 암흑의 공간에는 벌레와 나무 그리고 온갖 삼라만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재삼이 작품 속 검은 공간을 표현하는데 그토록 정성을 들이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저 너머, 2006, 캔버스에 목탄, 194x777cm

30대 후반부터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재삼은 ‘한국 사람이 하는 한국 회화’를 추구해왔다. 그도 20대에

는 설치미술 등 컨템퍼러리 아트 contemporary art 에 동참했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정체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보니 첫 미술교육은 크레파스로 시작했고, 서양의 석고상을 그리며 대학을 갔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작가의 운명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지 여행을 떠났다. 한반도의 땅을 꺾어 보고 싶었다. 수백 년 된 나무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는 수백 년을 견딘 나무가 가지는 에너지와 조형적 장엄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정체성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거친 이재삼은 목탄으로 대작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1000호에서 3000호를 넘나드는 그의 대작 목탄화를 보고 있노라면 ‘저걸 언제 다 그렸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만큼 공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들이다.

작업에 대한 이재삼의 욕심은 지나치리만큼 크다. 그의 작업실 뒤쪽에 있는 창고에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빈 캔버스가 가득하다. 어마어마한 양의 캔버스를 창고 가득 채우니 ‘김장을 마친 주부처럼 든든하다’라고 말한다.

이재삼은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해 하나의 규칙을 세웠



다. 집과 작업실이 10m 정도 거리지만 직장인들이 출근하듯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작업실로 출근하면 하루 목표량의 작업을 마칠 때까지는 작업실을 떠나지 않는다. 이재삼은 마음속에 작업량으로 꺾고 싶은 경쟁자가 있다고 했다. 그게 누구냐고 물으니, 지금은 말할 수 없고, 스스로가 ‘그분’의 작업 열정을 넘어섰다고 확신이 있을 때 밝히겠다고 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작업광인 이재삼이 경쟁 상대로 삼은 또 다른 작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의 최고 허망한 마음은.... 작업 못 할 때이고, 작가의 최고 죄짓는 심정은.... 작업 안 할 때이다” SNS에 올라온 이재삼의 말이다.



[적너머, 2008, 캔버스에 목탄, 277x728cm.](#)

이재삼은 목탄을 ‘나무를 태워서 숲을 영혼을 표현한 사리’라고 부른다. 목탄으로 숲과 달빛과 밤을 그리면서 이재삼에게 목탄은 단순한 기법상의 재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재삼에게도 목탄으로 빛과 어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회화 재료로 변신하기까지는 3년에 가까운 고민과 노력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고백했다.



이재삼 작가의 작업실 내부 전경

이 시기에 이재삼은 자화상이나 아내의 얼굴 등을 목탄으로 반복적으로 그렸다. 주재료를 목탄으로 삼아 똑같은 인물화를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앞으로 작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가적 사춘기’를 거쳤다.

이재삼은 회화의 소묘 재료로 사용되는 목탄을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작가로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만의

독창성을 획득했다. 달빛 아래에 서 있는 매화나무, 오동나무, 폭포와 바위들처럼 각기 다른 대상을 표현했지만 이재삼은 이 모든 작품에 ‘달빛’이란 제목을 붙였다.



달빛, 2015, 캔버스에 목탄, 150x400cm



이재삼의 '달빛' 6미터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갤러리 2층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재삼에게 어둠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았다. 폭포를 표현한 그의 작품을 보면 하얗게 빛나는

물줄기는 목탄 칠을 하지 않은 캔버스 그대로이다. 하지만 달빛이 비치지 않는 검은 공간은 수도 없이 칠해진 목탄으로 표현한 것이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그토록 열심히 목탄 칠을 했을까 하는 역설적인 의문이 들었다.

이재삼은 칠후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삼라만상이 있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있었다. 이재삼은 어둠 속의 삼라만상을 직접 세밀히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말한다.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그것을 보고 그린 그림과 직접 관찰하고 그린 그림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재삼은 자신의 그림이 풍경화 風景畫가 아니라 풍광화 風光畫라 했다. 그는 빛에서 어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이 탄생한다고 했다. 감정은 모든 색을 머금고 있는 색채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재삼의 그림에서 어둠은 너무나 짙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 반드시 있는 공간으로 느껴진다. “내 작업의 검은 화면은 여백이 아닌 삼라만상의 숲과 나무들을 품고 빛을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끝없는 무한대의 공간이다”라고 말하는 이재삼의 말을 어렵פות이 이해된다.

## 이재삼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저는 일반적으로 ‘목탄화가’라는 수식으로 불리지만,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냥 작가입니다.

저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우선, 재료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구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기준으로, 조형적 시각으로 판단을 하고 서구의 언어로 작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30대 중반에 저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화하면, 주로 유화, 아크릴컬러, 더 원초적인 재료로는 템페라 등등이 있고 이것들을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작품을 관리보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료들이기는 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면서 자연재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석탄, 갈탄 등 온갖 재료를 쓰다가 목탄, 한국어로는 숯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숯은 분진 가루이므로 회화작업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칩거하면서 목탄 기법을 인물화를 그리면서 연구했습니다. 목탄이라는 기초 재료를 회화재료로 승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작가라면 작품에 대한 주제와 철학이 다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구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서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피를 타고 흐르는 겁니다. 해외 미술관이나 전시를 가보면 그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서구의 시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의 것들, 한국사람이 한 한국회화를 가지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달'이라는 것, '만월'달의 주기에 의해 생명이 피고 지는 등 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최초의 미디어라고 생각해서 '달빛'에 주목하며 달빛을 통해 보여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한국인의 정서치를 드러내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해를 통해 비춰보이는 색색깔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저는 반대로 달을 통해 보이는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밤의 빛을 그리는 작가', 밤의 정서를 그리는 작가, 풍광 光 화를 그리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양평에 온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강원도 영월 태생인데 그곳과 양평이 계절이나 풍경, 토양 등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평이란 곳이 저에게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예전에는 과천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강원도 영월로 가려고 하다가 양평이 자리에 우연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양평의 다른 지역보다도 이곳은 개발에 대한 이슈가 없고, 고즈넉하고 조용해서 만족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작가들에게는 아스팔트에서 더 경험하고 부딪히고 오라고 합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오면 도를 닦게 됩니다. 자연은 자체가 예술품이기 때문에 빨리 동화되면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경우 아스팔트도 경험하고 사람도 실컷 경험한 후에 만난 이 양평이 제 등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서울과도 가깝고, 힐링을 할 수도 있고 이곳은 저에게 기댈 곳을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 3. 작업소개-목탄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색채라는 것은 결국 태양에 반사되어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우주 자체는 블랙홀이므로 실제로는 어둠입니다. 빛에서 어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색채

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시선이기 때문에 색채에 대해 인간이 민감하죠. 그래서 낮에는 이성적인 시선으로 물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은 태양이 들어갔을 때 달이 비춰보이는 것이 검정으로 보이는데 검정이 색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색채죠. 검정은 모든 색채를 품고 있는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탄은 나무를 태워서 숲의 영혼을 표현하는 살행위다”라는 것을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 4. 향후 활동 계획과 행보

미술계 안에서 스타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고, 다만 작업은 삶 자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업의 스케일이 작아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작가, 존경하는 작가가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해요.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자기 작업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70이 되기 전까지, 10년 안에 밀도나 스케일로 원한 작품의 양을 채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른 제 야심은 한국미술계에서 대단한 위치보다는 해외의 유명 뮤지엄 모마, 루브르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주어진다는 생각이예요. 그때 저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으로 가겠다고 생각입니다.

아시아권에서 한국이라는 땅에서 양평에 있는 작가가 해외를 가서 생소한 것으로 그들의 공감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제 야심입니다. 한국땅의 정서로 전세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 5.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양평문화재단은 차별화된 것으로 작가에게 다가가고, 물량투자가 아닌 작고 야무지게 진짜 작가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당도록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독보적인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작가, 원로작가 구분없이 작가는 그냥 작가입니다. 죽을 때까지 작가로 살다가 가는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rock spirit!



#### 정원철 1960~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을 졸업 후 독일 가셀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형예술을 수학하였다. 미술의 공공성, 예술가의 역할, 예술교육에 관심을 두고 판화,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업활동과 공동체 프로젝트, 예술교육 활동을 해 오고 있다. 1993년에 고향인 양평으로 귀향하였고 최근에 교수로 재직하던 추계예대에서 퇴직하면서 다시 지역에 집중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 정원철

“예술은 살다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행위라는 걸 실천하며 살다간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냐는 물음에 대한 정원철의 답변이다.

정원철 1960~은 미술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향이자 그가 태어난 생가터에서 지난 30년간 공간의 문제와 지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작품으로 표현해 왔다. 1999년부터 추계예술대 판화과 교수로 20여 년간 재직해 정원철은 최근 은퇴해 그동안 구상해왔던 ‘38선 프로젝트’ 준비와 작품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정원철은 추계예술대 교수로 있으면서 2009년 개교 35주년 기념사업으로 재개발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는 북아현동에서 ‘골목에서 주름잡기’와 2011년 통인시장에서 ‘꿈을 예술로, 오늘은 내가 쓴다’와 같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북아현동 프로젝트에서 정원철은 조선 시대 부동산 업자인 가궤 家궤: 집주름, 중계인이란 의미의 옛말 주름이 주름으로 변형 라는 개념을 도입해 골목이 많고 경사진 북아현동의 지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사라질 북아현동에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억을 기록과 공연, 미술로 남기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미술인 공동체미술을 주도했다.

2011년 통인시장 프로젝트는 시장 내의 여유 공간인 상인회 사무실을 ‘꿈보다 해몽 연구소 꿈해소’라고 이름 짓고는 1주 일에서 2주 간격으로 7명의 상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000 개인전’이란 타이틀을 걸어 상인의 삶을 전시형식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였다. 붓글씨를 쓰는 정육점 사장,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 공부 재미에 빠진 농산물 가게 여주인, 독서광 반찬 가게 주인 등이 주인공이 된 전시는 횡수를 거듭할수록 고정팬들이 늘어나고, 시장 주변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자신의 삶을 전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물건보다 사람 사는 재미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물건’ 뒤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시장에 존재하고 있던 ‘사람’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꿈해소프로젝트-부드러운 칼, 2011, 붓글씨, 도마, 영상, 가변 설치



꿈해소프로젝트-바닷빛 글씨, 2011, 나무계단, 책, 가변설치



거친 풍경, 2013, 리노컷, 150x210cm



붉은 풍경, 2017, 리노컷, 150x210cm  
4대강 개발로 파헤쳐진 강변, '감바천'으로 급하게 가려놓은 자연 파괴의 현장을  
작품으로 남겼다.

이처럼 정원철은 판화작가로서 작품활동을 하는 가운데 개인, 공동체, 공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면서 예술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일을 열심히 하였다.

정원철은 4대강 개발 폐해를 작가의 눈으로 살펴보고자 자전거를 타고 4대강 개발 현장을 답사했다. 그의 대작 ‘거친 풍경’과 ‘붉은 풍경’은 인간이 만든 자연의 상처를 표현했다.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온 자연을 인간들이 한순간에 망가뜨린 현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사회문제와 국토와 역사가 늘 작품의 주제가 되는 정원철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초상화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1997년 아우슈비츠 방문을 계기로 정원철은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이 주는 중요성을 깨닫고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원철은 스스로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찾아가 판화기부를 약속하고 역사관의 ‘증언의 벽’을 맡아 위안부 할머니 23명의 초상을 판화로 제작했다.

고향 양평과 양평 사람들에 관한 관심도 정원철의 중요한 작품 주제가 된다. 그의 출생지인 강하면 대석리의 사람들을 판화를 제작한 ‘대석리 사람들’ 연작은 93년부터 시작해 동네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만든 인물 판화 연작이다. 이 작품으로 그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판화전인 1995년 제21회 류블라나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 우

수상을 받기도 했다.



마주보기(face to face), 2005, PVC 위에 리노컷, 각 300x120cm\*15ea  
판화로 제작한 일부구 위안부 할머니의 초상



대석리사람들 05, 1955,  
리노컷, 170x130cm



정원철은 2021년 봄 추계예술대학을 명예퇴직하고 난 이후 고향 대석리의 사람들과 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향 집 근처 칼산 밑 개울가에 100여 평의 공간을 2022년에 완공해 작품활동과 지역 아동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원철이 ‘돈이 안 되는 작업’만 계속하는 이유를 묻자 정원철은 이렇게 답했다.

“미술시장이 활성화될수록 판화는 잘 안 팔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판화의 특성상 판화는 일반 회화보다는 값이 싼 작품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그림을 사는 게 수백만 원짜리 판화를 사는 것보다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예약판매가 되고, 작품이 나오는 즉시 컬렉터의 집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작품이 대중에게 공유될 틈도 없는 거지요. 이걸 아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 안 되는 작품을 하자는 결심 같은 것을 하게 되었지요. 더구나 저는 대학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 예술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돈 안 되는 작업만 하는’ 정원철의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와 역사에 관한 관심의 끝판왕은 아마도 ‘38선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 정원철의 작업실에 놓인 대형 화이트보드에는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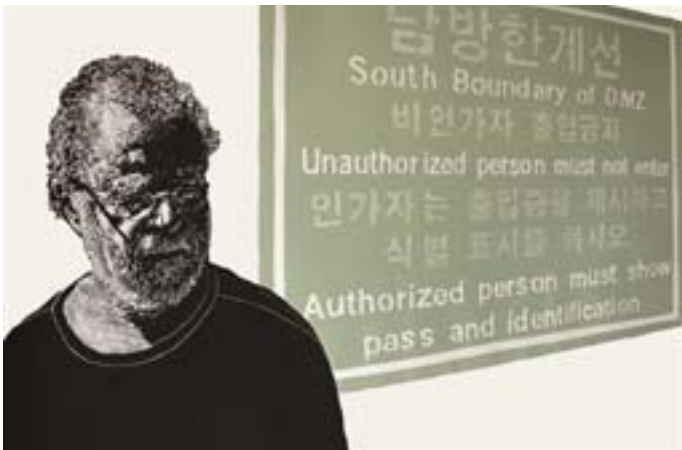
선 이름의 도시들이 잔뜩 적혀있었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북위 38도선이 지나는 도시라는 점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을 갈라놓았던 38선. 정원철은 세계 각국의 38선이 통과하는 도시에 있는 외국 작가들과 협업으로 “I am now crossing 38th parallel”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38선에 꽃말을 세우고 그 선을 넘는 모습을 사진 등 작품으로 남기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상상만 해도 멋진 이 프로젝트를 정원철이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강하면 대석리 작업실에 있는 정원철 작가  
뒤에 보이는 작품은 소설가 박경리의 초상 관화와 병환을 앓고 계신  
작가의 어머니 초상이다.



작업실에 걸린 세계지도에서 38선이 지나는 도시들을 짚으며 38선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는 작가



제리와 나는 같은 위도, 북위 38.5도에 산다

(Jerry and I live on the same latitude 38.5 north), 2014, 리노컷(리놀륨판화), 75x100cm  
정원철이 구상하는 38선 프로젝트의 예시 작품. 북위 38선이 지나는 도시의 작가들이 38선을 주제로 자기나라 언어로 38선을 넘는 모습 등을 묘사하는 공동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 정원철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저는 기본적으로 미술의 공공성,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이런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작품활동을 한 40년째 해오고 있는 작가입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양평은 제 고향이에요. 아버지와 형제의 생가터에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고향으로 이주해 온 지는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1993년에 왔으니 28년째 양평에 다시 살고 있습니다. 고향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좁은 범위의 지역,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 양평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 3. 양평과 작업활동

양평에 93년에 오자마자 제가 했던 작업이 ‘대석리 사람들’이라는 시리즈인데, 강상면 대석리에 살고 있는 노인들,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토박이분들, 보통사람들이 포착되어서 그

분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한 4-5년 동안 했어요.

2019년에는 양평군립미술관 전시 <피카소에서 김환기까지> 2019.3.1.-4.14 에 참여하면서 대형 풍경관화 <붉은 풍경>, <거친 풍경> 두 점을 출품했습니다. 그 작품은 4대강 개발에 관련한 것인데, 4대강 개발이 여러 가지 목적을 내세웠지만 급속하게 환경이 망가지고 근본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고, 완공이 되자마자 내 눈으로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자전거로 여행을 했어요. 자전거를 타야지만 포착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전거 여행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진 촬영, 현장답사가 목적이었던 여행이었는데, 제대로 공사가 안되어 비가 오면서 쓸려 내려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급급하게 덮고 복구하느라고 파란색 방수포, 그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덮어놓은 곳이 많았는데, 그 상황이 저에게는 인간이 가한 자연에 대한 상처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방수포를 표현했던 작업입니다.

#### 4. 작업소개

- 개인작업, 인물 : 위안부 할머니

제가 97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큰상을 받아서 기념 전시도 하고 시상식에도 참여할 겸 갔다가 아우슈비츠를 처음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봤던 감동, 그리고 예술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깨달음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이 예술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돌아와서 마침 나눔의 집과 3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 거기를 찾아가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교과서에 계속 왜곡되는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데를 한 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나눔의 집 옆에다 건립하려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었는데 제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 건립위원회에 저를 참가시켜 줬어요. 미술적인 부분을 맡으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본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도 관여를 했고, 할머니들 사진을 찍고 판화 작업도 하게 된거죠. 역사관 중 한 벽, ‘증언의 장’이라는 코너를 제가 맡았죠.

#### - 커뮤니티 프로젝트

제가 대학에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한 경우가 많았어요. 북아현동이 재개발되기 전에 예술적인 언어로 지역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로 ‘북아현동에서 잃어버린 마르티스 여아를 찾습니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한 개는 ‘골목에서 주름잡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골목에서 주름잡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 거의 일 년 동안 진행했어요. 저의 개인 프

로젝트는 아니지만 학생들을 계속 지도를 해가면서 나름 탄탄한 프로젝트 18개 정도를 다듬고 만들고 했어요. 그다음에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효자동 건너편 통인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을 되살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윤현옥 선생님이 총감독을 하고 저는 한 파트를 담당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많이 공부가 됐고, 변화의 계기가 됐던 프로젝트인데, 통인시장의 상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상담 내용을 개인전 형식으로 꾸미고 열어주는 시리즈 작업을 1년 동안 했어요. 처음에 윤현옥 선생님이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상인들 상담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술가한테 상담을 의뢰하는 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것도 상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를 하면 재미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왕진 의사처럼 ‘왕답사 왕진가는 상담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청한 사람들과 일대일로 이야기를 나눴죠. 진짜 상담 전문가처럼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상인들의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 안에 빈 점포를 작은 갤러리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로 개인전을 기획을 해서 한 명의 개인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숨 가쁘게 운영했죠. 점포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그분들은 어떤 가게의 사장일 뿐이지 그분들을 개인으로서 만날 일은 없잖아요. 아무리 친한 단골이라고 하더라도. 장사하시는 어떤 특정 개인의 고유한 요소를 드러내주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커뮤

니티에도 도움이 됐지만 그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다른 인  
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서사가 부여되니 재미있어 했죠. 재미있  
었어요.

##### 5. 향후 활동 계획과 행보

제가 2007년, 2008년 무렵부터 공동체 기반의 미술에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를 주로 해왔어요. 그 분야에서 한 10여  
년 활동하면서 판화와 조금 멀어졌고, 2016년, 2017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주력  
을 해왔죠. 지금도 저한테는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개인적인  
창작활동, 커뮤니티 기반의 아트 프로젝트, 문화예술 교육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건데, 세 가지가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은  
다 똑같아요. 미술의 공공성, 예술가의 사회적인 역할들을 대  
학 다닐 때부터 계속 염두해 두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걸 실현하는 다양한 방식이에요 저한테.

현재 저한테는 전시계획은 없고 제일 중요한 계획은, 주  
변에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그곳에 칼산 스페이스라는 곳을 커  
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작품 활동도 하고, 마을 문화활동도 하  
고 커뮤니티센터 점으로 이용될 곳을 내년쯤 설계가 돌입할 예  
정입니다. 그 공간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다 하게 되겠죠. 작업  
도 하면서 공동체 프로젝트도 하면서 지역 아동청소년 교육도



시키면서, 이게 제 계획입니다.

## 6.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양평이라는 지역이 어떤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서울과 가깝다는 점이에요. 제 기준으로 서울과 차로 최소한 두 시간은 떨어져야 그 지역 자체의 고유함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봐요. 서울에서 양평은 길어야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고 앞으로도 길이 계속 뚫릴텐데 그런 상태에서 양평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 생활이 유지가 될까. 오히려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는 잘 파악해야 할 거예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도 그렇고 전시가 됐든, 공연이 됐든 문화행사 관객이나, 여러 역할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굳이 그것들을 양평에서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서울과 차별성 있는 계획,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란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평의 예술가들이 전국의 군 단위에서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점일수도 있지만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술인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생활예술인 비율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지역 기반 내에서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해야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예술 활동이 가능하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30년 전에 양평에 다시 들어올 때만 해도 교통도 별로 좋지 않고, 예술인들도 별로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제 생활을 많이 걱정했어요. 저는 그나마 고향이라서 내려올 수 있었죠. 30대 초중반 나이에 와서 양평의 미술을 한 번 일으켜 보자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9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한 4-5년 동안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저 뿐만이 아니라 10여 명의 작가들이 활동을 같이 해왔는데, 저는 99년도에 추계예술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이후에 도로상황이 좋아지고 예술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여기에 적을 둔 예술가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많아졌고 그들끼리의 카르텔이 견고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룹들 간의 갈등도 생기더라구요. 그렇게 한 20여 년이 흘렀는데 제가 올 봄에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 양평에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 잡음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많이 안타깝죠.

양평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제가 보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그거라는 거죠. 하나는 서울과 너무 가까워서 여기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게

쉽지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숫자는 많은데 예술가들이 소수의 예술인들만이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재단을 운영 해야할 것 같아요.



#### 이영섭 1963~

강원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테라코타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한 발굴현장에서 영감을 받아 기존의 조각적 지식과 방법론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방식의 '발굴조각' 기법을 창안하였다. 용문산 풍경에 매료되어 용문산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가족, 특히 아버지의 삶의 궤적을 따라 이동하며 장소에서 발견되는 재료들로 작품을 제작해왔으며, 최근에는 평면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 이영섭



여우와 어린왕자, 2018, 혼합재료, 500x185x90cm

2019년 9월 양평 사나사에서 열린 이영섭의 야외 전시, 이영섭의 ‘어린 왕자’는 묘하게 절 풍경과 잘 어울린다.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 헤매는 어린 왕자라서 그런지 절에 와있는 그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촬영 장세원 기자)

양평에 살면서 한국의 조각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가진 조각가가 있다. 바로 이영섭 1963 이다. 아트페어마다 완판 기록을 세우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영섭은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왕자’를 세계 곳곳에 파묻고는 발굴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화강암과 같은 텍스처에 석영이나 자개 파편이 박혀있는 이영섭 작품들은 소박하지만 매우 현대적이다. 심하게 장식적이지도 않고, 어디에 두어도 어울리는,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조각이라는 것이 이영섭 조각의 매력이다.

고대의 유물처럼 보이지만 현대적 감각을 가진 이영섭의 조각 작품은 그가 창안한 ‘발굴 조각’이라는 독특한 기법에서 나왔다. 발굴 조각이란 이영섭이 고향이기도 한 여주의 고달사지 高達寺址 발굴 현장을 7년간 지켜보면서 스스로 창안한 것이다. 땅에 거꾸로 형태를 새겨 파고 그 속에 온갖 재료를 쏟아붓고 굳혀서 파내는 방식이다.

대학에서 서양 조각을 배운 이영섭은 우리에게 친근하고, 아름다운 게 있는데 한국의 조각에 관한 책조차 없는 현실이 늘 불만이었다고 한다. 졸업 후 어느 날 이영섭은 ‘아 속았다, 왜 서양 조각을 배웠지’하는 자각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부를 했다. 대학에서 배운 서양 조각의 개념을 버리고 서양식의 8등신이 아닌 2등신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바로 절터 등에서 발견되는 유물처럼, 인위적인 질감이 아닌 졸박하고 풍화된 느낌의 질감에 매료됐다. 그래서 고달사 근처에 집을 얻어 7년간이나 고달사의 발굴 작업을 지켜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탐구 끝에 ‘발굴 조각’이라는 이영섭만의 새로운 조각 기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오월, 테라코타, 1993, 가변설치

발굴 조각을 창안하기 전 이영섭은 테라코타, 목 조각 등 사실적인 묘사 작업을 병행했다.

고등학생 때 도서관 사서를 하며 파우스트를 두 번씩이나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던 이영섭은 독서를 통해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한국적 미학에 대한 그의 철학적 관점을 가다듬었다. 이영섭은 중국의 조각은 공예적 기능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경우는 강박적인 완벽주의가 있지만, 우리나라 조각들은 달항아리처럼 장식적이지 않고, 소박하면서 건강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정리했다.

우리 미학을 모르고 서양 미학을 쫓는 것은 “미술을 고생시키고, 일반인들에게는 알 수 없는 논리를 강요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과잉생산으로 넘쳐나는데 본인  
까지 동참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영섭의 지론이다. “자기 일을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하는 것. 그것이 예술이다”



점박이, 1998, 혼합재료, 100x40x5cm

발굴조각 초기작품

이영섭도 발굴 작업 초기에는 기법을 익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작업 특성상 좌우가 뒤바뀐 형태로 땅  
을 파야 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힘들었다.

어린 왕자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 이영섭은 이렇게 설명했  
다. “해외 아트페어에 나갈 때였어요. 서양사람들에게 한국의  
미의 은유와 해학은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들  
에게 익숙한 이미지인 어린 왕자를 가지고 나갔는데 의외로 따



뜻한 질감에 호평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라는 설명이다.

이영섭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왕자’는 통도사를 시작으로 양평의 고찰인 사나사에도 전시됐다. 절 마당에 이영섭의 불상 작품과 함께 전시된 어린 왕자는 전혀 이질감이 없이 묘하게 절의 풍경과 잘 어울린다.



어린왕자, 2018.  
혼합재료.  
 600x270x180cm



산나사에 전시된 어린왕자.

소중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의 모습을 한 어린 왕자는 현세의 암울함을 떠나  
 피안의 세계를 희망하는 불교의 교리와 닮아있다. 절의 풍경과 잘 어울린다.

이영섭은 지난 세월 작가로서 살아가는 동안 늘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부담감으로 늘 가슴에 남았다고 한다. 양봉업을 하던 이 작가의 아버지는 매년 제주에서 시작해 양평 석산리에서 끝나는 양봉 여정을 되풀이했다. 사업실패로 인한 아버지의 좌절, 아버지가 들려준 고달사의 이야기. 이영섭이 제주의 폐가를 작품으로 꾸며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도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

이영섭은 2021년에 들어서 비로소 고등학교 졸업 후 40년 만에 아버지에 대한 ‘숙제’를 마치고 ‘해방된’ 마음으로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이영섭에게 작가로서의

인정과 성공은 아버지에게 바치는 일종의 헌사였던 것 같다.



가족, 2012, 혼합재료, 83x44x24cm

이제 이영섭은 세계를 향해 훨훨 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유물 같은 거대한 조각을 세계 곳곳에 묻어놓고, 몇 년 후에 그것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프리카까지 자신의 작품을 묻어두고, 발굴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한다. 구글 지도에 발굴지점 좌표를 기록하고 그 좌표를 클릭하면 작품 제작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닷속에서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언젠가는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조개와 산호초가 붙어있는 이영섭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다.



## 이영섭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저는 사람들이 통칭 ‘발굴조각가’라고 합니다. 작업을 기존 방식이 아니라 발굴로 조각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발굴조각가’라고 하면될 것 같습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양평은 작가들에게 작업하기에 최고의 환경인 것 같아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특히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용문산이 멀리 보였거든요. 여기 이 집터도 제가 양평에 작업장을 구하다가 용문산이 정면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고 결정을 했어요. 여긴 처음이 나와 있는 땅이 아니었는데 지리적 조건이 너무 좋아서 직접 땅 주인을 찾아서 계약하고 들어오게 됐죠.

강상의 석산리의 경우는 아버지 때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그곳이 아버지의 양봉 여정의 한 장소였어요. 석산리에서 꿀을 따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석산리를 몇 년 간 혼자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곳

에 자리를 잡았죠.

### 3. 작업소개

#### 발굴조각

보통 조각에는 소조가 있고 조각이 있어요. 소조는 흙을 붙여서 만드는 기법이고 조각은 깎아 들어가는 방법인데 제 작업은 이 두 가지 방법에 속하지 않고, 땅에 그림을 그리고 형태를 상상해서 음각을 하고 거기에 몰타르 Mortar 를 부어 굳힌 다음 흙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예전에 고달사지에서 발굴하는 현장을 7년 동안 지켜보게 됐어요. 동네를 다 철거하고 땅을 2m정도 파 들어가니 기초석들이 나오더라고요. 현대문명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발굴현장을 보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테라코타’라고 흙으로 원형을 만들고, 캐스팅을 하고 속에 다시 흙을 넣어서 불에 굽는 작업을 했거든요. 발굴현장에서 나온 기와 파편들이 천 년이 넘은건데 한쪽에 다시 매립을 하더라고요. 그 파편 자체가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시대 찰나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의 찬란했던 순간을 잠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시간에 대한 사유가 조각에 흡수된다면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조각의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파편들을 조각품으로 발굴하고 그것들을 전시장으로 보내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조각들을 살려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는 기와로 작업을 했고 지금은 유리, 불 안에서 나온 도자 파편, 오닉스, 조개 같은 작업 현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오브제를 가지고 발굴 작업을 합니다.

### 돌조각과 어린왕자

어린왕자 작업은 통도사에서 전시제안이 들어오면서 시작된거예요. 그 전에는 불교조각으로 한 번 전시를 했었는데, 두 번째 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생각해보니 절 자체가 보물인데 그 영엄한 공간에서 현대미술작가가 작품을 갖다놓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차라리 현대적 의미의 작품을 가져다 놓는 것이 더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린왕자가 갖는 상징성이 불교철학과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 공간과 잘 어울렸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불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서관 사서를 했었어요. 그때 책에 빠져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죠. 그러다 보니 작업을 하면서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되죠. 작업주제도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아트페어를 나가보니 한

국적 미학을 알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보통의 화강암 작업은 대부분 해학적이고 은유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기 가능한 코드를 접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토속적 질감을 주는 재료를 이용해서 공통적 이해가 있는 코드를 접목한거죠.

#### 4. 향후 활동 계획과 행보

불상, 어린왕자 외에도 요즘은 아이 시리즈를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테라코타 작업을 할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대한, 제가 풀어야 하는 숙제로써 작업을 했었죠. 고달사지, 석산리, 그리고 지금 가있는 제주도도 아버지 때문에 간거거든요. 아버지의 행적을 쫓는건데 아버지가 예전에 제주도에서부터 양봉을 해서 석산리까지 오신거예요. 그 행적을 쫓아 제가 3년 전쯤에 제주도에 잠깐 가서 작업을 하고 지금도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아버지께 대한 숙제를 풀린 것 같고요. 이제부터 자유다. 이제부터 내 속에서 억눌리고 풀어야 하는 부분에서 해방된 새로운 작업이 발표될 것 같아요.

#### 5.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양평은 미술관도 군 단위에서 잘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에서 인정받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예술분야의 전문인력이 기획을 하지 않다 보니 밀도가 크지 않았죠.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생겨서 전문가들이 기획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을 독해하는 부분이 더 뛰어나겠죠. 많은 작가들이 양평에 살고 있으니 그 작가들이 양평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가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힘든 부분도 많고요. 사실은 엄청난 문화적 자원이거든요.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양평을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문화재단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 백



이재효 1965~

홍익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1996년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휴가차 우연히 들른 양평에 자리를 잡고 현재까지 거주, 작업을 하고 있다. 자신과 작품을 분리하여 작품에 유려한 서사나 메시지를 담는 것을 지양하며, 재료가 지니는 속성과 조형적 아름다움에 집중한다. 지평면에 개인 작업실과 갤러리를 조성하여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고 있다.

## 이재효

양평 미술가 중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로 이재효를 꼽는 사람들이 압도적이다.

이재효가 양평에 정착한 것은 1996년이다. 대부분 작가처럼 그를 양평으로 불러들인 것은 싼 땅값 때문이다. 조각가는 작업 특성상 상당한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양평에 주저앉았다”라고 말하는 이재효는 싼 땅값과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지평면에 정착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이재효는 “원래 시골 출신이라 양평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재효가 세계적인 작가로 떠오른 데는 W 호텔 현재의 위 커힐비스타 과 디자이너 토니 치 Tony Chi 와의 인연을 빼놓을 수는 없다. 토니는 대만 태생의 미국 호텔 디자이너다.

2004년 서울의 W 호텔이 개관 때 토니 치는 총괄 디자이너로 호텔의 로비를 꾸밀 작가를 찾고 있었다. 토니는 애초에는 외국의 작가를 염두에 두고 호텔을 꾸밀 계획이었지만, 한국 측 호텔 경영진은 한국 작가를 선택해 달라고 요구해 토니

는 원래의 자신이 염두에 두었던 외국 작가 대신에 새로 국내 작가를 섭외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그때 토니의 눈에 띈 것이 이재효의 작품 도록이었다.

이재효의 양평 작업실을 찾아온 토니는 이재효에게 호텔 로비를 꾸밀 작업을 의뢰했다. ‘미로의 느낌을 살려달라’는 게 토니의 요구 사항 전부였다. 나머지는 이재효에게 일임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몇 개의 작품을 설치하든 어떻게 꾸미든 모든 것을 작가에게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작품의 가격도 작가가 알아서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재효는 고민에 빠졌다. 이재효는 1억 2천만 원을 작품가로 제시했다. “이렇게 불러도 되나”라고 자신도 의문이었지만 그의 첫 작품판매는 그렇게 성사되었다. 지금은 그의 작품 하나의 금액이지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더구나 당시 39살 무명에 가까운 이재효에게 이 거래가 그에게는 생애 첫 번째 작품판매였다.

디자이너 토니와의 이런 인연으로 토니가 디자인을 맡은 전 세계 10여 개의 유명 호텔에 이재효의 작품이 로비를 장식하게 되었다.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에 있는 이재효 갤러리는 5개의 전

시실과 작업실 그리고 카페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실을 가득 메운 나무, 돌, 못, 나뭇잎 등으로 만든 이재효의 작품들은 관객의 경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한 전시실에서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는 발걸음이 기대감으로 빨라지는 경험을 하는 관객들이 많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재료가 가진 성질을 충실히 보여주려 한다”는 이재효의 작품은 ‘번역과 통역이 필요 없고, 미술 전문가든 아마추어든 누구나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작품을 주로 만든다. 자신의 작품을 ‘창작’이 아니라 ‘발견’, ‘보물찾기’, ‘위치 이동’이라고 부르는 이재효의 작품은 바닥에 있어야 할 낙엽을 천장에 매단 것만으로도 관객에게 새로운 감동과 경험을 선사한다.

이재효는 “어떤 유명작가처럼 못 하나를 박아 놓고는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다”라고 과감하게 말한다. 그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을 싫어한다.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던지기보다 남이 먼저 알아주기를 바란다. ‘내 이야기를 다 뺀 내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재료가 원하는 형태를 들어내 보여주는 이재효의 작품은 설명이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미술관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골치를 앓아 본

경험이 있는 관객이라면 ‘최대한 사기를 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이재효의 작품을 감상하노라면 왠지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감탄은 하지만 주눅 들게 하지 않는 것이 이재효 작품의 매력이다.



[0121-1110=1080815\\_Stone, 2008, 151×530×285cm](#)

1, 2, 3전시실에 전시된 대형 작품들에서 ‘와’하는 감탄을 자아낸다면 4전시실의 소품들과 5전시실의 드로잉들은 작가 이재효의 인간적 매력과 작품구상의 기원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4전시실의 소품들은 작가의 특권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이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작가만의 특권 말이다. 연필, 책, 부러진 우산대, 농기구, 작업용 연장, 심지어

는 낡은 팬티까지 소가 되고, 메뚜기가 되고, 물고기가 된다.



3전시실에 전시된 대형 작업들

이재효가 미국 버몬트의 레지던시에 두 달간 머물 때, 그의 룸메이트는 매일 하나씩 물건을 들고 와서는 ‘이것 가지고 작업할 수 있냐’고 그에게 화두를 던졌다. 그렇게 다양한 물체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4전시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5전시실은 이재효가 그동안 작업한 작품들의 드로잉 초안들이 전시되어있다. 이재효는 그가 평생 작업한 내용을 모두 담은 ‘두꺼운 책 한 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5전시실의 드로잉 및 스케치 작업들



팔려갔다가 되사 온 메뚜기 작품



작가에게도 자신의 작품 중에 그리운 작품이 있다고 한다. 4전시실에 있는 메뚜기는 누군가에게 팔았다가 다시 산 경우다. 200만 원에 팔았다가 3000만 원에 되산 것이다.

정부가 작가를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효는 ‘작가에게 스태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작가에게 스태프가 한 명 생기면 작업량이 3배로 늘어날 수 있어 창작하는 작가에게는 가장 유용한 지원책이라는 것이다.

스텝 *staff*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효는 이렇게 말한다. “제 작품 중에 못 작업이 여러 개 있어요, 혼자 작업할 때의 작품에는 못이 듬성듬성 박혀있지요, 또 같은 직업을 반복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스텝이 있다면 보다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지요”

이재효는 현재 거제시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거제시 지방정부가 폐조선소 공간과 목수, 용접공 등 30명의 작업을 도울 스텝의 인건비를 지원해 이재효가 똑같은 작품을 2개 만들어 하나는 작가가 가지고, 하나는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다. 아마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재효의 초대형 작품들이 다수 선보일 것이고 거제의 옛 조선소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효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조각작업을 하는 이재효입니다. 가끔 설치미술가라고 소개되기도 하는데 명확하게 제 작업은 ‘조각’입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양평에는 1996년에 왔습니다. 1996년에 예술의전당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우연히 그해 봄 양평에 놀러왔다가 이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조각가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마석에서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놀러 온 이 곳에 빈 땅과 집이 있었습니다. 내 땅에 작업장을 세우고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3. 양평과 작업활동

아마 도시에서 작업을 했으면, 재료 수급이라든지 작업 환경 자체가 이 정도로 마련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양평지역이라는 곳이 특별히 작업 자체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조용하고 번잡스럽지 않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평은 교직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들어와 조용히 작업하는 작가가 많고, 본인 작업장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자리, ‘이재효갤러리’에 작업실을 차린 지는 12년 정도,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양평 들어와서는 근거리 에 위치한, 지금은 다른 작가가 넘겨받아 쓰고 있는 자리에 작업실을 조성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곳을 갤러리로 운영을 하며 대중들에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개인전을 50회 정도 넘게 개최를 했었는데, 이제 외부에서의 전시 활동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작품을 보여주고 직접 작품 판매도 할 예정입니다.

#### 4. 작업소개

저는 돌을 매다는 작업으로 졸업전시회를 했었고, 그 다음해에 나무 공을 만들었습니다. 나무작업 스케치는 대학 재학 당시 판화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보통 작가들은 3, 40대에 작업이 크게 바뀌는 시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재료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 5. 향후 활동 계획과 행보

현재 이 공간에서만 전시를 선보이기로 하여 외부 활동은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갤러리 전시를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지자체와 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담아 거제시와는 철제 작업을, 합천에서는 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6.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인 작업장이기는 하지만 이 공간 역시도 양평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 백



김용철 1966~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연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1996년에 양평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머물며 작업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며 인간 욕망의 상징물로서의 장난감을 활용하여 사회적 발언을 하는 작가이다.

## 김용철

김용철 1966~ 은 주로 장난감 설치작업과 선이란 테마로 선 작업을 하는 작가로 자신을 소개했다.

서울 안암동에서 태어난 김용철의 어릴 때 꿈은 ‘장난감 과학자’였다. 누구나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제한적인 동작에 실망하면서, 만화영화에 나오는 로봇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드는 그런 과학자를 꿈꾼듯하다.

어릴 적 꿈과는 달리 김용철은 장난감 로봇 머리가 분리된 채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보며 한때는 ‘누군가의 꿈이었던 장난감이 버려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장난감을 매개로 욕망, 문명, 경쟁, 전쟁, 성적 욕구 등의 단어들이 연이어 연상되면서 ‘사용된 꿈’ 시리즈가 시작됐다. 이처럼 ‘연상작용에 의한 개념 확대’는 김용철의 작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인다.

버려진 장난감을 주제로 시작한 ‘사용된 꿈’은 한 때는 꿈이었지만, 지금은 복합 쓰레기로 매립되는 환경문제가 된 장난감에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을 보았다. 소유에 대한 욕망과

경쟁, 전쟁의 폭력성과 성적인 욕구 등과 같은 어른들의 다양한 욕망이 귀엽고도 화려한 색깔의 장난감 속에 투사된 것을 보았다.



사용된 꿈-모현, 2019, 사용된 장난감, 400x1500cm



사용된 꿈-꽃, 2008, 사용된 장난감, 107x104cm



장난감으로 탑을 만들고, 꽃을 만드는 ‘사용된 꿈’ 연작은 어두운 분위기의 문명과 사회 비판을 담은 작품이지만 ‘예기치 못한 효과’도 낳았다. 화려한 장난감의 다양한 변신이 어린이 팬을 만든 것이다. 김용철의 장난감 설치작업은 어린이날 인기 있는 초청작이 된 것이다.

대학 시절 김용철을 통학길에 청계천을 지나가면서 고가도로와 사람들의 엉킴, 매연 등을 보면서 ‘아수라’ 같은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환경에 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초기작인 더 뮤지엄 *The Museum 1995* 은 종이상자를 오려서 천을 붙여 수백 개의 물고기를 만든 다음 이것들을 하나의 거대한 불고기로 형태로 만든 작품이다. 김용철은 어둡고 좁은 지하 작업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비좁은 공간을 자유롭게 유평하는 물고기를 상상했고 한 마리 한 마리가 존재감을 만끽하는 물고기들이 모여 다시 거대한 물고기가 되는 상상을 했다. 물고기를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비극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의 제목을 ‘더 뮤지엄’으로 지은 것이다.

더 나은 작업실 환경을 위해 양평으로 이사를 오면서 지평의 자연은 김용철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30년간 서울 생활을 한 김용철이 양평에서 사슴벌레를 발견하곤 너무 신기해 한 달 동안 지켜보며 파란색 사슴벌레 설치작업을 했다. 물론

작업이 끝난 후 사슴벌레는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김용철은 늘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다닌다. 휴대폰을 스케치 대용으로 사용할 만도 하지만 종이에 연필로 하는 스케치를 고집한다. 김용철의 아내 서양화가 이훈은 가족 나들이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스케치를 하는 김용철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하릴없이 10~20분씩 길가에 기다리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한다.

북한강을 바라보다 물에 비친 산을 보며 모든 존재와 존재 사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용철의 다른 표현으로는 ‘모든 선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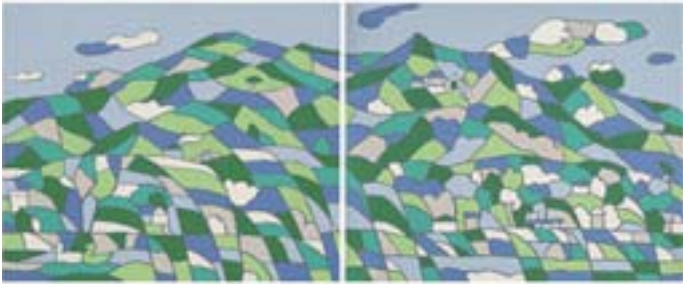
2013년 혈액암에 걸렸을 때 ‘내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게 다가오는 순간’에도 혈관을 선으로 보는 작가적 의식을 놓치지 않았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혈관처럼 모든 관계가 막힘없이 순환하기를 바란다. 나의 지난 시간, 나의 존재, 그간의 경험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김용철은 “눈은 멀쩡히 뜨고 있으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죽음이었고,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순간이 살

아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병마와 싸우던 시간을 회상했다.



병상에 누워 스케치한 윤길산



채집풍경-서로 이어져 비추다, 북한강 윤길산, 2014, 캔버스에 아크릴, 61x146cm  
병상의 스케치를 채색화로 완성한 작품

병상에 누운 그는 그동안 봐왔던 북한강 변의 풍경들을 스케치했다. 손에 힘이 없어 스케치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선’에 대한 생각을 개념을 확대하고 정리해 나갔다. 김용철의 ‘채집풍경-서로 이어져 비추다’는 병상에서 그린 스케치를 퇴원 후 채색한 작품이다.

그의 아내 이 흠 작가는 이렇게 회상했다. “퇴원 후 일 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그는 얼굴로 가득 채운 작업을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 친구, 무수한 인연으로 만나 온 사람들, 그가 삶에서 만났던 이들의 얼굴이다. 아픔의 시간을 지나온 그는 한순간도, 하나의 만남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오는 말이다”



채집풍경-빛나는 순간들, 2014, 캔버스에 아크릴릭, 232x182cm

그의 아내 서양화가 이흠은 대학 9년 후배다. 30살에 서종으로 이사를 온 김용철이 독일 유학을 준비하다 IMF로 유학을 포기할 즈음에 이흠도 독일 유학을 준비 중이었다. 먼저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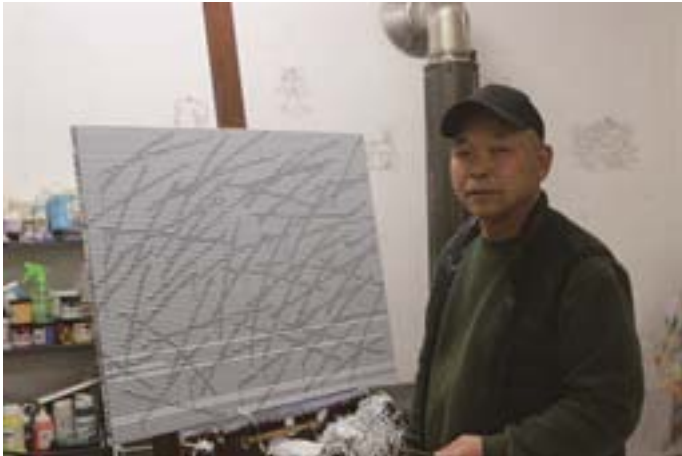
일 유학을 준비했던 선배에게 유학에 대한 조언을 받으러 온 이흠에게 김용철은 그가 사둔 독일어 사전을 주고는, 이흠을 양평에 주저앉혔다. 시골 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흠이지만 이름에 ‘흠’자가 들어가니 시골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 2021년 6월에는 아내 이흠과 함께 <구름과 바람>이란 제목으로 김용철·이흠 2인전을 열기도 했다.



선을 잇다-바람,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테이핑, 컷팅 등, 130x193cm

김용철은 최근 선을 주제로 한 테이핑 그림에 몰두하고 있다. 캔버스 위에 테이핑하고 색칠을 해 칼로 정교하게 오려내는 작업이다. 양평에서 채집한 풍경과 같은 이미지와 존재들이 모두 이어져 서로 비추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그 존재들은 사람과 자연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표현하는 것 같다.



작업실에서 작품 설명을 하고있는 김용철

## 김용철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1966년생, 서울 출신입니다. 작가 김용철입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대학 졸업 후 팔당, 덕소 작업실 생활을 거쳐 1996년, 30살 되던 해 독립된 공간을 소개받아 문호리 작업실로 옮겼습니다. 당시에는 독일로 가야겠다 생각했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IMF로 좌절된 후 대학원 입학과 결혼을 하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 3. 양평과 작업활동

연고가 없던 양평에 오던 당시, 양수리에서 문호리까지는 비포장도로라서 먼지가 풀풀나던 시골이었습니다. 서울의 온갖 매연과 배기가스, 복잡하고 무질서한 환경, 공간확보의 어려움과 대비되는 양평 환경에 매료되었습니다.

작가로서 도시와 대비된 양평,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의

대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좀 더 도시의 삶을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점과 자연이 주는 환경의 대비가 다양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 4. 작업소개

주로 설치, 회화작업을 하고 있고, 설치 작업 중에서는 '사용된 꿈' 시리즈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인간의 멈출 수 없는 욕망에 대한 지각을 제시하며, 회화는 설치 작업의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적 제시라고 생각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작업의 주재료인 장난감은 현실의 축소된 욕망을 상징합니다. 바비인형, 롤스로이스, 탱크, 권총 등 플라스틱으로 손쉽게 만들며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어른들의 욕망을 학습시키는 도구로 장난감을 또 다른 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도 익숙해 저서 놓치고 있는 점들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소비된 욕망들, 망가져 쓰레기통에 처박힌 장난감들은 쓰레기가 되어 대지에 매립되며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과욕망의 결과일 것입니다.

평면작업의 경우는 '선을 잇다' 시리즈로 환경, 관계에 대



해 생각해보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불어오고 감지되는 관계와 바람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입니다.

### 5. 향후 활동 계획과 행보

장난감 사용된 꿈 작업은 설명한 것과 같이 공공적 의지의 설치 작업입니다.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평면작업 '선'을 잇다'도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두 시리즈를 작업,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 6.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정착하여 작업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강점이 있으나, 소개, 발표한다는 점에 서는 참 부족한 환경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작업 발표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좋은 기획들과 많은 예술인들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나리 1967~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예를 공부하였다. 큰 가마터를 마련하기 위해 2002년에 양평에 작업장을 꾸리고 정착하였으며, 양평에서 마주하는 감정과 정서를 인간의 얼굴 형상과 표정을 통해 표현한다. 얼굴 옆에 함께 병치 된 동식물은 인간에게 상처받은 존재들에 대한 애도와 경외를 드러내며 인간과 자연물의 구분되지 않는 상생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다.

## 김나리

“저는 사람 몸 중에서 얼굴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표정, 얼굴의 내용이 제 작품의 주 테마예요”

김나리는 흉상과 두상을 주로 작업하는 조각가다. 김나리의 두상은 대부분 무표정하거나 울고 있는 모습이다. 울고 있는 모습도 대성통곡을 하는 격한 모습이 아니라,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울음을 표현한다.



[눈물X TearsX 2019, Hand-built, Earthenware, 69×46×35cm](#)



[눈물II TearsII 2018, Hand-built, Earthenware, 64×30×32cm](#)

“어떤 사람들은 제 작품을 보고, 사는 게 힘든데 왜 꼭 고통스러운걸 표현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밝은 것 표현하는 건 제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모습, 깊이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에 끌려서요”

김나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태도와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또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내면화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의문을 푸는 열쇠처럼’ 작품을 하고 있다.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도 김나리가 표현하는 중요한 주제다. <불의 공화국> 연작과 <그날들>, <70번 국도의 고라니> 등이 그것이다.

*‘지난 5월은 견디기 힘들었다. 푸르고 푸른 오월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다. 매일 매일이 길었다. 매일 매일이 짧았다. 핏빛 오월.’ 작가 노트 중에서*

김나리는 때로는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다. <나는 너를 찌르고 싶다>에서는 분노의 눈빛을 한 여인이 어떤 불의의 존재를 향해 가슴에 칼을 움켜잡고 있다. 작품에 칼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한 손으로 칼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움켜진 손을 받쳐 든 자세로 거대

한 힘에 결연히 맞서는 모습을 표현했다.

김나리는 뉴스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죽음에 대해서도 작가로서 온 힘을 기울인 위로와 애도를 표했다. <우즈베키스탄행 비행-날다>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여성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다.

*‘때는 2007년 5월이었다/ 아파트 옥상에서 한 여인이 뛰어내렸다./ 우즈베키스탄 태생인 그녀는/ 돈과 희망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으나/ 만사가 여의치 않았고/ 시간이 흐른 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200만 원 비행기 샅이 없는 것을 평소 비관해 왔다고 한다./ 즉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몰라도 되었다/ 눈물은 만들지 않았다/ 날개는 유치했을까?/*

*아무도 그녀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 왜 그녀의 형상은 이러하며/ 달리 다른 방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녀가 내게 끊임없이 묻고 있다’* 작가 노트 중에서

<70번 국도의 고라니>를 비롯한 <사슴> 등의 작품은 작가의 작업실 주변 국도에서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다. 인간에 의해 유해조수로 지정돼 사냥당한 고라

니와 고라니를 사냥하는 총성을 들을 경험에서 오는 공포와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면 곳으로II Into the blueII 2018, Hand-built, Earthenware, 110×48×40cm.](#)

김나리는 자연계와 인간계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해로운 존재로 판단되고, 죽임을 당하는 동물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작가의 방식이다.

김나리의 불두 연작과 도깨비 연작에는 사연이 있다. 현재 작업실로 이사 온 이후에 악몽을 되풀이해서 꾸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지인이 부처를 한번 만들어보라는 권유를 듣고 망설이다 만들어보니 꽤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도깨비 꿈 I, 2019, Hand-built, Earthenware, 75×34×45cm](#)

*‘누군가 내게 부처를 만들라고 한다. 복을 짓는  
것이라 한다. 나는 무서운 꿈을 꾸지 않기 위하여 무서*

은 꿈을 이겨낼 더 무서운 부처를 만든다... 누군가 내  
게 도깨비를 만들라고 한다. 그 도깨비는 나를 지켜주고  
'금 나와라. 똑딱'한다고 한다. 작가 노트 중에서



불두1, ceramics, 2017,  
34x38x52cm



불두2, ceramics, 2017,  
34x38x52cm



불두3, ceramics, 2017,  
34x38x52cm



양동면에 위치한 김나리 작업실 풍경



김나리의 작업실에 들어서면, 작업실 벽면을 따라 놓인 제단 같은 진열대 위에 흉상과 두상들이 겹겹이 진열되어있다. 작품마다 풍기는 이미지들이 워낙 강렬해서 뭔가 주술적 기운이 느껴지기도 한다. 김나리의 작업실을 찾은 조각가 이재효는 ‘무당집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작가가 전했다.



“제가 봐도 작품들이 워낙 센 이미지를 담가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센 작품을 누가 사느냐 싶었지요. 최근에 오면서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의 작품을 만들었더니 작품을 사려는 사람도 늘어나더군요”

김나리는 자신의 작업을 이렇게 설명했다.

흙을 뭉쳐서 다지고 그 속을 비우고, 오랜 시간을 말려 불에 굽고 또 굽는 것. 어떤 형상을 수없이 허물고 쌓았다가 불과 바람의 우연에 맡기는 것. 내 작업은 모래를 눈물로 짓이겨

쌓아 올린 불과 같다.

작업을 대하는 김나리의 자세는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흠을 말린 뒤 불에 구워야 하는 작업 특성상 작가가 원하는 색깔을 구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한 작업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번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긴다고 한다. 한 작품을 위해 8번까지 다시 구운 때도 있었다고 한다.

경남 밀양이 고향인 김나리가 아무 연고도 없는 양평에 과감하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적 밀양에서 본 플라타너스와 숲, 시골 생활에 대한 동경이 늘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 왔을 때 양평은 많이 삭막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의 양평은 산책길과 자연들이 잘 가꾸어진 모습이어서 ‘세상에 이런 곳이 없다’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에 대해 바라고 싶은 게 있냐고 묻자, 김나리는 가로등 얘기를 했다. 전국에서 작가가 가장 많이 사는 양평군의 가로등이 너무 보기가 싫다고 했다. 가로등 하나만 바뀌도 도시의 풍경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작가들의 역량을 활용해 좀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 김나리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1967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 살다가 대학에서 미술교육, 회화를 전공하였는데요. 회화작업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개인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에 이끌려 시각예술 활동을 접고 공연과 문화예술운동 쪽에서 6-7년을 활동했어요. 이후 대학원을 진학하고 도예를 전공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입체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 작업실을 마련하였는데 좁은 공간에 작은 전기 가마를 놓고 쓰다 보니 작업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가스 가마라든가 여러 작업시설과 넓은 장소가 필요한데, 서울에서는 작업 여건을 마련하기가 마땅치 않아 2002년 양평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체 작업에서 특히 가스 가마 같은 경우, 민원 때문에 서울에서는 설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당시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아무 연구도 없이 발길이 양평으로 향했고, 자리를 잡고 이후 줄곧 양평에서 살

게 되었습니다.

### 3. 양평과 작업활동

저의 본격적인 작업은 양평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삶보다 잘 보존 관리되어온 양평의 산수가 제 삶과 가치관,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양평으로 처음 이주해 왔을 때 해가 지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밤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도시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그 어두움이 생경하게 공포감으로 느껴진 것이지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날씨에, 사계절의 변화에도 더욱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동네에 나무 한 그루가 잘려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에서 자연과 밀접한 삶이란 저 자신의 개인, 개체만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의 나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며 사고와 시각을 보다 넓게 가지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평은 인근의 서울 외곽의 여주나 구리, 이천 등에 비하여 공장이나 물류시설이 없고 농업에 기반한 주거공간입니다. 산세가 평온하고 일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 개발 외에는

크게 훼손된 자연이 없이 잘 보존되어있다고 봅니다. 제가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낸 서울과는 환경이 매우 다르고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받으며 감응할 수 밖에 없으며 동물들, 고라니와 부엉이. 멧돼지 등이 주택 가까이 상존하고 있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더 고민하고 성찰하게 합니다. 이런 양평에서의 생활은 20여 년을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며 느끼던 서울이라는 도시와 양평에서의 삶으로 극적인 대비와 대조가 더욱 심하게 비교되며 깨닫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물리적으로 변화한 도시에서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다고 느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와 존재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제 작업 속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담아내고 풀어내려고 애써 왔습니다.

#### 4. 작업소개

##### - 작품 속 얼굴들

사람 몸 중에서 얼굴의 비율은 크지 않지만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또 그렇고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제 작업의 주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다루는 주제는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살면서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내면화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푸는 열쇠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있다가 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갈 것인가, 인거죠.

### 삶이 고통의 바다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는 게 힘든데 왜 꼭 고통스러운 걸 표현해야 돼? 하지만 웃고 행복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제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 받고 있거나 삶의 어떤 지점에서 깊이 생각에 빠져있거나, 자신이 서있는 지점에서 그것을 관조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에 제가 끌리고 더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무표정을 하고 있거나 울고 있거나, 그런데 그 울고 있는 모습이 대성통곡을 하거나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 울고 있는 모습을 한 발짝 등 뒤에서 보고 있는 듯한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눈을 감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정신적인 부분을 표현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명상적이고 관조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 다루듯이 만들어요. 진짜 사람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인격체를 다루는 거죠. 사실 모델이 대부분 없어

요. 제가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힘들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저보고 무당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제 작품들이 혼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나면 네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자기를 만들게 한 거라고. 근데 자기보다 더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줘서 고마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전시하면 이런 이야기가 사방에서 들려와요. 그런데 저는 충격 받아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다음 작업을 생각해야 하는데, 제가 내린 답은 이 작품들이 좋은 기운을 가진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작품을 가져가는 그 사람에게 좋은 기운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는 물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작품을 만드는데 책임감이 더 커졌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기운이 안 좋은 곳에 제 작품을 가져다 놓고 힘이 됐다는 말을 들어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눈의 경우는 10년 전만 해도 분노에 차서 사회에 대한 증오, 불만을 여과 없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때는 그 작업이 저한테서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고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입술은 굉장히 에로틱하게 묘사되죠. 제 작품에 굉장히 탐미적인 요소들도 나타나요. 한 얼굴에 두 가지 이상의 느낌을 풍기고 있기도 해요.

### 얼굴과 함께 등장하는 피사체들(사슴, 개, 꽃 등)

양평에서 작업을 하면서 받는 영향과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경상남도 밀양에서 왔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선뜻 아무 연구도 없이 양평으로 겁 없이 올 수 있게 된 것도 어릴 적 밀양에서 살던 기억 때문이거든요. 그때 자연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올 수 있었거든요. 어떤 동경처럼 어릴 적 풍경을 머릿속에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인간의 두상, 흉상을 만들지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개개인이 있지만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저는 다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드라망 因陀羅網<sup>1)</sup>'처럼 하나로 다 얽혀있어서, 분리된 개체 하나가 아니라 커다란 덩어리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그물코를 꿰고 있는 사람인거죠. 레이스가 있다면 그 레이스에 구멍이 났거나 헐었거나 떨어진 구멍이 있으면 종일 앉아서 그

1) 산스크리트로 인드라알라(indrjala)라 하며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뜻이다. 고대 인도신화에 따르면 인드라 신이 사는 선견성(善見城) 위의 하늘을 덮고 있다. 일종의 무기로 그물코마다 보배 구슬이 박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들이 무수히 겹치며 신비한 세계를 만들어 낸다.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온 세상으로 퍼지는 법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화엄철학에서는 '인다라망경계문(因陀羅網境界門)'이라고 하여 부처가 온 세상 구석구석에 머물고 있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인다라망 [因陀羅網] (두산백과), 검색: 2021.11.16



걸 꿰매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안에 개도 있고 고라니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부엉이도 나오고, 선인장 같은 식물도 나오는데 그것들이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그런 내용을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죠.

### 작품에서 드러나는 불교적 요소

이 집에 이사 와서 악몽에 많이 시달렸어요. 집의 기운이 매우 거칠고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 이사 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삿짐을 풀지도 않았는데 십자인대가 나갔어요. 그게 이 집에 이사 오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 오자마자 꿈을 꾸는데 밤마다 악몽을 꿴어요. 귀신들이 문이란 문은 다 열고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본래 본인들의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남의 집에 얹혀사는 기분이 들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교통사고도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났어요. 저희 삼촌이 송광사의 큰 스님이세요. 저한테 계속 사고가 발생하니 저희집도 왔다 가시고 했어요. 집안의 영향도 있죠. 그치만 꼭 종교적인 의미라고 할 순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생각을 바꾸자고 마음먹었죠. 이곳은 잠깐 머물다 갈 뿐이다. 차원을 달리해서 이 세상은 11차원으로 되어있다는데 그냥 여러 차원이 공존하는 것 뿐이다. 여러 시간과 공간이 겹쳐져 있는 것인데 내가 보는 건 3차원의 세계지만 실상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꿈을 안 꾀요. 저한테 영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삶의 비밀이라든가, 삶의 영원성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 5. 향후 활동 계획과 행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작업을 하는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6.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양평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으며 그들이 큰 자산입니다. 도시계획과 발전방향에 영향을 끼치고 방향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시각적으로 기획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교각의 디자인이라든가, 가로등의 디자인 등 말이지요. 보다 품격 있는 과하지 않는 모델 제시가 필요합니다. 보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의 격상을 위하여 양평문화재단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여 년을 양평에서 살며 변모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만 최근 거대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며 천편일률적인 도시개발 쪽으로 기우는 점이 우려됩니다. 또 고라니들과 멧돼지 등이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끼치는 피해와 그 대처법을 보면서 인

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가치관의 변화와 상생의 문제를 더 고민하게 합니다. 너무 자주 일어나는 고라니의 로드킬을 보면서 더욱 그러하고요. 우리 사회에 커다란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하고 양평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성찰과 대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이 그 점 기여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술이란 한 사회의 지향하는 바를 이끌고 선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갈라파고스를 여행하며 느낀 점 중의 가장 중요한 것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지는 결코 동물의 복지는 넘을 수 없습니다. 동물들이 행복할 때 인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그 둘은 결코 극복과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긴밀함으로 하나로 엮여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양평은 타지역과 차별되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 더 이런 면을 고민하는 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 1969~**

경원대학에서 환경조각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늦은 나이에 작가의 길을 택하였다. 작업실이 있던 용인 수지에서 재개발을 이유로 고향인 양평으로 옮겨왔다. 조각과 설치 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화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하는 등 장르, 매체적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개인 작업 뿐 아니라 소집단 '바깥미술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 김창환

‘라일락 꽃향기 사라지고/있을 어금니로 짝 깨문 일  
 상들/ 25밀리 철근이 허리만큼 휘어지며 뿜어내는 쇠 맛  
 매마른 땅 어딘가에 검은 콧바람/그 바람 나비 되  
 어, 광풍 되어/타워 끝 아슬하게 매달린 로프/요란하게 흔  
 들리며 생기는 공간/생성, 소멸, 허상, 희망  
 사막을 바라보던 눈이 순간 반짝이듯/무거운 등을  
 반듯하게 피고 그 속으로 탈출한다.’ 작가 노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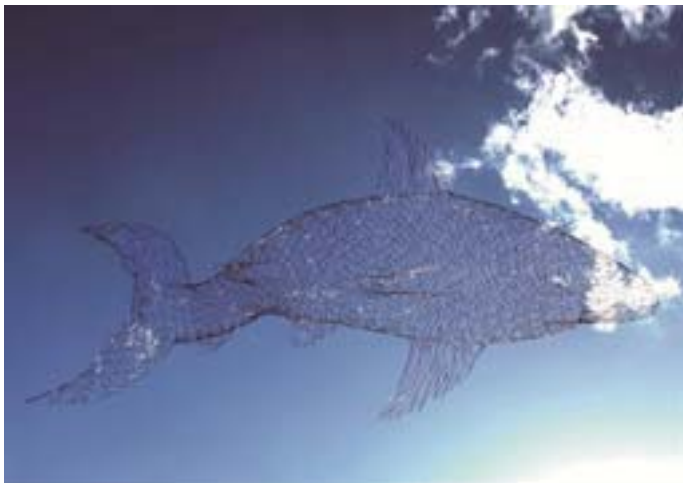
상어, 2013, 스테인리스 스틸, 설치전경

창공을 유영하는 상어로 잘 알려진 조각가 김창환 1969~

은 30대에 작가로 입문했다. 양평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이후에는 외지에서 신문 배달, 술집 웨이터, 전자부품 공장 등 많은 직업을 거쳐 철근 도매상을 하는 대형 밑에서 10년간 철근 일을 배웠다. 이 때문에 그를 ‘철근공 출신 조각가’로 부르기도 한다.

김창환이 미술계에 이름을 알린 계기는 200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2013년 서울 명동의 하늘에 해엄치는 상어 떼를 선보인 때부터다. 같은 해 대만의 푸봉 예술재단 *fibon art foundation* 초대를 받은 대만 전시에서 그가 출품한 세 마리의 철근 고래가 대만의 빌딩의 전시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만에서의 전시는 김창환의 작품이 세계적인 조각가인 알렉산더 칼더 *Alexander Calder* 작품과 함께 대만 교과서에 실리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상어는 김창환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김창환은 상어에서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란 이미지를 찾았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인간사회의 권력과 욕망을 상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욕망이란 인간사회에서 권력의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욕망인 동시에 작가 자신도 권력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shark\(식자가 패턴\), 2009, 스테인리스 스틸, 350x140x130cm](#)



[shark\(만자패턴\), 2009, 스테인리스 스틸, 360x140x130\(cm\)](#)

김창환은 스테인리스 철사로 상어를 만들면서 두 가지의 상징적 장치를 만들었다. 우선 상어는 속이 텅 비어있고 매우 가볍다. 이런 상어가 아무리 게걸스럽게 먹이를 약탈해도 그 먹이는 소화되지 못하고 몸체를 통과해 빠져나갈 뿐이다. 또 하나의 장치는 제작방식에 있다. 김창환의 상어는 한 가닥으로 되어있다. 김창환은 단 한 가닥의 철사로 상어의 입에서 시작해 머리와 몸통을 만들고 꼬리를 거쳐 다시 입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상어를 만든다. 항상 입에서 시작해서 다시 입으로 돌아오는 철사는 신체 부위 중에서 입이 욕망을 상징하는 부위이기 때문이라는 게 김창환의 설명이다. 김창환이 철사를 엮어서 만드는 상어의 피부 조직 패턴도 상징적이다. 욕망을 대변하는 상어의 피부 조직 패턴은 불교의 만공자나 십자가 패턴을 사용한다. 욕망을 대변하는 상어의 피부 모양이 박애와 구원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되어있는 아이러니를 숨겨 두었다.

“제 작품처럼 제 삶도 굴곡이 많아 철근으로 만든 상어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제 삶을 보는 것 같아요”

김창환의 상어 떼는 도심의 하늘에 전시되면 반전 매력이 있다.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거나, 도시의 조명을 받아 밤하늘에 빛나는 상어 떼는 세련된 도회적인 이미지이면서 동화적인 매력을 풍기기도 한다. 2013년 명동 하늘의 상어 떼와 2015년 세종문화회관 하늘을 수놓은 하늘을 나는 낙타 무리



는 도시에 기분 좋은 동화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유쾌함도 있다.



fly to the sky, 2013, 스테인리스 스틸, 설치전경



낙타, 스테인리스 스틸, 2015, 설치전경

하지만 철사가 아닌 철근으로 상어를 만들면 얘기는 달라진다. 재료가 가지는 강인함은 상어의 욕망을 증폭시키고 미술관의 바닥과 벽면을 헤엄치는 상어는 동화적인 이미지는 온데간데없고 무시무시한 난폭함을 풍긴다.



[swimming, 철근, 2013, 설치 전경](#)

김창환의 초기작인 철근으로 만든 여체 조각은 여체를 표현하기에는 다소 거칠어 보이는 철근이 묘한 대비를 일으키며 오히려 섹시함을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 김창환은 이런 재료가 주는 반전미는 산업현장에서의 재료를 다룬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했다고 한다.

문득 김창환처럼 설치를 위주로 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먹고살까가 궁금해져 대놓고 물었다. 김창환은 전시에 초청을 받으면 2천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편차가 크다고 답변했다. 전시가 좋고 기획이 좋으면 돈을 따지지 않고 참가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창환은 그의 대표작인 상어와 고래를 크기를 대폭 줄인 미니어처 작업도 하고 있다고 했다.



[sneking, 2014, 철근, 분체도장](#)

김창환은 최근 2차례에 걸쳐 회화 개인전을 가졌다. 그로서는 첫 평면 도전이다. 작년에 유화를 처음 접해본다는 김창환은 생소한 재료를 자기화시키는 과정이 흥분된다고 말한다. 정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과보다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30년 만에 고향 양평으로 돌아온 김창환은 ‘문화 볼모 지역’이던 양평에 풍성한 예술적 기반이 성장하기를 꿈꾼다. 그가 수년 전부터 양평에서 열리는 ‘바깥 미술전’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며 2021년부터는 정식 회원이 된 것도 고향 양평에 예술적인 자산을 보태려는 이유에서다.



행복한 시절, 2021, 차광막, 철, 반죽, 600x1000cm  
바깥미술회 창립 4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생태문명으로 전환-대지를 상상하다>  
(2021.10.9-10.18,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양강선 일대) 출품작품

김창환은 양평의 자연환경이 자신에게 늘 따뜻한 감성을 간직하게 해준다고 한다. 어릴 적 문화적 혜택을 못 받은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힘이 들었지만, 양평의 자연과 인정이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따스함을 잃지 않았다고 말한다.

30대 들어서서야 작가의 길로 들어선 김창환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작가의 삶에 가치를 느낀다”라고 말한다.

## 김창환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저는 조각가 김창환입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양평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30년 정도 객지 생활을 한 후에 2016년에 귀향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늦게 들어갔습니다. 서른에 대학을 들어가서 작업과 생업을 병행하려다 보니 작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흔살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업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용인 수지에서 작업을 하다가 재개발 문제로 그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고향인 양평으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 3. 양평과 작업활동

이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양평’이라는 지역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평이라는 한정된 지역의 문화와 생활, 환경에서 오는 문제들을 주제

로 작업을 하곤 합니다. 양평이 예전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어서 문화적 혜택이나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냉소적이거나 차갑지 않고, 따뜻한 감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작업으로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4. 작업소개

##### - 개인작업

철망을 조직하여 상어, 고래, 낙타의 형상을 조각, 설치하는 작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철망을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조직하여 만드는 작업은 포르노 잡지에서 망사 스타킹을 입은 여자를 보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본 논리에 의해 여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나아가 인간성까지 상실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상어는 인간의 권력에 대한 탐욕과 포식자, 강자의 상징물이고, 고래는 가족적이고, 자유로움에 대한 인간의 바람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남는 존재여서 제가 조각가가 되기 위해 겪었던 힘든 시절의 저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낙타 작업은 치타처럼 뛰고 있는 모양새인데, 낙타는 절대 그렇게 뛸 수 없습니다. 사회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불가능성과 이에 대한 탐욕 등

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물들이 수 마리가 나열된 형태로 설치되는데 항상 우두머리에는 선이 간결하게 묘사된 작품이 배치됩니다. 그 우두머리는 저의 자화상입니다.

#### - 소집단활동: 바깥미술회

바깥미술회는 3년 동안 초대 작가로 활동했고, 올해 초부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룹 활동은 잘 모르고 있다가 양평에 내려오면서 양평에 있는 작가분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바깥미술회라는 그룹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초대를 받게 되었고, 매력을 느끼면서 지금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작업은 제가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작업입니다. 거기서 발언하고 싶은 것을 뽑아내서 전개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고 시처럼 압축시켜서 단순하게 작업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바깥미술은 전시할 때마다 전시 주제가 주어지는데 그것에 맞게 작업을 합니다. 제 개인작업과는 상관없이, 1회 때는 감을 잡기 힘들었는데 2회 때는 만족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깥미술의 장점은 개인작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전

시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를 하게 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작업을 고집하면서 했으면 어떠한 의미창출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재료나 방식에 제한이 없고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 5. 향후 활동 계획과 행보

조각과 설치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2년 간은 회화작업을 개인전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작업에 안주하지 않고, 작업적으로 실험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바깥 미술회원으로서, 올해 양강섬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도 일종의 재료적 시도였습니다. 이번 바깥미술전 이후 창녕에서 진행될 전시에서는 대나무를 활용한 작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나무를 사용한 다른 작품들과 달리 대나무의 형태적인 것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대나무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대나무로 인간의 형태를 묘사해내어 재료와 형태의 동일성을 통해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로 저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 6.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우선 양평문화재단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양평이 고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익숙한 부분은 있지만, 이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예술인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공식적으로 작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을 하는 작가로서, 전시공간이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술관은 아무래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전시공간이 요구됩니다. 유희공간을 많이 발굴해서 개인전, 기획전이 가능한 공간을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예술인이 양평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는 하나, 지원이 그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역 작가가 지역축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국제적으로 국가 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양평에서도 충분히 국제적인 작가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천대광 1970~

동국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뮌스터 아카데미 졸업, 마이스터 술러 학위를 취득하였다. 독일에서 귀국한 후 넓은 작업장을 찾아 양평에 자리 잡았다. 사회와 공공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건축을 모티브로 한 조형적 실험과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양평을 리서치하여 작품화 한 작업이 존재하며 이 작품들로 다수의 전시와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 천대광

천대광 1970~ 은 자신을 평면, 조각, 설치, 디자인, 건축 등의 영역을 아우르며 공간작업을 하는 시각 예술가로 정의한다.

970년 서울에서 태어난 천대광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2006년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를 수학했다.



Light Temple, 2006, 목재, 조명, 400x300x300cm

천대광이 독일 유학을 결심한 계기는 영화를 공부하고

싶었다고 한다. 독일 영화 '양철북'과 '베를린 천사의 시'에 매료되어 영화학교를 찾아 독일로 떠났다. 하지만 영화전공 학과를 가진 대학을 못 찾아 미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청년 천대광에게 한국의 미술 풍토가 절망적이란 사실도 독일로 떠난 이유가 됐다. 홍대와 서울대의 패권주의가 미술계에 만연해 있었고, 동국대 졸업 즈음에 한 판화공모전에서 심사위원들의 학연 카르텔을 목격하고 환멸을 느낀 것이 유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천대광은 처음부터 회화와 조각 등으로 미술을 분류하는 것이 체질에 맞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독일에서도 회화로 입학해 설치로 졸업을 했다. “설치 작업이 돈은 안 되지만 회화처럼 다른 작가와 겹치지 않고 전시 공간을 혼자 차지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한다.

천대광이 유학한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가 있는 도시 뮌스터는 10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조각 축제인 ‘뮌스터 프로젝트’로 유명한 곳이다.

천대광은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었다. 그의 수준 높은 작업은 교수들의 관심을 받았다. 내리는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는 모습

등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인사가 되었다.

2004년에는 아카데미에서 1년에 2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파리 시테 예술공동체 레지던지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작가 육성을 위해 파리의 시테섬에 있는 호텔을 사들이면서 시작된 ‘파리국제예술공동체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일명 시테(Cite)’는 프랑스 문화성과 외무성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1965년 펠릭스 브루노 Felix Brunau 에 의해 설립, 미술을 중심으로 음악, 무용, 건축, 문학 등 세계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생활하며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 공간이다. 작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시테 입주작가 선정은 지원자의 응모를 받아 학교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데 천대광은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학교 측에서 천대광을 선발할 만큼, 유학 시절 이미 유명 작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윈스터 미술재단이 아카데미 학생 중에서 단 한 명에게 시상하는 펠르더 프라이스 Förder Preis 2005 대상과 200만 원 상당의 상금도 받았다. 촌스럽게 얘기하면 천대광은 윈스터 유학 시절 전교 1등을 한 것이다.

큐레이터들 사이에서도 천대광에 대한 평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작업 특성상 어시스턴트를 쓰는 경우에도

천대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완성된 작업에서 큐레이터들에게는 작가의 철저한 작가정신의 결과물이 보이는 모양이다.



[건축채집 \(구\)양평역  
양평읍 역전길30,  
c-print, 32.9x48.3cm](#)



[건축채집 \(구\)양평역  
양평읍 역전길30,  
c-print, 32.9x48.3cm](#)



[건축채집 \(구\)양평역  
양평읍 역전길30,  
c-print, 32.9x48.3cm](#)

천대광은 그의 작품을 ‘건축적 조각’ 혹은 설치작품이라고도 이라고 부른다. 그의 조각 작품은 대부분 건축물을 닮아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르게 건축 역학적 논리를 무시한 형태이거나, 실존하는 건축물에서 여러 구성요소를 따와서 하나의 구조물로 합쳐놓은 것 같은 형태도 있다. 천대광은 이 작업을 위해 도시를 돌며 ‘건축 채집’을 한다. 건축물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도시 곳곳을 누비며 건축물들을 채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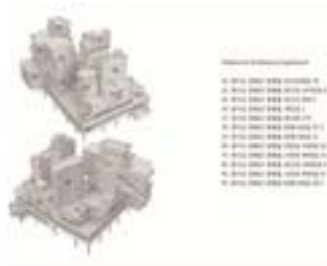
2013년 독일 오버하우젠에서 전시한 ‘견인도시 프로젝트 1-슈테른 파르크’에서 천대광은 자전거를 타고 오버하우젠을 별 모양으로 이동하며 사진을 찍어 건축물들을 채집했다. 이렇게 채집한 건축물들은 포토샵, 드로잉, 설치, 조각 등으로

변형되어 평면이나 3차원 조형물을 만들어 냈다.



슈테른 파르크 도큐먼트  
([sternfahrtdocument](#))

2016년 ‘견인도시 프로젝트 2-양평’에서는 양평 터미널을 비롯한 양평의 건축물들을 채집해 각 건축물의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탑처럼 쌓아 올렸다. 천대광은 이 과정에 도시의 인문 지리학적인 연구도 병행했다. 천대광은 양평의 상징물인 비둘기와 진달래가 군새와 군꽃으로 지정된 것에 의문을 품고, 자기 집 근처에서 쉽게 발견되는 물까치와 지리바를 새로운 상징물로 선택하기도 했다. 둘 다 작가 집 근처에서 쉽게 발견되는 생물이고, 특히 열은 회색과 하늘색 날개를 가진 물까치는 가족 중심의 집단생활을 하며 공동 양육을 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기보다 의미가 있다는 게 천대광의 설명이다.



[건축채집, 2016, c\\_print\\_32.9x48.3cm,](#)  
[시뮬로91시의버스터미널](#)

[건축채집, 2016, c\\_print\\_32.9x48.3cm,](#)  
[시뮬로91시의버스터미널](#)

천대광이 이토록 건축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건축적인 것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특별히 도시와 집에 관심이 있어서 작품의 주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작업의 소재가 된 것이고 그것을 비틀고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시각 중심적 놀이의 결과물로서 생산된 것이 예술로 분류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천대광은 말한다.



"나는 작품에 메시지를 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마치 들판에 봄이 찾아와 조건이 맞으면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자라나듯,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나를 작업하게 만들면 일단의 생산물들을 쏟아내는 것 이외에 다른 작업 의도는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작품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평론가의 몫'이라는 것이다.



양평파빌리온, 2016, 혼합매체  
1000x500x360cm



양평파빌리온, 2016, 혼합매체  
1000x500x360cm



양평파빌리온, 2016, 혼합매체  
1000x500x360cm



양평파빌리온, 2016, 혼합매체  
1000x500x360cm

다만 “어떤 행위를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천대광은 “문화예술 인프라는 균형 잡힌 생태계와 같다. 경제적 회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도 산업화와 마케팅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되려면 상점도 있고 소비도 있어야 한다”라며 예술생태계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했다.

이어서 그는 “더불어 접근하기 쉽고 구매가 용이한 미술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와인도 오천원부터 수백, 수천만 원까지 있다. 목표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방법과 실현과정은 달라진다. 문화전쟁이다.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가난한 예술 애호가를 위한 저렴한 미술품 보급이냐? 논할 가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양평이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냐고 묻자

“예술가가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세계 미술 흐름과 나란히 하는 예술씬 scene 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대답했다.

## 천대광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평면, 조각, 설치, 디자인, 건축 등의 영역을 아우르며 공간작업을 하는 시각예술가입니다.

### 2. 양평과의 인연

독일에서 영구 귀국 후 2013년 경 거주와 작업활동을 할 공간을 물색하던 중 양평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 3. 양평과 작업활동

여러 다양한 테마의 작업을 해오고 있고 양평과 관계된 작업은 “견인도시 프로젝트-양평편”이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작가의 생활과 작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작업의 일부로 건축채집, 폴리아모리아 실험건축, 이상도시 프로젝트, 독일 베를린 U-Bahn 프로젝트, 파사드 프로젝트, 건축적드로잉, 건축적 설치/조각 등 다양한 컨셉과 형식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작업입니다.

2016년 경기도미술관<생생화화2016 산책자의 시선>  
 2016.12.15.-2017.2.5, 경기도미술관 에서 ‘양평 파빌리온’을 최초로 그  
 결과물을 선보였고, 경기 도큐페스타 경기도미술관 특별전<  
 경기 아카이브\_지금,> 2018.9.10.-10.31. 경기상상캠퍼스 입학입산학관 에  
 서 ‘건축적 설치연구-양평읍 양근강변길 64’를, <환상벨트>  
 2018.12.7.-12.29, 돈의문박물관마을 에서 ‘리얼유토피아’, 2019년 <안  
 양공공예술프로젝트6(APAP6)> 2019.10.17-12.15,안양예술공원 에  
 서 ‘Media vita in morte sumus-너의 거실’, <공간실험>展  
 에서 ‘해발35M’ 2020.6.20-9.6,양평군립미술관, <천대광: 집우집주>  
 2021.9.17-2022.7.24,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등 연관된 작품이 전시 되었  
 습니다.

양평의 지역적 특성이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평에 거주하기 때문에 양평을 테마로 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른 도시에 살았다면 양평을 작업 테마로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 4. 작업소개

구체적으로 고정된 매체를 천착하여 작업하지는 않습니  
 다. 인간에 의해 생산된 물질적 정신적 산물인 인공의 종합적  
 산물의 총체가 문명이고, 건축은 문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결  
 과물이라고 봐요. 결국 그것은 인간 자체를 의미하고 건축적인

것 밖에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도시와 집에 관심이 있어서 작품의 주제를 삼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이 작업의 소재가 된 것이고 그것을 비틀고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시각 중심적 놀이의 결과물로서 생산된 것이 예술로 분류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품에 메시지를 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마치 들판에 봄이 찾아와 생장의 조건이 천지에 스며들면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자라나듯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저를 작업하게 만들면 생산물들을 쏟아내는 것 이외에 다른 작업 의도는 없어요. 다만 메시지를 논한다면, “끝없이 어떤 행위를 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누구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라는 정도일 것입니다.

##### 5. 향후 활동 계획과 행보

2021년에 예정되었던 독일 전시는 코로나를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일단 계획된 전시는 2021년 11월 경기도 광주 달 미술관의 개인전과 2022년 10월 호리아트스페이스의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6.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양평은 예술인 분포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예술적 인프라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부담되는 주거와 작업실 비용을 상쇄하면서도 서울에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찾다 보니 자리한게 양평이고 환경은 덤으로 주어졌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인프라는 균형 잡힌 생태계와 같아서 경제적 회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예술도 산업적 전술전략으로 의식전환이 진전된 것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 되면 상점도 있어야 하고 소비도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공장에 투자도 되어야 하고 이익이 창출되어 투자비용을 뽑아내기도 해야 합니다. 또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양평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더불어 접근하기 쉽고 구매하기 용이한 미술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예술과 예술품의 속성을 알아야 해요. 문화예술인들 자체도 너무 허황된 예술지상주의적 이상주의를 남발하는데, 목표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방법과 실현과정은 달라집니다.

양평에 요식업형 갤러리가 많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것들은 양평의 문화예술계의 인프라라고 보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 창작환경의 정책은 정부 자체 주도형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사회 복지적 측면이 강해요. 단언하자면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예술 일반의 질을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예술의 표현적 다양성의 저변을 파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폐해가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란 명목 아래 행해지는 공공미술품의 공공시설물화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많은 예술가들은 이미 지원금이 많이 주어지는 작품의 경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눈높이를 생각 해야하는 공적자금 지원의 한계 때문에 예술가들 활동 성격이 변질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기업이나 민간자본이 많이 유치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 감면 등 법적 혜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예술인 후원은 복지정책과는 결이 다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양평군은 예술과 문화가 특화된 도시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술가가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세계 미술 흐름과 나란히 하는 예술씬 scene 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도시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소연 1971~

수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뮌스터 쿤스트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실재하는 장소에 무표정한 자신의 초상과 다양한 소품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발산하는 화면을 구성한다. 산책, 여행하며 채집한 배경과 수집한 소품을 기록, 보관해두었다가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탄생시킨다.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양평에 작업실을 차리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양평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다수 존재한다.



## 이소연

이소연 1971 은 자화상을 모티브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소연이 그리는 인물은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처럼 보이지만, 작가를 만나보면 그가 그린 그림 속 인물이 이소연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군모, 2013, 캔버스에 유채, 110x90cm

이소연은 프로이센 시대의 이 군모가 특히 마음에 들었지만 너무 비싸 사지는 못하고 주인에게 부탁해 사진만 찍고, 그 사진으로 이 작품을 그렸다.

자화상의 배경, 소품, 의상들도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작가가 가본 적이 있는 장소이고 소품들도 작가가 직접 사들인 것들이다. 간혹 직접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의 물건들, 예를 들면 옛 독일의 프로이센 시대의 군모는 너무 비싸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사진만 찍고 나중에 그린 것이다.



비단잉어, 2014.  
캔버스에 유채, 120x120cm



흰 거위, 2013.  
캔버스에 유채, 155x155cm

이소연의 자화상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찢어진 눈과 편평한 얼굴, 앙다문 입의 인물은 배경이나 소품을 빼면 거의 모든 작품에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고, 묘한 분위기와 함께 풍부한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마치 무표정에 가까운 그림 속 인물은 관객에게 '난 네가 누군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라며 오히려 작품 속 인물이 관객을 관찰하는 듯한 느낌도 든다.



이소연 작가의 거실 풍경, 벽에 걸린 작품속 군모는 작가가 독일의 베흐른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어찌 보면 이소연이 작품 제목을 짓는 방식도 관객이 듣는 이야기를 증폭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대부분 작품이 정중앙에 인물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녀의 작품 제목은 ‘금붕어 어항을 든 여인’이 아니라 그냥 ‘금붕어’다. ‘모피 모자를 쓴 여인’이 아니라 그냥 ‘모피 모자’다. 제목에서 작품 속 인물이 배제되고, 배경이나 소품을 주어로 제목을 만들었다. 제목에서 인물을 배제하자 관객은 작품 속 인물의 상황에 훨씬 더 많은 궁금증을 느끼게 된다.

작가는 ‘내 얼굴인데 저 사람들이 왜 사가지?’라고 의문을 품지만, 사람들이 이소연의 작품을 주목하고 좋아하는 것은

독특한 분위기로 일단 관객을 시선을 사로잡고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소연 작가의 작업실 모습.

최근 드로잉으로 단독 아트페어를 준비 중인 작가가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이소연의 작품은 낯선 환경과 독특한 분위기의 의상과 소품들이 결합해 작가에게는 실제로 경험했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를 보는 관객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물과 배경과 그리고 소품을 통해서 그림 속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 속 인물이 나라면 어떤 기분일지, 앞으로 벌어질 일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과 나도 비슷한 상황에 부딪친 적이 있다는 기억을 소환하게 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소연을 작품을 보면 작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관객의 특권인 상상하는 재미가 있다.

이소연은 작품에 등장하는 소품을 사 모으는 일에도 상당한 공을 드린다. 독일 유학 시절 베를린의 베퉀시장에서 본 균인 모자에 꽃혀서 여러 개의 균모를 사 모으고 균모를 쓴 초상화인 균모 시리즈와 60~70벌의 화려한 속옷을 입은 모습을 그린 파자마 시리즈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그 가운데는 여자 속옷인 슬립 slip 을 겹옷 위에 걸쳐 입은 모습을 그린 작품도 있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작품 속 옷 입기 방식이 우연인지 한때 여성들이 레이스 등이 달린 슬립 원피스를 겹옷 위에 겹쳐 입는 패션이 유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작품들 덕분인지 패션 회사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그냥 회화로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정중히 사양했다고 한다.

이소연의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화풍과 그녀의 그림이 가지는 매력은, 유학 시절 독일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다. 2006년 이소연 작가가 독일 뮌스터의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있던 시절,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행사에서 딱 2점 선보인 그녀의 그림을 눈여겨본 뮌스터시립미술관장인 커크패트릭 Gail B. Kirkpatrick 은 이소연을 뮌스터시립미술관 Kunsthalle Münster 의 기획전인 <Face to Face. Künstlerselbstporträts> 2006.2.11-9.4, AZKM 전에 초청했다. 이 전시에서 이소연은 필립 Philip Akkerman, 조나단 메세 Jonathan Meese 등의 유명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전

시했다. 그렇게 당시 7학기의 대학생인 이소연은 윈스터시립미술관에 정식으로 초청받은 최초의 대학생 작가가 됐다.

남편도 작가인데 독일 유학 시절 같은 기숙사에서 만난 것이 인연이 됐다. 같은 기숙사의 서양 여자들에게 ‘분위기 있는 한국 남자’가 왔다는 말을 들은 이소연이 그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런 씨~’를 속으로 외쳤지만, 금방 정이 들었다. 두 사람이 사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두 작가의 부모들은 당사자도 없이 부모들끼리 상견례를 하고는 독일에 있는 두 사람에게 통보했다. “결혼식장은 명동성당으로 예약했다”라고.

현재 이소연 작가는 양평군 강하면에 살고 있다. 살림집으로 쓰는 공간과 부부 작가의 작업실이 각각 따로 있다. 작가가 이소연 작가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날 주방가구를 바꾸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전에 있던 싱크대도 괜찮았는데 왜 바꾸냐고 묻자, 전에 있던 것은 남편이 손수 직접 만든 건데 “다 좋은데 그릇을 꺼낼 때마다 나무 먼지가 우수수 떨어진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작품 팔아서 싱크대도 바꾸고, 차도 바꿨다는 말을 들은 김에 돈 얘기를 물었다. 기자의 속물근성을 독자들의 궁금증을 대신해 물어본다며 말이다. 생활비는 갤러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월급처럼 준다고 한다. 물론 작품이 팔리면 그 돈에서 공

제한다고 했다.

내친김에 부부싸움이 작품에 영향을 끼친 적은 없는지도 물었다. 니키 드 생팔처럼 남편과의 싸움을 일기 쓰듯 작품 속에 표현한 예도 있으니 말이다.

부부싸움이 작품에 영향을 끼친 적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부가 작품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비평을 하게 되고 '니나 잘해'라는 말이 돌아오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가로서 그이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끝맺었다.



## 이소연 - 구술채록

### 1. 자기소개

#### -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이소연이고, 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양 화과 졸업하고 독일에서 파인아트 전공하고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인물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자화상, 그렇지만 전통적 의미의 자화상은 아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화상을 하나의 모티브로 제가 하고 싶은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 양평에 터를 잡은 시기와 계기

양평에 온 것은 2000년대 중반이에요. 서울 주변에 제일 공기가 좋은 곳이 양평이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많이 알아봤죠. 공장이 없어서 깨끗하고 가장 편하더라고요.

### 2. 양평과의 연고 / 양평과 작업활동

2019년에 '검은숲'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 당시 작업 배경이 됐던 곳 중에 양평이 많았어요. 테마와 맞게 해질 녘, 어스름할 때 즈음 제 작업실 뒤편을 산책 하면서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건 꼭 양평 이라기 보다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고, 자연 속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작업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 3. 작업소개

제 작업을 보면 물건이나 배경이 인물과 같이 특징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것들은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배경들이예요. 동화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회화적 감성으로 보여주는데, 작품을 보면 비현실적일 것 같은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이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제가 옛날부터 느껴왔던 것들을 짜집기를 하거나,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배경에서 이끌린 부분을 모아서 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회화적 감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낯선 것을 낯익게 그리는 방식을 취해요. 색깔이나 소품, 배경을 고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끄집어내서 작업으로 풀어내니까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관람객들도 그것에 많이 공감을 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다 드러내는 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드러내

지 않고 절제하면서 감추는게 좋아요. 제 작품에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오묘한 간극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연구를 해요.

#### 4. 양평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생각과 바람

현대미술을 다루는 정말 좋은 전시있잖아요. 색깔있는 좋은 전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주목을 받게되죠.

여 백

p.229-230

# CV

민정기  
서용선  
안창홍  
육근병  
최운영  
이재삼  
정원철  
이영섭  
이재효  
김용철  
김나리  
김창환  
천대광  
이소연



민정기 1949~

경기도 안성 출생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 전시이력

### 개인전

2019

제9회 개인전: 민정기 국제갤러리, 서울

2018

이중섭미술상 30주년 기념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16

제8회 개인전: 민정기 금호미술관, 서울

2007

이중섭미술상 수상 기념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04

제6회 개인전 마로니에미술관 대표작가 기획전,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서울

1999

제5회 개인전<민정기>전 학교재 아트스페이스, 서울

1996

제4회 개인전<양근에서 오대산으로> 가람화랑 인사갤러리, 서울

1992

제3회 개인전<민정기-양근(을) 그리다> 가람화랑 상문당, 서울

1986

제2회 개인전<민정기>전 서울미술관, 서울

1983

제1회 개인전<민정기>전 서울미술관, 서울

### 단체전

2021

제13회 광주비엔날레-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DMZ 이후, 대지의 숨결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민정기·김준권 특별 초대전<풍경의 이면: 나의山水> 소천미술관, 시흥

2020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20 신소장품-아트 클라우드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똥이 꽃이 되는 세상 자하미술관, 서울

그림과 말2020 학교제, 서울

전망: 자연 바다 독도 그리고 화가의 눈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평화, 바람이 불다 오두산통일전망대, 파주

Checkpoint. Border Views from Korea The Kunstmuseum Wolfsburg,  
Wolfsburg, Germany

Negotiating Borders Centre Culturel Coréen, Paris, France  
2019

몽유인왕-안평의 꿈, 인왕산으로부터 단원미술관, 안산

성: 판타스틱 시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素畫-한국 근현대 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PICK ME: 재료사용법 경기도미술관, 안산

I Love Eco 작가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민씨연대기 포지션민제주, 제주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관 사회 1960s-1990s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DMZ 문화역서울284, 서울

2018

GMoMA 컬렉션 하이라이트 경기도미술관, 안산

경기도미술관 특별전<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임학입산학관, 수원

제주4.3 70주년 기념전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낙원의 이편 안양박물관 특별전시관, 안양

겸재정선 프로젝트 St. Ottilien Archabbey, Emming, Germany

2017

아름다운 절 미항사 학교제, 서울

풀이 서다 대안공간 풀, 서울

키워드 한국미술 2017: 광장예술 - 햇불에서 촛불로 제주

2016

사회 속 미술-행복의 나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현대미술의 눈과정신II-리얼리즘의 복권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기전본색畿甸本色: 거장의 예술을 찾아서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5

정선 현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판화 시대를 담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4

미디어시티서울2014 귀신 간첩 할머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Flower, Flower, Flower 갤러리아베, 부산  
2013
- 장면의 재구성#1-SCENES vs SCENES展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경계의 회화 금호미술관, 서울
- 역사속에 살다- 초상, 시대의 거울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 자이트가이스트시대정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 조국으로 가는 길-한 가족의 독립운동 이야기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2012
- 한국의 그림-매너에 관하여 하이트컬렉션, 서울
- 여기 사람이 있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2012 경기도 대표작가전 남송미술관, 가평  
2011
- 창·창·인·생 創·創·人·生 경기도미술관, 안산
- 마법의 나라, 양평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0
- 집, 미술공간이 되다 갤러리아베, 부산
- 한국드로잉30년: 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 Between 원앤제이갤러리, 서울
- 한국의 길 올레, 제주-올레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현실과발언 30주년 기념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9
- 자연의 신화 제주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천변풍경 청계천 시민공간, 부남미술관, 서울
- 지심도 거제 문화예술회관, 거제
- 대학로 100번지 아르코미술관, 서울  
2008
- 찾아가는 미술관-장흥 장흥문화예술회관, 전남, 장흥
- 찾아가는 미술관-통영 통영페스티벌하우스, 경남, 통영
- 그림의 대면 소마미술관, 서울
- 지리산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07
- 한국현대미술 1970~2007 코리아아트, 부산
- 이음길 북한강미술관, 양평



경기, 1번국도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6

그림, 문학을 그리다 북촌미술관, 서울

한국미술 100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5

2005 서울미술대전-회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경기비경, 경기도박물관 제비울미술관, 수원

광복60년 기념 초대작가 대한민국회 본관테라스, 서울

독도의 진경-현대 판화와의 만남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실, 경주

2004

본 것을 걸어가듯이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대표작가 초대기획전, 서울

그림, 소설을 읽다 민정기-황석영 교보문고 전시실, 서울

평화를 위한 세계 100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3

진경-그 새로운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역사와 의식, 독도진경 판화전 서울대학교·독도박물관, 울릉군

2001

현실과 발언 그 이후전 대안공간 풀, 서울

Beautiful Lives 예술마당 숲, 대구

1999

코리안팝전 성곡미술관, 서울

산, 수, 풍, 경 전 선재미술관, 서울

한국미술의 자생적 지평 포스코미술관, 서울

몽유금강전 일민미술관, 서울

길 예술의전당, 서울

문화연대 후원기획전 학교재, 서울

양평미술인협회전 맑은물사랑미술관, 양평

자연환경-그 모색과 대안전 맑은물사랑미술관, 양평

1998

조국의 산하전 운현궁미술관, 서울

우리들꽃전 사비나갤러리, 서울

'98분단전 이십일세기화랑, 서울

1997

한국의 미를 찾아서 사비나갤러리, 서울

- 표현할 수 없는 것의 표현전 포스코갤러리, 서울  
1996
- 조국의 산하:강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한국대표시인 주제미술전:꽃뿔뿔 학교재, 서울  
미술로 본 한국의 인물전 노화랑, 서울  
1995
- 광주비엔날레 광주 5월 정신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조국의 산하 서울 문예진흥원  
1994
- 민중미술 15년 평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전 예술의전당, 서울  
1993
- 실크로드 미술기행전 동아갤러리, 서울
- 12월전-그 후 10년 덕원갤러리, 서울  
1991
- ‘혼돈의 숲’에서 자하문미술관, 서울
- 18인전 서울미술관, 서울  
1990
- 내일의 제안 예술의전당, 서울  
1989
- 제3회 아시아 현대미술제 후쿠오카미술관, 일본, 후쿠오카  
뉴욕 Artist space 주최 민중미술전 미국, 뉴욕  
1987
- 서울미술관 주최 ‘86문제작가전 서울미술관, 서울  
1986
- 현실과 발언전
- 80년대 대표작 기획전 그림마당 민, 서울  
1983
- 82 문제작가전 서울미술관, 서울  
1981
- 파리 비엔날레 프랑스, 파리
- 새구상 11인전 롯데화랑  
1988
- 민중 미술전, Artists Space 미국, 뉴욕

1986

JAALA Japan Asia Latin America 전 도쿄미술관, 일본, 도쿄

1985

서울미술관 개관 4주년 기념전-현실과 발언전 서울미술관, 서울

1984

현실과 발언전

1983 현실과 발언전

'82문제작가전 서울미술관, 서울

서울미술관 주최 앙굴렘교환초대전 서울미술관, 서울

12월전

1982

현실과 발언 동인전

1981

계간미술선전 새구상 11인전 롯데미술관, 서울

현실과 발언 동인전 롯데미술관, 서울

제9회 12월전 미술회관, 서울

제2회 파리 비엔날레 프랑스, 파리

1980

12월전 미술회관, 서울

현실과 발언 동인전 동산방화랑, 서울

1977

12월전 미술회관, 서울

제3그룹전 미술회관, 서울

오늘의 작가전

1976

12월전 문헌화랑, 서울

1975

12월전 미술회관, 서울

1974

12월전 미국문화원, 서울

1972

회화 6인전 교육회관, 서울

## 행정경력

1983 인하대 강사  
1974-1979 창문여중 및 숙명여고 교사  
등 역임

## 수상

2006 제18회 이중섭미술상 [조선일보](#)

## 레지던시

2009 경기창작센터 파일럿 프로그램 아티스트 레지던시 [경기문화재단](#)

## 작품소장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서울대학교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 평론

육체와 현실 사이의 지도 그리기, 심광현 [미술평론가](#)  
민정기,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긴장관계, 김진송  
민정기는 거의..., 최민 [미술평론가](#)

서용선 1951~

서울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동대학원 졸업

## 전시이력

### 개인전

2021

서용선의 생각: 가루개 프로젝트 갤러리JJ, 양평

만疊산중서용선繪畫 여주미술관, 여주

2020

서용선: 종이그림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서용선: 고구려, 산수 갤러리 이마주, 서울

2019

통증·징후·증세 : 서용선의 역사 그리기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8

서용선의 자화상 갤러리JJ, 서울

Suh Yongsun : City and History of Landscape MK Gallery, Vienna, VA,  
미국

2017

My Place Gallery Fukuzumi, 오사카, 일본

37 rue de Montruill Paris · 222 Main Street New Jersey La Ville A des  
Arts, 파리

Suh Yongsun : Crossing Worlds Art Mora Gallery, 뉴욕,

생각이 그려지는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6

서용선 류미재갤러리, 양평

색色 과 공空-서용선 김종영미술관, 서울

서용선의 인왕산 누크갤러리, 서울

확장하는 선-서용선 드로잉, 2016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아르코미술관,  
서울

서용선의 마산 마산청과시장 아트스튜디오, 마산

2015

자화상 갤러리 이마주, 서울

서용선의 도시 그리기\_유토피즘과 그 현실사이 금호미술관과 학교재 갤러리, 서울  
상치난 색채 아트센터 쿠, 대전

2014

서용선 이유진 갤러리, 서울

서용선의 신화\_또 하나의 장소 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체화된 것들-자화상과 풍경들 후쿠즈미 갤러리, 오사카, 일본  
역사적 상상-서용선의 단종실록 아트센터WHITE BLOCK, 파주  
서용선, 독일학술교류처 DAAD, 본, 독일

2013

서용선 Kips Gallery, 뉴욕, 미국

서용선 베를린 한국문화원, 베를린, 독일

기억-재현, 서용선과 6.25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움직이는,움직이지 않는 갤러리 이마주, 서울

2012

오대산 풍경 동산방 화랑 / 리씨 갤러리, 서울

Territory Kips Gallery, 뉴욕, 미국

2011

지리산 리씨갤러리, 서울

서용선 RMIT Gallery, 멜버른

The man who paints Shinwha gallery, 홍콩

서용선 SON Gallery, 베를린,독일

TOUCH Fukuzumi Gallery, 오사카, 일본

시선의 정치 학교재 갤러리, 서울

2010

풍경 리씨 갤러리,서울

Men in the History 604J 갤러리 / 604H 갤러리, 부산

Men in the History 스페이스 홍지, 서울

서용선 갤러리이마주, 서울

6 DownTown Kips Gallery, 뉴욕, 미국

2009

서용선 통인옥션갤러리,서울

미래의 기억 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 양구

山.水 리씨 갤러리, 서울

올해의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얼굴 Fukuzumi Gallery,오사카,일본

2008

서용선 갤러리 A Story, 서울 / 부산

자화상 갤러리 고도, 서울

김재선갤러리기획 순회전시 부산

2007

매월당 김시습 갤러리 고도, 서울

노산군일지 Fukuzumi Gallery, 오사카, 일본

노산군일지III 오스 갤러리, 전주

2006

이념과 현장들 갤러리 고도, 서울

서용선 Crecloo Art Gallery, 뉴욕, 미국

서용선 철암역 갤러리, 태백

2004

미래의 기억 일민미술관, 서울

서용선 노화랑, 서울

태백, 철암 수가화랑, 부산

2002

만들기와 그리기 노화랑, 서울

1999

서용선 1993-1999 노산군 단종 일지 영일문화원, 영일

자화상 소묘:드로잉 이콘 갤러리, 서울

1998

서용선 노화랑, 서울

1997

서용선 이콘 갤러리, 서울

1996

자화상 소묘:드로잉전 이콘 갤러리, 서울

서용선 조현갤러리, 부산

1995

자화상 드로잉전 스완 갤러리, 뉴욕, 미국

서용선 서미 갤러리, 서울

1994

서용선 이콘갤러리, 서울

1993

서용선 1987-1993 노산군(단종) 일기 신세계갤러리, 서울

1992

서용선 이콘갤러리, 서울



1991

서용선 신세계미술관, 서울

1990

서용선 공간미술관, 서울

1989

서용선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8

서용선 갤러리 P&P, 서울

## 단체전

2019

불멸사랑 일민미술관 신문박물관, 서울

경치그림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2018

We the People Ozaneaux ArtSpace, 뉴욕

누크갤러리 살롱전 누크갤러리, 서울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Trahere 화가의 자화상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강원, The Story 강릉아트센터, 강릉

接點開花 홍콩한국문화원, 홍콩

경기도미술관 특별전 <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입학입산학관, 수원

Trahere - 화가의 자화상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7

Two Reflections 워싱턴한국문화원, 워싱턴

일용품과 이념 퀸즈대학 크래퍼 아트 갤러리, 뉴욕

내가 나를 바라보니-서용선, 제5회 바다아트페스티벌 특별전 SETEC, 서울

색채의 재발견 뮤지엄 산, 원주

예술만큼 추한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그림,사람 학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서양화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16

동학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일한현대미술교류전2016- CONNECT JARFO 교토화랑, 교토

풍경을 보는 여섯 가지의 시선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무안

앉는법 인디프레스, 서울

또 하나의 한국현대미술관: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70년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O상 공화국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 광주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30년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반도의 사실주의 아메리카 유니버시티 뮤지엄, 미국 워싱턴

사월의 동행 경기도 미술관, 안산

아 통일전 예술의 전당 서예관, 서울

문화적 대화 주 호주 한국문화원, 시드니/ 갤러리 LVS, 서울

2015

백제의 재발견\_현대미술리포트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독도 오감도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김시습 겸재정선 미술관, 서울

생명의 교향\_고야산개창 1200년 특별기획전 고야산사/카이소 1200년 갤러리, 와  
카야마현, 일본

풍류남도 만화방창 행촌미술관, 해남종합병원,고산윤선도 유물전시관,대흥사, 성보박  
물관, 일지암, 미향사, 만덕산 백련사, 이마도 작업실(임하도)

봄이 있는 풍경 오승우 미술관, 무안군

2014

지리산 프로젝트 2014: 우주예술집 성심원, 산청

사유로서의 형식-드로잉의 재발견 뮤지엄 산, 원주

최치원 풍류탄생 예술의 전당, 서울

겸재 정선과 아름다운 비해당 정원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아르스 악티바 2014-예술과 삶의 공동체 강릉 시립미술관, 강릉

바람을 흔들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미술관 Image 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 / 동덕 아트 갤러리, 서울

2013

신화와 전설 고양아람누리미술관, 고양

제3회 평화미술프로젝트 ‘백령도\_525,600 시간과의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백령도,인천

정전 60주년 특별전-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OCI 미술관, 서울

인물파노라마 전북도립미술관,전주

2012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Through your eyes 시드니문화원, 시드니, 호주

민성 대구미술관, 대구

Korean Painting Now 국립대만미술관, 타이중, 대만

2011

예술과 환경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태백

올해의 작가 23인의 이야기: 1995\_201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제1회 평화미술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이미지 수사학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서울, 도시 탐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Festart OSAKA 2011 Fukuzumi Gallery, 오사카, 일본

코리안 랩소디-역사의 횡단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2010

눈꽃 위에 피는 꽃 분단미술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Korean Art Festival : In and With :Contemporary Korean Art Cantor

Fitzgerald Gallery, Harverford College, 필라델피아, 미국

우리는 거제도도로 갔다 거제 문화예술회관미술관, 거제

OFF the wall : 건축 도자 경계에서 클레이 아크 김해 미술관, 김해

Celadon Art Project 2010, 강진에서 청자를 만나다 강진청자미술관, 강진

검재'화흔' 검재정선기념관, 서울

이와미국제미술전-도토리현의 사람과자연 도토리현, 일본

한국현대미술의 역사의식:영원한 깎박임진 하와이 대학미술관, 하와이, 미국

철암그리기 100회 기념전 철암역, 태백석탄박물관, 철암

2009

신호탄 현대미술관 서울분관예정지, 서울

갤러리 소밥 개관전 갤러리 소밥, 양평

트라이앵글 프로젝트-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제3프로젝트 박수근 미술관/상명

대학교

베를린 장벽붕괴 20주년 기념 이벤트 베를린 부란덴 부르그문 광장, 서울 독일문화원

7080 청춘예찬전-한국현대미술 추억사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08

그림 문학을 그리다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1970년대 한국미술\_국전과 민전 예술의전당, 서울

2007

그림으로 만나는 우리 시 100년 북촌미술관, 서울

2006

우리 시대의 얼굴 김해문화의 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Berlin Paintings Dialog Berlin -Korea Kommunale Galerie, 베를린, 독일  
독섬, 독도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05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광복 60년기념 평화와 통일 염원전 -베를린에서 DMZ까지 서울올림픽미술관  
한국미술 100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4

평화를 향한 전 세계 미술가들의 외침\_평화선언 2004 세계 100인 미술가 국  
립현대미술관, 과천

暗-示(암-시) Umbra 성곡미술관, 국민대학교,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2003

역사와 의식, 독도진경관화전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

빛과 색채의 탐험 예술의전당, 서울

깊은-그림 대안공간 풀, 서울

아이 유 어스 성곡미술관, 서울

2002

비자 프로젝트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3\_집행유예 5.18자유공원내 현병대 모형관내 영창, 광주

한국미술의 자화상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역사와 의식, 독도진경 서울대학교박물관 / 독립기념관

2001

한국미술2001: 회화의 복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철암 그리기 석탄박물관, 태백

한국미술대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0

한국 현대미술 레바논 베이루트, 유네스코 펠러스 외, 베이루트, 레바논

80년대 소그룹 미술운동 미술회관, 서울

시대의 표현-눈 과 손 예술의 전당, 서울

포비아 일민 미술관, 서울

1999

한국현대미술 자연의 소리 캐나다 순회전

양평미술관개관기념 양평미술관, 양평

99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제 2회 황해미술제 - 밥과 미술 인천예술회관, 인천  
 새천년 특별기획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호암미술관, 서울  
 1998  
 회화속의 몸 한림미술관, 대전  
 드로잉 횡단전 금호미술관, 서울  
 새로운 천년 앞에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1997  
 한국미술 '97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양화 100인초대전 서울신문사 갤러리, 서울  
 1996  
 도시와 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5  
 세계현대미술제 현대미술관, 서울  
 1994  
 서울 문화읽기 한원갤러리, 서울  
 서울국제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3  
 한국적 구상성을 위한 제언 롯데화랑, 서울  
 인물화, 삶의 표정 현대아트갤러리, 서울  
 1992  
 '92 한국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오늘의 삶, 오늘의 미술 금호미술관, 서울  
 1991  
 세기말 인상 신세계 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의 한국성 모색 한원갤러리, 서울  
 한국현대미술전 바사렐미술관(프랑스) / 미켈갤러리 (서울)  
 신형상 6인전 모란미술관, 남양주  
 예술의 전당 개관기념전 예술의전당, 서울  
 사람들- 이 땅 土 에서 금호미술관, 서울  
 1989  
 한국현대미술-80년대의 정황 동승아트센터, 서울  
 1988  
 제2회 레알리떼 서울전 그로리치화랑, 서울

한국현대미술 신세대 16인전 신세계미술관 기획, 서울

한국성, 현대성, 표현성 서미갤러리, 서울

형상-7인의 작업 바탕골미술관, 서울

1987

새로운 조형전 신세계 미술관, 서울

19회 까뉴 국제 회화제 까뉴, 프랑스

1986

Seoul in Seoul 오사카 부립미술관, 오사카, 일본

현·상 관훈미술관, 서울

1985

'85청년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작가 3인 스루가다이 화랑, 동경, 일본

1984

제6회중앙미술대상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3

평론가 12인 위촉선정 '82문제작가 작품 서울미술관, 서울

오늘의 작가전 Drawing '83 SEOUL Scope gallery, 로스앤젤리스, 미국

1982

동아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오늘의 작가 문예진흥원미술회관, 서울

1980

서울'80전-Work with photo-창립 공간미술관, 서울

1979

45-51 동덕미술관, 서울

1978

중앙일보사 제1회 중앙미술대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일보 한국미술대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수상경력

- 2014 제26회 이중섭 미술상
- 2009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 1978-84 중앙미술대전 특선
- 1982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 행정경력

- 2001 독일 함부르크 Pentiment 초대교수
- 서울대 서양화과 교수
- 등 역임

## 레지던시 및 기타경력

- 2017. 12 ~ 2018. 2 Torpedo Factory Art Center, Alexandria, VA, USA
- 2012.4. Sydney Univ. 호주, 시드니 - 작가 거주프로그램
- 2011.7. RMIT Univ. 호주,멜버른 - 작가 거주프로그램
- 2010.7. RMIT Univ. 호주,멜버른 - 작가 거주프로그램
- 2001.7 Pentiment 독일 Hamburg - 초대교수
- 1995.7 Vermont Studio Center 미국, Vermont - 작가 거주프로그램

##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 시립미술관
- 부산시립미술관
- 대구미술관
- 서울대학교 미술관
- 서울대학교 총무과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인천아트플랫폼

OCI 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모란미술관  
 국방대학원, 경기도  
 블루힐 백화점, 분당  
 동서문학, 서울  
 충청대학교, 청주  
 모나쉬 대학교, 호주  
 우관중미술관 갤러리, 싱가포르

## 출판물

2016 확장하는 선, 서용선 드로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2011 시선의 정치, 학교재  
 2010 서용선 1975-2007 I,II,III 중 II권, 갤러리604  
 2009 올해의 작가 2009 서용선, 국립현대미술관  
 1994 서용선 1994, Art Vivant, 시공사

## 평론

근대를 관통해온 주제, 그리고 도시와 역사, 이선영 미술평론가  
 아름다움과 서정성의 저 너머\_서용선 그림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 김동윤  
 건국대 교수  
 서용선의 도시 풍경과 도시인, 이정실 미술사, 큐레이터, 조지 워싱턴 대학교 겸임  
 교수  
 도시를 향한 현상학적 시선 - <싯다르타> 연작 이후, 이인범 상명대 조형예술학  
 과 교수  
 서용선의 회화적 전략, 이희영 미술평론가  
 서용선의 '휴머니즘적 진실'을 향한 고독한 행보 - 화가 서용선「역사와 신화」  
 를 찾아서, 변종필 미술평론가  
 근대를 관통해온 주제, 그리고 도시와 역사, 이선영 미술평론가



안창홍 1953~

밀양 출생

동아고 졸업

## 전시이력

### 개인전

2021

안창홍: 유명패션 호리아트스페이스, 서울

2019

안창홍-이름도 없는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안창홍-화가의 심장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2017

안창홍: 눈먼자들 조현화랑, 부산

2015

나르지 못하는 새: 안창홍 1972,2015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14

저런생각, 이런표현 김스아트필드미술관, 부산

기억공작소-關係 안창홍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3

발:견/發:見 안창홍 대안공간루프, 서울

2012

아리랑 안창홍 페이지갤러리, 서울

2011

안창홍: 불편한 진실 가나아트센터, 서울

2010

안창홍: 제10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작가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안창홍 개인전 기안갤러리, 대구

2009

시대의 초상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안창홍: 흑백거울 마치, 유명이나 허깨비들처럼 서비나미술관, 서울

2006

안창홍: 얼굴 사비나미술관, 서울

2004

안창홍 공간화랑, 부산

2003

안창홍의 인도여행기 공간화랑, 부산

제1회 부일미술대상 수상기념전 안창홍: 죽음의 콜렉션 코리아아트갤러리, 부산

2002

안창홍: 죽음의 콜렉션 갤러리사비나, 서울

2001

모래바람: 고비사막 가는길 이목화랑, 서울

안창홍 개인전 남산화랑, 서울

2000

안창홍 개인전 갤러리그림시, 수원

안창홍 개인전 갤러리그림시, 수원

1999

안창홍 개인전 노화랑·사비나갤러리, 서울

안창홍 개인전 공간화랑, 부산

1997

안창홍 개인전 전경숙갤러리, 부산

1995

안창홍 개인전 이목화랑, 서울

안창홍 개인전 나무화랑, 서울

1994

제9회 안창홍 작품전 갤리아아트홀, 서울

제10회 안창홍 작품전 갤러리누보, 부산

1993

제8회 안창홍 작품전 금호미술관, 서울

1991

안창홍 초대전 백화랑, 부산

1989

안창홍 초대전 온다라미술관, 전주

1987

안창홍 작품전: 새와 사람 이야기 갤러리누보, 부산

1986

제3회 안창홍 작품전 한강미술관, 서울

1984

안창홍전 고려미술관, 부산

1981

안창홍 작품전 공간화랑, 부산

1980

안창홍 개인전 한국미술청년작가회관, 서울

## 단체전

2019

정태춘·박은옥 40주년 기념전: 다시, 건너가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8

두 번째 풍경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경기도미술관 특별전<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입학입산학관, 수원

흐린 날의 노래; 강경구, 김을, 안창홍 아트비트갤러리, 서울

균열II: 세상을 향한 눈, 영원을 향한 시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GMoMA 컬렉션 하이라이트 경기도미술관, 안산

틈 사이에 서서 경기문화재단 로비갤러리, 수원

시대유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7

City and the People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코리아투모로우 2017: 해석된 풍경 성곡미술관, 서울

청년의 초상 갤러리아트사이드, 서울

삼라만상: 김환기에서 양푸동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16

아틀리에 스토리 한가람미술관, 서울

행복의 나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5

통찰 전등사, 강황

시대정신 전태일 아라아트센터, 서울

서신갤러리 신소장품-여자사람 서신갤러리, 전주

1980년대와 한국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2013

장면의 재구성#1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텔레-비전 현대화랑, 서울

사람아 사람아-신학철-안창홍의 그림 서민사 庶民史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2012

1980년대 인간전 그 이후 오늘의 동향전 정문규미술관, 안산

2011

코리안랩소디 삼성리움미술관, 서울

2010

한국모던아트의 물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아트 암스테르담 2010 암스테르담

예술가와 가족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09

괴물시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현대미술로 해석된 리얼리즘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인간의 거울-The Head 김스아트필드미술관, 부산

안창홍-김정옥 2인전 갤러리스케이프, 서울

2008

봄날은 간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7

도큐멘타 부산3-일상의 역사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6

상상의 힘-고려대학교 개교101주년 기념 제47회 고려대 박물관, 서울

한국현대미술 100년 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5

번역에 저항한다 토탈미술관, 서울

2004

당신은 나의 태양 : 한국미술 1960-2004년 토탈미술관, 서울

부산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3

그리는 회화-혼성회화의 제시 영은미술관, 경기, 광주

싸이코 드라마 성곡미술관, 서울

energe 프로젝트스페이스집, 서울

예술가의 술 이야기 사비나미술관, 서울

제1회 북경 비엔날레 북경

2002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3-집행유예 5.18자유공원, 광주

THE DOG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중 2002 새로운 표정 예술의 전당, 서울

2001

가족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미술2001 회화의 복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0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인간과 성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우리 모두 잘난 우리들의 상 세종문화회관 특별전시실, 서울  
한국의 화가 33인전 갤러리맥

1999

Figurescape: 6Artists from Korea Space Unlimited, 뉴욕, 미국  
창, 안과 밖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1999년의 자화상展 갤러리퓨전, 서울  
호부호형 아트선재센터, 서울

1998

부산미술 재조명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98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새천년의 빛-동방의 바람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Body in Painting 한림미술관, 대전  
현대 illusart 갤러리우덕, 서울  
입맞춤 갤러리사비나, 서울  
풍자와 해학 동아갤러리, 서울  
창-안과 밖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1997

미술관에 넘치는 유머 성곡미술관, 서울  
현대미술 '97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갤러리사비나 신년 특별기획 '소'전 갤러리사비나, 서울

1996

잃어버린 제국을 찾아서-실크로드 미술기행전 동아갤러리, 서울  
성즉리, 성즉음 동산방, 서울  
밤의 풍경 갤러리사비나, 서울  
동아시아 모더니즘과 오늘의 한국미술 원서갤러리, 서울

1995

해방 50년의 역사 한가람미술관, 서울  
1995 화상 10년의 눈, 화랑미술제 특별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부산사람 청화랑, 서울

자화상 스페이스월드, 부산

남산화랑개관1주년기념전 남산화랑, 부산

프리미티비즘전 모란미술관, 남양주

1994

민중미술 15년전: 1980-199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4~느티나무 아래의 열정 갤러리마담포라, 서울

한눈에 열손가락 스페이스월드, 부산

제2회 내일への 제안-차세대의 시각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자존의 길 금호갤러리, 서울

1993

신작초대전: 한국현대미술의 꽃 그림마당민, 서울

1993 삶과 오늘의 풍경전 갤러리마담포라, 서울

신작초대전: 한국현대미술의 꽃 그림마당민, 서울

1992

오늘의 삶 오늘의 미술 금호미술관, 서울

90년대 우리미술의 단면전 가람화랑·갤러리상문당·학교재·현화랑, 서울

오늘의 삶, 오늘의 미술-무의식과 욕망 금호미술관, 서울

민중대통령 후원을 위한 기금마련전 그림마당민, 서울

구상미술의 오늘-꿈과 현실의 대결 현대미술관, 서울

구상미술의 재조명-풍자화, 그 해석의 소리 현대미술관, 서울

1991

제1회 청담미술제 샵터화랑, 서울

한국현대미술의 한국성 모색3: 갈등과 대결의 시대 한원갤러리, 서울

인간, 7인의 시선 갤러리아미, 서울

1990

현실과 발언 10년전 그림마당민, 서울

1989

80년대의 형상미술전 금호미술관, 서울

부산, 80년대의 형상미술전 사인화랑, 부산

1988

88현존시각전 갤러리누보·사인화랑, 부산

80년대 한국미술의 위상전 한강미술관, 서울

1987

반고문 그림마당민, 서울

현존시각 사인화랑, 부산

1986

한강미술관 개관 2주년 기념: 우리시대의 초상 한강미술관, 서울

홍화랑개관기념 30대전 룩화랑, 서울

'86 인간전 동덕미술관, 서울

제6회 현실과발언 동인전 그림마당민, 서울

1985

한강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 어떤정신들전 한강미술관, 서울

서울미술관 개관 4주년 기념전 서울미술관, 서울

80년대 미술대표 작품전 인사동갤러리, 이화갤러리, 서울

1984

삶의 미술전 아람미술관, 서울

해방 40주년 역사전 부산 서울 광주

인간전 미술회관, 서울

제2회 시대정신전 부산 마산 서울

1983년 문제작가 작품전 서울미술관, 서울

부산미술 '70년대 다시 보고 싶은 작품 회화 사인화랑, 부산

제5회 현실과발언 동인전: 6.25 아람미술관, 서울

1983

서울미술관의 작가전: 서울의 봄 서울미술관, 서울

제3회 '젊은의식'전 관훈미술관, 서울

시대정신전 제3미술관

제4회 현실과 발언 동인전 관훈미술관, 서울

현실과 발언 판화전 한마당화랑, 서울

1982

한국현대미술 80년대 조망전 미술회관, 서울

상황과 의식 회화전 현대화랑, 부산

ART KOREA 인터콘호텔,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김응기·안창홍 맥화랑, 부산

82, 인간 11인전 관훈미술관, 서울

1981

POINT 초대전 현대화랑, 부산·아리화랑, 울산

그룹'농'81전 미술회관, 서울

방법전 미술회관, 우에노공원 도쿄도미술관, 도쿄, 일본



1980

국제화랑초대 현대미술 12인전 부산 국제화랑, 부산

동방미술회관 개관기념전 동방미술회관, 부산

18인의 회화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전시화랑기획 15인 초대전 전시화랑, 제주

회화 15인전 어린이회관, 춘천

1979

제2회 기류 칠십구전 공간화랑, 부산

한국미술 청년작가회전 서울, 춘천, 대구, 제주

36인의 방법전 미술회관, 서울

POINT.79전 로타리화랑, 부산

1978

국제화랑 개관기념초대전 국제화랑, 부산

제2회 부산현대미술전 시민회관, 부산

제4회 대구현대미술제 시민회관, 대구

POINT.78전 원화랑, 부산

1977

POINT.77전 현대화랑, 부산

제1회 기류전 현대화랑, 부산

1976

안창홍·정복수 2인전 현대화랑, 부산

## 수상

2013 제25회 이중섭미술상

2009 제10회 이인성미술상

2001 부산일보사 부일미술대상

2000 봉생문화재단 봉생문화상

1989 제21회 카누 국제회화제 특별상, 프랑스

## 평론

안창홍, 눈먼 자들, 최태만 국민대학교수, 미술평론가  
 고통으로 기록한 처절한 아름다움, 최태만 국민대학교수, 미술평론가  
 누가 몸의 진실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하라, 최태만 국민대학교수, 미술평론가  
 발:견/發:見, 이진명  
 불편한 진실을 둘러싼 세 이야기, 심상용 미술평론가, 서울대학교 교수  
 표정의 무대, 베레나 알 베스-리히터  
 안창홍의 사진\_회화, 고충환 미술평론가  
 안창홍 <생의 날 것을 담아낸 사진: 쿠리에서 고비까지>, 김미진 전시기획&비평  
 불편한 진실, 김미진 전시기획&비평  
 안창홍-똥의 분변학, 윤진섭 미술평론가  
 심연(深淵)을 들여다보다, 강수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나쁜남자의 순정, 강수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인간 새태를 바라본 냉소적 심리, 김해성  
 삶의 폭력성을 보는 두 시선, 성완경 작가, 인하대 미술과 명예교수  
 야만의 얼굴을 한 문화고발, 강성원  
 유혹의 그림, 그림그리기의 유혹, 심광현  
 안창홍-인간의 모든 상처와 고통, 박영택 경기대 교수  
 불편함의 성공 - 안창홍의 대형 흑백 누드, 성완경  
 익명의 개인에게 바치는 오마주, 우울하면서 따뜻한 사랑., 최태만  
 얼굴과 몸, 유령들 그리고 화가의 생애에 관한 얘기/성완경  
 퇴폐적 매력-그 쓸쓸한 시선 /박 석 태  
 얼굴, 시선의 장소들, 박영택  
 잔인한 4월 봄날은 간다 /심광현  
 안창홍의 세계- 도착과 죽음을 통해 재해석되는 현실/미술과 담론 2001여름  
 호, 김원방  
 독립생활자의 초상, 성완경  
 안창홍전-죽음의 콜렉션, 이선영  
 안창홍의 꽃- 이섭  
 권력의 파리떼, 그리고 예술의 똥, 박신의  
 죽음을 향한 질주 - 윤진섭-월간미술 1999.12월호  
 외면할 수 없는 이시대의 통증, 이주헌

육근병 1957~

전북 전주 출생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 전시이력

### 개인전

현재

UN 프로젝트 추진 중 UN빌딩, 뉴욕, 미국

2018

비디오 인스톨레이션-육근병: 생존은 역사다 아트선재센터, 서울  
현대미술사전, 7 키워드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6

육근병: Angelus Novus 갤러리JJ, 서울

판화 스페이스9, 서울

오디오 비주얼 설치-조용한 응시 한국문화원 베를린, 독일

페인팅+드로잉 갤러리JJ, 서울

2015

페인팅+드로잉 이유진갤러리, 서울

2013

사진&비디오 인스톨레이션-사운드 오브 사이렌스 표갤러리, 서울

사진&비디오 인스톨레이션-침묵의 흔적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2012

2012

오디오 비주얼 설치-비디오 크라시 일민미술관, 서울

2011

갤러리 이마주 서울

2005

사진&비디오 인스톨레이션 Kenzi Taki gallery, 도쿄, 일본

2003

페인팅&드로잉 갤러리 큐, 도쿄, 일본

2000

오디오비주얼-생존을 위한 꿈 국제갤러리, 서울

1998

국제갤러리 서울

1996

비디오 설치 & 드로잉 아트 프론트 갤러리. 도쿄. 일본

비디오 설치&드로잉 FIAC 국제화랑소속, 파리, 프랑스

1994

비디오 설치-아시아로부터의 순환세계 기린프라자, 오사카, 일본

1993

비디오 설치작업 빌라루피 갤러리, 함부르크, 독일

비디오 설치작업 조선일보미술관(올해의 젊은 작가 선정), 서울

## 단체전

2019

한국 비디오아트 7090: 시간 이미지 장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8

2018 천년전라기념 특별전-전라গুল기展 전북 완주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IAa International Inter-media Art Project <부재의 기술>, 예술공간 이아, 제주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1960~1980년대의 정황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2017

예술가의 증언 우양미술관, 경주

피시보(P-15) 엑스 갤러리 . 서울

바코드 양평 군립미술관, 양평

대구 인 .택트 대구아트센터, 대구

2016

부산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링크스 로칼리 엔 노마디즘 갤럭시현대미술관, 중국

2014

부산비엔날레-한국현대미술 비엔날레 진출사 50년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부산

2014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유네스코 등재 기념전 예술의전당, 서울

2013

아시아 코드-공(空) 소마미술관, 서울

교과서 속 현대미술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바람, 바람, 바람, 미술, 바람을 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2012

몸의 사유 소마미술관, 서울

SeMA 중간허리 2012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진.통. 199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중 수교20주년 기념 한국 현대미술 대표작가전 리부팅, 안향미술관, 베이징,  
 중국  
 2010  
 한국 현대미술 해외 진출 60년전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 서울  
 태극, 순환 반전의 고리전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한국드로잉 30년 소마미술관, 서울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태화강, 울산  
 젊은모색 1981-201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9  
 하비타트-예술에서 마음으로-밤 가나갤러리 서울옥션, 서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티스트전시 아오모리 현대미술관  
 일본 정체성V 니치도 현대미술관, 일본  
 2008  
 백남준 선생 가시고 365x2 이야기 한국미술관, 서울  
 프레 양평환경미술제2008 닥터박 갤러리, 양평  
 양평프로젝트-연기된 구름 닥터박 갤러리, 양평  
 2006  
 더 크리티크 아이 쿤스트렌딩, 아사하펜베르그, 독일  
 현대 파사티즘의 예술 마루노이치 2006, 도쿄, 일본  
 2005  
 사진&비디오 인스톨레이션 겐지다키갤러리, 일본, 도쿄  
 남남북녀전, 가나화랑포럼스페이스 서울  
 베이비 프로젝트 2002-2010 구마모토 현대미술관, 구마모토, 일본  
 2004  
 당신은 나의 태양전 토탈미술관, 서울  
 2003  
 갤러리큐 20주년 기념전 페인팅&드로잉 갤러리큐, 도쿄, 일본  
 윈스틸 / 커튼갤러리, 바르셀로나, 스페인  
 2002  
 에듀트2002-너의 마음 속 하나의 진실 구마모토 현대 미술관. 구마모토, 일본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봄 레지던스 프로그램 전시 ACAC 아오모리. 일본  
 컬러 오브 코리아 아이치 현대미술관, 나고야. 일본  
 한·일 현대 판화전 갤러리 오엠, 요코하마, 일본

2000

오디오비주얼 & 드로잉 커튼갤러리 미국, 벨지움

느림전 아트선재센터

Echigo-Tshumari art 트리엔날레 일본

Alienation and Assimilation 샌프란시스코, 미국

1998

느림 뉴스우스 웰즈 갤러리, 시드니. 호주

느림 빅토리아 갤러리, 멜버른. 호주

이화와 동화 시카고 콜롬비아 포토 미술관. 시카고. 미국

호랑이해에서 한국으로부터의 현대미술 하우스더 쿨투렌더 웰트, 베를린 . 독일

1997

파스트 포워드 파워어 프렌트 미술관, 토론토, 캐나다

1996

BY NIGHT 까르티에 파운데이션. 파리. 프랑스

불의 기원과 신화-일본, 중국, 한국의 새로운 예술 사이타마 현대미술관, 사이타

마, 일본

1995

리옹비엔날레 리옹현대미술관, 리옹, 프랑스

마음의 영역-1990년대 한국 예술 미토 아트타워, 미토시 일본

휴먼 콜러브레이션 일한 현대미술전-환류 아이치 현대미술관, 나고야, 일본

1994

육근병.미야지마 타스오 2인전-코스모비전 국제갤러리, 서울

앤솔로지 필립 아카이브 뉴욕, 미국

아시아의 창조력 히로시마 현대미술관, 히로시마, 일본

1992

카셀 도큐멘타(DOCUMENTA 9) 프리데리시아눔. 카셀, 독일

1990

동방으로 부터의 제안전 사가초 전시 공간, 도쿄, 일본

1989

베를린국제현대미술전 서베를린시립미술관, 베를린, 독일

SAO PAULO 비엔날레 리비에라 뿌에라, 상파울로, 브라질

1986

현대미술 동경전 우에노미술관, 일본, 우에노

## 작품소장

금호미술관  
 미납미야마 아트 오피스 빌딩 도쿄, 일본  
 일신방직  
 빌라루피갤러리 함부르크, 독일  
 국립현대미술관  
 선재미술관  
 동아미디어센터  
 전라북도미술관  
 진주미술관  
 아이치 현 대미술관 나고야, 일본  
 동승아트센터  
 현대백화점 신촌점 등

## 수상

2016 서울문화투데이 신문 글로벌 문화대상  
 2007 10회 일맥문화대상 문화예술상 수상  
 1997 ZKM 수상  
 1993 조선일보사 올해의 젊은작가상  
 1993 토탈 미술상  
 1993 예술평론가협회 최우수 작가상 미술부문  
 1993 한국미술기자협회 미술 기자상

## 행정경력

2007 일본 교토대 교수  
 2000-2004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등 역임



## 출판

2016 『Eye』 넥서스

2013 『Sound of Silence : Yook, Keun Byung』 표갤러리

## 평론

육근병 비디오 아트 세계: '눈 目'의 영역과 접신 接神 의 영역 사이,  
이인범 상명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육근병: Angelus Novus, 강주연 갤러리JJ 디렉터

Serene Record\_고요한 기록, 고연수

그림에 소리를 담다, 정영숙 갤러리세인 대표, 경희대 겸임교수

여 백

바깥미술회 1981~\_최운영 1953~

## 주요활동

### 단체전(정기전)

2020

바깥미술 두물머리展 순환의 땅 대지를 상상하다 두물머리, 양평

2019

바깥미술 두물머리展 두 강 꽃이 피다 두물머리, 양평

2018

바깥미술 두물머리展 서있는 강 두물머리, 양평

2017

바깥미술 두물머리展 두강이 만나다 두물머리, 양평

2016

대성리 바깥미술展 겨울 그리고 북한강 대성리, 가평

2015

대성리 바깥미술展 다시 바깥에 서다 대성리, 가평

2014

가평천 바깥미술展 물길 가평천, 가평

2013

자라섬 국제 바깥미술展 자라는 섬 자라섬, 가평

2012

자라섬 국제 바깥미술展 겨울 대지에 핀 꽃 자라섬, 가평

2011

자라섬 국제 바깥미술展 새 옵트다: Omni Vision 자라섬, 가평

2010

자라섬 국제 바깥미술展 화해, 그리고 은유의 숲 자라섬, 가평

2009

자라섬 국제 바깥미술展 씨알 하나 자라섬, 가평

2008

자라섬 바깥미술展 대지의 신명 자라섬, 가평

2007

자라섬 바깥미술展 섬, 또하나의 섬들 자라섬, 가평

2006

자라섬 바깥미술展 섬, 감추기, 드러내기, 잊게 하기 자라섬, 가평

2005

자라섬 바깥미술展 자연, 그 열림과 닫힘 자라섬, 가평

2004

바깥-북한강展 적응과 저항 사이 북한강 화랑포, 가평

2003

바깥-북한강展 넘치는 생명력, 삶의 물길 북한강 화랑포, 가평

1996-2002

바깥미술대성리展

1981-1992

겨울대성리展

## 기획전

2021

바깥미술 남한강展 생태문명으로 전환-대지를 상상하다 양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비밀의 숲 양강섬 일대, 양평

2020

바깥미술 남한강展 땅밖의 땅 양강섬 일대, 양평

2019

바깥미술 남한강展 부유하는 섬 양강섬 일대, 양평

2017

바깥미술 세미원展 두강이 만나다 세미원, 양평

2016

바깥미술 35년 아카이브展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5

바깥미술 서울대공원展 울타리 새로운 경계 서울대공원, 과천

2013

바깥미술 물길展 Water Route:Root 칼봉산, 가평

2002

바깥 난지도展 버려진 섬, 치유의 산 난지도 하늘생태공원, 서울

1999

제부도 갯벌에서의 바깥미술展 스스로 살아 숨쉬는 땅 제부도, 화성

1997

바깥미술 역사와 환경展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서울

바깥미술 양재展 서초 문화예술공, 서울

1996

바깥미술 천안展 태조산, 천안

바깥미술 남한강展 남한강, 여주

1994

남한강 24시展 신록사, 여주

1993

열린예술 신촌展 신촌, 서울

열린예술 남한강展 남한강, 양평

1985-1986

바깥미술 송내展 송내, 동두천

## 초대전

2018

경기 도큐페스타 &lt;경기 아카이브\_지금,&gt; 경기 상삼캠퍼스 입학입산학관, 수원

2007

경기1번국도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6

空-共, 경기문화재단 기획초대전 경기문화재단 전시실, 수원

2000

요꼬하마 국제 야외미술展 미도리공원, 요꼬하마

1999

일본앙데빵당展(바깥미술자료전 및 강연) 도쿄미술관, 도쿄, 일본

1991, 1995, 1998-2001

금강 국제자연미술展 금강, 공주산성, 원골마을, 공주

## 세미나 및 좌담회

2014-2019

바깥미술전 작가토론회(개별 전시현장)

2013

좌담회 김종길 가평읍사무소 세미나실, 가평

2012

좌담회 김종길 가평읍사무소 세미나실, 가평

2011

좌담회 고충환, 김경서, 김종길 가평읍사무소 세미나실, 가평

2010

좌담회 고충환, 김성호, 김종길 가평읍사무소 세미나실, 가평

2009

좌담회 김경서, 김종길, 이섭, 최운영 가평읍사무소 세미나실, 가평

2008

좌담회 김경서, 김인구, 김종길, 이명훈, 신명철 가평읍사무소 세미나실, 가평

2007

좌담회 김종길, 김준기, 김경서, 김성호 가평읍사무소 세미나실, 가평

2006

초청강연 고충환, 김경서, 김종길, 윤진섭 서울문화재단 세미나실, 서울

2002

초청강연 김경서, 임정희, 최광빈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세미나실, 서울

2000

초청강연 김열규, 김경서 대안공간 풀, 서울

1999

초청강연 김경서, 김인호 세종대학교 진관홀, 서울

1993

초청강연 김열규 서울

1991

초청강연 김열규, 김종주, 김영재 인사동 경인미술관, 서울

1988

초청강연 김열규, 박용숙 대성리, 가평

1986

초청강연 김열규 대성리, 가평

1981

초청강연 유준상, 김복영 대성리, 가평

## 워크숍

2019

바깥미술 남한강 여름 워크숍 남한강, 여주

2018

바깥미술 남한강 여름 워크숍 남한강, 여주

2015

바깥미술 글쟁이 마을 워크숍 평택

2014

바깥미술 영흥도 워크숍 영흥도, 인천

2012

바깥미술 춘당리 여름 워크숍 횡성

2011

바깥미술 춘당리 여름 워크숍 횡성

2008

바깥미술 춘당리 여름 워크숍 횡성

2006

바깥미술 남한강 여름 워크숍 Zein Art Space, 여주

2001

바깥미술 여름 워크숍-현장체험을 위한 연구 포천



이재삼 1960~

강원도 영월 출생

강릉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전시경력

### 개인전

2017

미메시스아트뮤지움 파주

2016

해움미술관 수원

MAD뮤지움 아트앤디자인 싱가포르

2015

신미술관 청주

두인갤러리 서울

롯데갤러리 서울

2014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2013

스페이스K 과천

유성갤러리이즘 대전

2012

영월문화예술회관 영월

2011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2010

장흥아트파크미술관 양주

2008

갤러리아트사이드 베이징

2007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2005

이영미술관 용인

2004

갤러리도올 서울

2003

갤러리도올 서울

2002

갤러리해피칼라 서울

갤러리우덕 서울

2001

갤러리라메르 서울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2000

포스코미술관 서울

갤러리아트사이드넷 서울

1999

환원미술관 서울

1996

조성희화랑 서울

1994

가인화랑 서울

1992

제3갤러리 서울

1990

수화랑 서울

1988

일갤러리 서울

## 단체전

2017

아트 센트럴 홍콩, 하버프론트

2016

흙과 불 서울 갤러리 그림손

Brand New7 유진갤러리, 서울

안산유람 단원미술관, 안산

이재삼·이재효 기획 초대전 내셔널공공미술관, 인제

2015

옆집예술-옆집에 사는 예술가 경기문화재단 G오픈스튜디오

컬러풀 경기도미술관, 안산

보고싶은 얼굴 이한열기념관, 서울

- 물도 꿈을 끈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 문화역서울284, 서울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청남대대통령기록관, 청주  
 2014
- 음풍농월-사군자 풍류에 물들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K-ART STAR ARTISTS 아라아트센터,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1주년 기념전 <정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MIX&MATCH  
 2013
- 기억으로부터의 풍경 스페이스벤, 서울  
 폭포의 시학 송원아트센터, 서울  
 이재삼-이재효2인전 <나무로써 나무로부터...> 정문규미술관, 안산  
 오늘의 진경 겸재정선기념관, 서울  
 대숲에 부는 바람-풍죽 광주국립박물관, 광주  
 2012
- 수창동에서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미술에 꼬리 물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1
- Korean Art Today 시드니 한국문화원, 호주, 시드니  
 2010
- 코리안 팝아트 에스빈아트플러스, 싱가포르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물아, 심수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9
- 우리들의 초상-삶의 표정, 시대의 표정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8
- Korean Artists Gallery Braunbehrens, 독일, 뮌헨  
 자연성과 신비성의 조화-어울림 신미술관, 청주  
 Meme trackers 송장미술관, 중국, 베이징  
 심층에서 표면으로 박수근미술관, 양구  
 양평현대미술제-소요유 마나아트센터, 양평  
 2007
- 그림보는 법 사비나미술관, 서울  
 My private collection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하이퍼리얼리즘 안과 박 갤러리LM, 서울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이음길 영은미술관, 경기 광주

2006

천년황금의 도시 경주 경주국립박물관·서울북촌미술관, 경주  
고요의 숲 남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집요한 그리기-내면적 사유 경기문화재단, 수원  
Simply Beautiful, Centre Pasqu'Art 스위스, 비엘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신소장품전2005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5

공주국제미술제 임림미술관, 공주  
전시기획자가 선정한 오늘의 작가전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서울  
The Face 영은미술관, 경기 광주  
가고픈 경기비경 경기도박물관·제비울미술관, 용인·과천  
장면.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4

Flower, Flows, Flowery 아티누스갤러리, 서울  
성서식물 그림 빛갤러리, 서울  
실존과 허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3

얼굴, 표정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02

삶의 표현-4개의 언어 갤러리라스트라다, 서울  
개 갤러리사비나, 서울

한·중-새로운 표정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미술 44개의 퍼즐 갤러리라메르, 서울

1999

뒤셀도르프 한국작가 특별전, Messe Dusseldorf Halle 독일, 뒤셀도르프  
아! 대한민국 갤러리상, 서울

1996

한국현대미술작가 Palau Marc, 스페인, 팔라우

1995

한국현대미술의 표현 매체-공간의 반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의 이미지 산드라하마드, 우즈베키스탄

시간의 거울 사계화랑, 서울

나혜석 현대미술제 경기도문화예술훈, 수원

북방8개국 우수 작가 초대전 서울 율현궁미술관, 서울

1994

6인의 작가 동호갤러리, 서울

1993

이재삼·조명식·최정열 3인전 가인화랑, 서울

1991

예꼴 드 서울 관훈미술관, 서울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 금호미술관, 서울

1990

포스트모더니즘 페스티벌 소나무갤러리, 서울

자유와 개방성-90년대의 미술 조망 경인미술관, 서울

3월의 서울 수화랑·관훈갤러리, 서울

1989

MIXED MEDIA 토갤러리, 서울

J.U.L.Y 갤러리한, 서울

한국현대미술-80년대의 정황 갤러리동숭아트센터, 서울

'89 청년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1988

현대미술-던져진 상황 청남미술관, 서울

'88 서울-세계 오늘의 미술 디자인포장센터, 서울

입체-6인의 시각 수화랑, 서울

새로운 정신-메일아트를 통하여 제3갤러리, 서울

양데빵당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5

양데빵당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상황, 현존, 수용성> 여의도미술관, 서울

이미지모색 후전화랑, 서울

높새 청년미술관, 서울

부산청년미엔날레 부산시민회관, 부산

'격'동인전 관훈갤러리, 서울

향방 윤꺄러리, 서울  
대한민국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4  
동시 관혼꺄러리, 서울  
1983  
중앙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경기문화재단 tvcast ‘옆집에 사는 예술가’ 이재삼 작가 오픈스튜디오  
2007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창작지원 선정  
2006-2008 서울 가나아트 장흥아트파크 아뜰리에 레지던시  
2003-2005 용인 이영미술관 아트스튜디오 레지던시  
2000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올해의 한국미술선

## 수상

2018 박수근미술상  
1988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1983 청년미술대상전 우수상

##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이영미술관  
한국야쿠르트  
강릉시청청사  
하나은행  
나이키청도연구소  
한샘

코오롱 본사  
골프존  
청남대역사박물관  
신미술관  
(주)뮤란

## 평론

심상적 이미지로서의 소나무와 매화, 폭포, 윤진섭 미술평론가  
「달빛이 편애하는 폭포」, 박영택 경기대 교수, 미술평론가



정원철 1960~

양평출생

독일 카셀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예술과 디플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전시경력

### 개인전

1985~2015

노릇노릇프로젝트 보고전-명사와 동사 사이의 아포리즘 17717, 서울

‘展示’展 혹은 ‘轉市’展 - 일곱 개의 삶 쿤스트 독, 서울

문명의 땅 민 아트갤러리, 크라이스트처치

접어들 수 없는 이야기 동산방화랑, 서울

extra Extras : 매우 특별한 조연들 갤러리 우덕, 서울

정원철 판화전 추계화랑, 서울

등 15회

### 단체전

2021

신비로운 블록버스터 판화의 세계: 나무, 그림이 되다 예술의 전당 서예관, 서울

2020

판화, 판화, 판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2019

피카소에서 김환기까지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8

다이얼로그: 북&아트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파주

판화하다 : 한국현대판화 60년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7

산수심원기 서호미술관, 남양주

달밤에 체조 17717, 서울

2016

지독한 노동 소마미술관, 서울

얼굴, 맞서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서울

2015

국토와 민중 해움미술관, 수원

제17회 사썰 국제판화비엔날레 사썰시립미술관, 사썰

노릇노릇프로젝트 보고전-명사와 동사 사이의 아포리즘 17717, 서울

2014

더 많이, 더 믿을만한 수원미술관, 수원

2013

멋진 판화: Cool Print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울

2012

진경-한국현대판화전 크라코프 국립미술관, 크라코프

1990

국제판화트리엔날레 독일, 후레헨

1989 한국현대미술전 멕시코국립현대미술관, 몬테레이미술관

1988

비평구상전, 파리 그랑팔레 미술관 프랑스, 파리

제3세계미술전 도쿄도미술관 일본, 도쿄

1987

한국형상미술제 한강미술제, 서울

1968-1988

국제판화비엔날레 타이페이

외 다수

## 프로젝트

2018 숲에 묻기 숲에 새기기 경기만 에코뮤지엄 완충녹지 '열두생길' 프로젝트, 시흥

2017 북아현 공공이사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미술프로젝트, 서울

2016 안산 숨은숨 전망대 서울은 미술관 '단한곳, 단한점'프로젝트 지명공모, 서울

2015 아시현 프로젝트 노마딕경기아트페스타2015-실신프로젝트 남·양·광·하, 양  
평)

2014 비단수레 000 프로젝트 유구문화예술마을만들기 프로젝트, 공주

2011 '꿈보다 해몽 공작소'프로젝트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서울

## 수상

- 1999 20세기 미술 속의 리놀륨 판화 - 아시아 지역 작가 선정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1999 고지 국제 판화 트리엔날레 - 4등상 고지, 일본
- 1997 '97 크라코프 국제 판화 트리엔날레 - 우수상 크라코프, 폴란드
- 1995 제21회 류블라나 국제 판화 비엔날레 - 일등상 류블라나, 슬로베니아
- 1994 제9회 서울 국제 판화 비엔날레 - 우수상 동아일보사 주최, 서울
- 1992 비이틱하임 비췁엔시(市) 판화상 : 오늘의 리놀륨 판화전 - 2등상  
비이틱하임 비췁엔시 주최, 독일

##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시립미술관
- 대전시립미술관
-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광주
- 중국국립미술관 베이징, 중국
- 비이틱하임 비췁엔 시립미술관 비이틱하임 비췁엔, 독일
- 이노 조 종이박물관 고지, 일본
- 기을시립미술관 기을, 헝가리
- 코브라 미술관 암스텔빈, 네덜란드
- 일리노이 홀로코스트 미술관 시카고, 미국

## 기타이력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위원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진 '아르떼365' 편집위원

이영섭 1963~

경기도 여주 출생

강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전시경력

### 개인전

2021

1883 모던인천 특별전 인천

갤러리 마리 서울

국제 호텔 아트페어 이영섭 초대전 대구

2020

신전 뮤지엄 오픈 기념 초대전 대구

2019

갤러리 마리 서울

갤러리 희 양산

갤러리 예동 부산

2018

통도사 유네스코 등재 기념 특별 초대 전시회 양산

2017

갤러리 마리 서울

갤러리 전 대구

갤러리 위 서울

2016

갤러리 마리 서울

스페이스 나무 양재 서울

2015

스페이스나무 양산

갤러리 예동 부산

2013

갤러리 예동 부산

소아암환우돕기 자선전시 부산 / 갤러리 예동, 소중한눈안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2012

갤러리 전 대구

2011

정소영 갤러리 서울

2007

박수근 미술관 양구

대안공간 눈 수원

2005

박여숙 화랑 서울

2002

박여숙 화랑 서울

2000

박여숙 화랑 서울

1998

토.아트 스페이스 서울

1997

토.아트 스페이스 서울

1996

경인미술관 서울

## 단체전

2021

DMZ 아트프로젝트-다시 평화 보고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아름다운 발견, 위대한 탄생 세미원, 양평

Let's DMZ 아트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파주

2020

QtFox 우주展 상상공학원

2448 문파인아츠 2인전 서울

Sees A Soul OMV, 평창

불교의 향기 동덕 아트 갤러리, 서울

리얼리즘 오늘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2018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도미술관 특별전<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

퍼스 입학임산학관, 수원

갤러리 마리 단체전 갤러리마리, 서울

2016

갤러리 예동 자선 전시 갤러리 예동, 부산

2015

갤러리 예동 자선 전시 갤러리 예동, 부산

2014

GF4D Giving Back Art & Design 부산  
 ‘The Art of Giving’ 나눔의 예술전 갤러리 예동, 부산

2013

문화 나눔 아트 프로젝트 갤러리 서종, 서울

2012

청담 갤러리 2인전 대구

2010

경기도의 힘전 경기도 미술관, 안산

2009

이천 도예 비엔날레 이천

2007

GAF,2007 원주문화원, 원주

2005

모란을 거쳐간 사람들전 모란미술관, 남양주

2004

기전미술 Art&Critic 24pair 경기문화재단

선화랑 100인전 선화랑, 서울

2003

헤이리 페스티벌 특별 후원전 박여숙 화랑, 서울

2002

대한민국 미술축전 예술의 전당, 서울

우리 얼굴전 신도리코 문화공간, 서울

2000

경기 중견 작가 초대전 수원문예회관, 수원

춘천 MBC 조각 초대전 춘천 MBC, 춘천

여주 미술협회전 여주 군민회관, 여주

‘숲과 마을’ 미술축전 산아리, 원주

東江 현대작가 초대전 영월 문화예술회관, 영월

1999

Welcome 2000-우리다운 형상 조각전 토. 아트스페이스, 서울

1998

여주 미술 협회전 여주 군민회관, 여주

현대 30대 작가 초대전 영월 문화예술회관, 영월



1997

미술·생활연출전 현대 아트갤러리, 서울  
대화/공간-조각전 올림픽 공원

1996

생활 속의 소품전 춘천 미술관, 춘천  
남한강 미술제 여주 군민회관, 여주  
수원 조각회전 수원 문예회관, 수원  
작업실 3인전 장안 미술관, 서울  
수원 환경 미술제 수원 문예회관, 수원  
춘천 MBC 조각 초대전 춘천 MBC, 춘천

1995

프리미티비즘전 모란 미술관, 남양주  
나해석 미술제 수원 문예회관, 수원

1994

한국 도조의 지평전 동아갤러리, 서울  
도깨비 해석전 서남미술관, 서울  
오늘의 지역작가전 금호갤러리, 서울  
새로운 전망전 모란미술관, 남양주

1993

지금 東의 夢전 수원 문예회관, 수원  
국제 교감 예술제 수원 문예회관, 수원  
비무장지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성-그 변용과 가늠전 1994-1997  
조각회 嶺전 1997-2000  
Com-Art 그룹전

## 조형물 설치

명성황후 추모비 명성황후 생가  
원명스님부도탑-비  
낙산공공미술 프로젝트  
해인사 일타스님 부도탑-비

##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모란미술관

아주미술관

이재호 1965~

경상남도 합천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전시이력

### 개인전

2018

47회 개인전 모란미술관, 남양주

2017

46회 개인전 소향갤러리, 부산

45회 개인전 Pontone Gallery, 영국, 런던

2016

44회 개인전 Madison Gallery, 미국, 샌디에이고

43회 개인전 성남아트센터, 성남

2015

42회 개인전 M Art Center, 중국, 상해

41회 개인전 소향갤러리, 부산

2014

40회 개인전 표갤러리, 서울

39회 개인전 Albemarle Gallery, 영국, 런던

38회 개인전 객주문학관, 청송

37회 개인전 분도갤러리(대구)

36회 개인전 M Art Center(Shanghai)

35회 개인전 HADA Gallery(London)

2013

34회 개인전 Ever Harvest Art Gallery, 대만

2012

33회 개인전 Madison Gallery, 미국, 샌디에이고

32회 개인전 Albemarle Gallery, 영국, 런던

31회 개인전 박여숙 갤러리, 서울

30회 개인전 도시갤러리, 부산

29회 개인전 HADA Gallery, 영국, 런던

28회 개인전 성곡미술관, 서울

27회 개인전 Cynthia-Reeves Contemporary, 미국, 뉴욕

2011

26회 개인전 Albemarle Gallery, 영국, 런던

25회 개인전 Galeria Ethra, 멕시코

- 24회 개인전 Galerie Noordeinde, 네덜란드
- 23회 개인전 몽고메리 미술관 특별전, 미국 몽고메리  
2010
- 22회 개인전 윤갤러리, 서울
- 21회 개인전 Albemarle Gallery, 영국, 런던
- 20회 개인전 남포 미술관, 고흥
- 19회 개인전 Kwai Fung Hin Gallery, 홍콩
- 18회 개인전 Cynthia-Reeves Contemporary, 미국, 뉴욕  
2009
- 17회 개인전 Gallery Sol Beach, 양양
- 16회 개인전 Ever Harvest Art Gallery, 대만
- 15회 개인전 금산갤러리, 일본, 도쿄
- 14회 개인전 Albemarle Gallery, 영국, 런던  
2008
- 13회 개인전 마나스 아트센터, 양평
- 12회 개인전 분도갤러리, 대구
- 11회 개인전 도시갤러리, 부산
- 10회 개인전 REEVES Contemporary, 미국, 뉴욕  
2007
- 9회 개인전 금산갤러리, 일본, 도쿄
- 8회 개인전 아트사이드, 중국, 베이징
- 7회 개인전 금산갤러리, 파주  
2006
- 6회 개인전 마린갤러리, 부산  
2005
- 5회 개인전 아트사이드, 서울  
2003
- 4회 개인전 갤러리 윈, 서울  
2001
- 3회 개인전 Vermont Studio Center, 미국  
2000
- 2회 개인전 일민미술관, 서울  
1996
- 1회 개인전 예술의전당, 서울

## 단체전

2018

Art & Design 2018 ‘The Scent of Wood’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Korean Contemporary 오페라갤러리, 서울  
 Infinite Grace’ Waterfall Mansion, 미국, 뉴욕

2017

과학 예술 2017:탄소’展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Color Spectrum’-섬展 유리섬백아트미술관, 안산  
 조각의 미학적 변용展 모란미술관, 남양주  
 Wood Works Today 김중영미술관, 서울

2016

이재효·이재삼 기획 초대전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인제  
 2015

광복 70주년-뉴욕전 Waterfall Mansion, 미국, 뉴욕  
 자선특별전 I Dream 예비뉴엘 아트홀, 서울

2014

2014정신국제불조각축제 삼탄아트마인, 정선  
 The Nature 시안미술관, 영천  
 Creation 삼탄아트마인, 정선

2013

이재효·최성필 2인전 오페라갤러리, 두바이  
 이재효·이재삼 2인전 정문규미술관, 파주  
 오마주-김환기를 기리다 환기미술관, 서울  
 신 소장품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교과서 속 현대미술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대만국제조각심포지움 대만, 카오슝

2012

사막 프로젝트 인도, 자이푸르  
 Korean Eye Saatchi Gallery-London, 영국, 런던  
 Aqueous Albemarle Gallery-London, 영국, 런던  
 광주 시립 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광주시립미술관, 전남 광주  
 A Magic Moment Basel Art Center, 홍콩  
 Water HADA Gallery, 영국, 런던

2011

움직이는 예술마을 남포미술관, 고흥  
고텐야마 전 Ippodo Gallery, 일본, 고텐야마

2010

서울 미술 대전-한국 현대조각 2010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G20 서울 정상 회의 기념-한국미술 특별展 국회도서관, 서울  
Art Docking Spot 우명미술관  
홍익조각회 특별전 인천 트리엔날레 밀라노 특별 전시관  
이재효·이정웅 2인展 비컨갤러리, 서울  
Arcades Project 인터알리아 갤러리, 서울  
다중효과 갤러리인, 서울  
젊은모색 1981-201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Arts and Crafts Collaboration 이천도자기센터, 이천

2009

한국-싱가폴 조각展 싱가포르-보테닉 가든  
양평환경미술제 2009 양평군 강하면 일대  
Yves Saint Laurent처럼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넵스페이스 개관전- Mad for furniture Nefspace, 서울  
한국인의 미학展 Albemarle Gallery, 영국  
황소 걸음 장은선갤러리, 서울  
손길의 흔적 현대갤러리, 서울

2008

재생:일상을 되 섞기 Museum of Art&Design, 서울, 뉴욕  
대만 국제 나무 조각展 삼의국제조각, 대만  
Art Square 개관 기념展 두산건설 가양갤러리, 부산  
한국공간디자인문화제展 구 서울역사, 서울  
2008 찾아가는 미술관: 과학정신과 한국현대미술전 국립현대미술관  
제1회 컨템포러리 네오 메타포 2008展 인사아트센터, 서울  
부산 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展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창원 아시아미술제 창원성산아트홀, 창원  
Circle & Square 앤갤러리, 성남

2007

오색의 공간 그리고 나 모란미술관, 남양주  
이재효·박승모·최태훈 3인展 마나스 아트센터, 양평

- 점으로부터 점으로 환기미술관, 서울  
 Tuning Boloni Boloni 사육, 중국, 베이징  
 2006
- Simply Beautiful Centre Pasqu Art, 스위스, 비엘  
 EHS Project-청계천이 흐르는 감성공간 청계천, 서울  
 일상의 연금술展 뉴질랜드  
 이재효·최태훈 2인展 EBS Space, 서울  
 2005
- 울림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서울  
 대지진 부흥 10주년 기념 국제 회화展 일본 효고 현립 미술관, 일본  
 미술과 수학의 교감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04
- 정지와 움직임展 서울올림픽미술관, 서울  
 임진강展 임진강변  
 일상의 연금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2003
- 불혹의 신예들 모로갤러리, 안동  
 나무로부터 김중영미술관, 서울  
 나무조형展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아트벤치展 아트사이드, 서울  
 Benchmarking Project 남산공원, 서울  
 2002
- 무당개구리의 울음 예술의전당, 서울  
 2002
- 들목회 갤러리아지오, 양평  
 저절로자연되기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01
- 이재효·한생곤 2인전 부산 롯데호텔, 부산  
 수목금토生展 인사아트센터, 서울  
 새로운 아틀란티스의 꿈 부산시립미술관



## 수상

2005 일본 효고 국제회화 공모전 우수상

2002 우드랜드 조각상

2000 김세중 청년 조각상

1998 오사카 트리엔날레 조각 대상

##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모란미술관

일민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63빌딩

오사카현대문화예술센터

일본 효고현립미술관

위커힐호텔 서울

메리어트호텔 서울

부산대학교 병원 양산

롯데 잠실 웰빙센터 서울

IFC 여의도 호텔 서울

쌍용 도림동 빌딩 서울

대구은행 제2본점 대구

제주 신화호텔 제주

롯데 월드 타워 서울

MGM Hotel 미국

Intercontinental Hotel 스위스

Briton Place-UMU Restaurant 영국

Sculpture in Woodland 아일랜드

Grand Hyatt Hotel 대만

Park Hyatt Hotel Washington D,C 미국USA

Cornell University Herbert F. Johnson Museum 미국

Grand Hyatt Hotel Berlin 독일

President Wilson Hotel [스위스](#)  
 Borgata Hotel [미국](#)  
 Park Hyatt Hotel Shanghai [중국](#)  
 Phoenix Island [제주도](#)  
 Industrial Bank [대만](#)  
 Crown Hotel [호주](#)  
 Park Hyatt Hotel Zurich [스위스](#)  
 Echigo-Tsumari Art Triennial [일본](#)  
 EMAAR Building [두바이](#)  
 Park Hyatt Sanya Resort [중국](#)  
 Art Sella 조각공원 [이탈리아](#)  
 Flamingo Resort [베트남](#)  
 Gothenburg Botanical Garden [스웨덴](#)  
 Herno S.P.A [이탈리아](#)

## 평론

자연으로부터 추출해낸 원형 原形 적 형상, 고충환 미술평론가

김용철 1966~

서울 출생

중앙대학교 일반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추계예술대학교 졸업

## 전시이력

### 개인전

2020

선을 잇다 양평군립미술관 컨테이너 아트랩, 양평

2018

사용된 꿈 전 은평문화재단, 은평

채집풍경-선을 잇다 전 이중섭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제주

2015 선을 잇다-김용철 개인전 이중섭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제주

2014 채집풍경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두드림do dream-꿈을 두드리다 수원시 어린이미술체험관 풀잎, 수원

기후변화 홍보관 개관 초대전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원주

2006

Blossom. child . flower. human -‘피어오르다, 아이 꽃. 사람’ 갤러리 환, 서울

2005

꽃을 그리다 갤러리 이즈, 서울

2002

소호 앤 노호갤러리 하남

김용철展 갤러리 서중, 양평

2001

김용철 개인展 관훈미술관, 서울

서호갤러리 서울

1998

다다갤러리 서울

1997

관훈미술관 서울

1996

나무화랑 서울

### 단체전

2021

대지를 상상하다 양강섬, 양평

DMZ이후, 대지의 숨결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오늘은 월차 한강뮤지움, 남양주

비확정 매뉴얼: 드로잉 시점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20

ART VIRUS 20 갤러리 거인의 정원 제주

ART VIRUS 20 스페이스 바나나 프로젝트, 대구

ART VIRUS 20 경민현대미술관, 의정부

ART VIRUS 20 공예미술관 보임센, 담양

THE ART POWER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9

장난감의 반란전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청주

평화의 꿈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

위대한 탄생 여수예술마루, 여수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 고양

쓸데없어도 괜찮아 인천서구문화회관, 인천

2018

예술정거장 프로젝트 underground on the ground 인천시청역, 인천

"Echt Alt- original old" 국제 업사이클링전 독일 라이프치히시,

Kunstkraftwerk

경기도미술관 특별전 <경기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플라스틱 생물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반짝반짝 고물상 기당미술관, 제주

풍경 한조각 구름 한조각 제주인메거진 탐동스토어, 제주

2017

오아시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친구의 발견 헬로우뮤지움, 서울

이것이 두폭화이다 경제정선미술관 작은미술관, 정선

지구를 지켜라 수원시 미술전시관 어린이 생태체험관, 수원

토이스토리 광명시 업사이클링아트센터, 광명

세계전기차 엑스포 제주 여미지식물원, 제주

서귀포 교육발전기금전 기당미술관, 제주

2016

옆집예술가 김씨의 아트박스 북한강 갤러리, 남양주

사용된 꿈 서울에니메이션센터, 제주

평화, 슬픔에 핀 소망의 꽃 제주4.3 평화기념관, 제주

로봇-트랜스포머 광명동굴 업사이클링 아트센터, 광명  
 두드림-사용된 꿈에서 새싹의 탄생을 꿈꾸다 서울혁신파크, 서울  
 2015

아일랜드 유목민 이중섭미술관, 제주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전 이중섭미술관, 제주  
 제주산수-그리다 기당미술관, 제주  
 꿈꾸는 보따리전 서귀포시 기당 미술관, 제주  
 2014

노마딕레지던시 이란전 테헤란 이란 국립예술원, 이란, 테헤란  
 양평환경미술제-집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태백 구와우, 태백  
 갤러리스밥 5주년 기념전 갤러리스머리국밥, 양평  
 2013

양평의 미술가들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2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융합(convergence)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후에 국제 아트페스티벌 베트남 후에궁, 베트남, 후에  
 한-독 문화교류전<Change-Exchange>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Family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 레지던시

2014 이란 노마딕 국제교류레지던시  
 2015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 저서

2014 『선을 굶다』, 굿 플러스북

## 작품소장

국립 현대 미술관 미술은행  
양평 군립 미술관  
이란 국립예술 아카데미  
이중섭미술관  
국립교통재활병원

## 공공프로젝트

예술정거장 프로젝트 underground on the ground - 인천시청역  
양평환경미술제-시장에서 길을 찾다- 조형물제작  
갤러리 아신-달리는 선물기차 조형물제작  
양평 전통시장 라온광장 조형물제작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벽화제작  
양평환경미술제 설치 조형물-사용된 꿈\_바람을 타는 양탄자 제작설치  
제주 월림리 마을창고 벽면 조형작업 참여.  
서귀포시 효돈동 연합청년회와 함께하는 하효항 벽화제작  
서귀포시 동홍동 사옥 벽화제작  
서귀포시 동홍동 청년회의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벽화제작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3리 벽화사업  
서귀포시 영천동 마을 미술벽화제작

여 백



김나리 1967~

경남 밀양 출생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졸업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전시이력

### 개인전

2021

눈물 봄 파머스가든 갤러리, 경기도 양평

2017

길을 찾다 갤러리 회, 경상남도 양산

2014

너에 대한 생각-부서지기 쉬운 갤러리 회, 경상남도 양산

2010

N을 위한 悲歌 이목화랑, 서울

2008

살아있는 것의 슬픔 웨이방갤러리, 서울

2000

1회 개인전 불암갤러리, 서울

### 단체전

2021

한글, 공감각을 깨우다 사비나미술관, 서울

예술가로 사는 것 포스코미술관, 서울

2020

나 자신의 노래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8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도 상상캠퍼스, 수원

2017

‘낮섬, 낮익음’ 김나리·정정엽 2인전 경기문화재단 로비갤러리, 수원

‘낮선 얼굴’ 강경구·안창홍·김나리 3인전 갤러리 룩스, 서울

2016

‘돌연: 이해에 대한 갈증’ 김나리·이효연 2인전 갤러리 아트비엔, 서울

2014

제3회 한독문화교류전 양평군립미술관, 경기도 양평

2011

이웃한 방식 닥터박갤러리, 경기도 양평

2010

말없는 바람 지비잉갤러리, 서울

2000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인간의 숲, 회화의 숲' 광주광역시

## 수상

200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도자센터, 경기도 이천

1999 서울현대도에 공모전 프레스센터, 서울

199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예술의 전당, 충청북도 청주

##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사비나미술관

구삼미술관

강원 고성군 아트호텔

## 평론

살아있는 것의 슬픔, 최태만 미술평론가, 국민대 교수

김나리-망실된 얼굴에 바치는 헌사, 박영택 미술평론가, 경기대 교수

부서지기 쉬운 너를 감싸 안은 단단한 마음, 황정인 독립큐레이터

김나리의 작품 앞에서, 홍순명 작가

여 백

김창환 1969~

양평 출생

경원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각과 졸업

경원대학교 환경 조각과 졸업

## 전시이력

### 개인전

2013

철근전 영은미술관, 경기광주  
김창환초대전 롯데갤러리, 서울본점

2011

김창환 초대전 잠실롯데호텔, 서울  
Swimming in SSamzigil 잠지길, 서울  
유영 한전아트센터, 서울

### 단체전

2021

지속가능한미술관-미술과 환경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19

달성대구현대미술제 달성군 디아크, 대구시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창원 성산아트홀, 창원시  
뮤지엄그라운드 개관 초대전 뮤지엄그라운드, 용인시  
납작한 가장자리 대청호미술관, 청주시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영상전 금강자연비엔날레전시관,공주시  
Hommageto Posco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7

소마미술관야외조각프로젝트 S 소마미술관, 서울  
야외조각전 북서울시립미술관등나무공원, 서울

2016

꿈과 일상전 양평군립 미술관, 양평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야외조각 프로젝트 대청호미술관, 청주  
움직이는 미술관 내설악미술관, 인제

2015

광화문 솜사탕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 포항시립미술관, 포항시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가평군이 반영된 설치미술 가평군. 자라섬  
 2014  
 두드림미술관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  
 from now 성남아트센터, 성남  
 물 - 천진난만 소마미술관.서울  
 바캉스시티미술관 신세계갤러리. 인천  
 storage space-또 다른 기억 맥아트미술관, 대부도유리섬  
 2013  
 fubon art foundation 초대전 fubon art foundation. 대만 타이페이  
 이야기하는 사물전 광주 신세계갤러리, 광주점  
 평창비엔날레 평창알펜시아 리조트. 평창  
 토끼와 거북이전 양평미술관, 양평  
 서울국제조각페스타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2  
 서울컨템포러리 아트스타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서울모던아트쇼 at센터, 서울  
 from now - part2 비전타워갤러리, 성남  
 서울국제조각페스타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1  
 양평군립미술관 개관전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금강자연비엔날레 프로젝트전 금강자연비엔날레전시관, 공주  
 from now 성남아트센터, 성남  
 2009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울  
 2005  
 takeout sculpture 갤러리 큐브, 인사동  
 2004  
 서울외곽순환로전 경기문화재단, 수원  
 2002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동물원에 가다전 덕원미술관, 서울  
 경기미술대전 경기문화예술회관, 수원  
 청년작가 야외조각전 월드컵 조각공원, 수원

2001

야외조각대상전 **홍익대학교, 조치원**  
 단원조각공원초대전 **단원조각공원, 안산**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0

단원미술대전 **단원미술관, 안산**

## 레지던시

2013 영은미술관 레지던시

## 수상

2011 한전아트센터 전시기획공모당선  
 2009 대한민국 미술대전 최우수상  
 2004 경기문화재단 아트센터 전시기획공모당선  
 2003 부천시 문화산책공원 조형예술작품공모 입선  
 2002 경기미술대전 특선  
 2002 청년작가 야외조각공모 입선  
 2001 홍익야외조각 대상전 특선  
 2001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000 단원미술대전 특선

## 작품설치 및 소장

한국미술협회  
 수원 월드컵 조각공원.  
 도봉산역 도봉 파크빌.  
 문화 산책 공원 **부천시**  
 해태크라운  
 영은미술관  
 서울상상나라



## 평론

유영, 욕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에의 의지, 최태만 미술평론가, 국민대 교수  
유동 流動의 철선-기억의 소환 형의 유영-김창환 작품에 투영된 미적 알고리즘 분석, 홍경한 미술평론가

여 백

천대광 1970~

서울출생

마이크와 디역 뢰버트 교수에게서  
마이스터 솔러, 뤼스터, 독일  
뤼스터 쿤스트 아카데미 졸업, 독일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전시이력

### 개인전

2022

천대광 개인전 호리 아트 스페이스/AIF 라운지, 서울(예정)

2021

집우집주/MMCA 청주 프로젝트 2021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청주  
FRAME - 틀 없는 틀 닷 미술관, 경기도 광주

2020

공간실험-해발 35M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9

수미산에서 바라본 풍경 갤러리 담담, 독일 한국 문화원, 베를린, 독일

2016

공허한 빛의 파장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2014

아이소핑크 Nr.1 스페이스K, 과천

2013

건축주제전 “감각의 구축”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1

공간 읽기 스페이스 캔, 서울

어둠의 기억들 경기창작센터 전시장, 안산

2010

풍경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2009

격자무늬터널 브레인 팩토리, 서울

2008

뒤틀린 공간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2007

공간 속의 공간 갈러리아누아, 보쿰, 독일

2006

왕은 그 노화가의 손에 이끌려 그의 그림 속으로 사라졌다. 윈스터, 독일

2005

바씨, 바움, 포이어 들멘 자연 공원, 독일

2003

다스 오이쎬레 데스 인너렌 베베어가 파빌롱, 뮌스터, 독일

## 단체전 및 공공프로젝트

2021

집으로, 길 위에서Zuhause-Unterwegs 하우스 데어 쿤스트 에니거, 독일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 의왕

2019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6 APAP6 안양예술공원, 안양

2018

환상벨트 프로젝트 돈의문 박물관 마을, 서울

경기 도큐페스타 경기도미술관 특별전<경기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임  
학암산학관, 수원

서울시공공미술프로젝트/퍼블릭x퍼블릭, 광화문광장, 서울  
경주국제레지던시아트페스타, 황룡사역사문화관, 한수원, 경주

2017

공사구간프로젝트, 서울디자인재단, 서울

2016

산책자의 시선/생생화화, 경기도미술관, 안산

어느 곳도 아닌 이곳, 소마미술관, 서울

2015

물도 꿈을 꾸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SOMA 야외프로젝트, 소마미술관, 서울

건축가로서의 예술가(UN)MÖGLICH! 마르타헤르포르트미술관, 헤어포트, 독일  
송도아트시티프로젝트 송도, 인천, 한국

2014

창원조각프로젝트2014 돌섬, 마산, 한국

2013

홍티둔병 다대문화공원, 부산, 한국

엠서쿤스트 2013, 프로젝트 “Die Sternfahrt” 오버하우젠, 독일  
탐하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2

태화강 국제 설치 미술제 울산

2011

유주의 삶, 경기창작센터 지역협력프로젝트 안산  
 THINK OF SARUBIA 2010 가나 컨템퍼러리, 서울

2010

오픈스튜디오 2010 경기창작센터, 안산  
 유원지에서 생긴 일 경기도미술관, 안산  
 장마다방, 논밭예술학교 프로젝트 헤이리, 파주  
 지구를 지켜라 금호미술관, 서울

2009

오픈 스튜디오 part1,2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2008

레이어 원 아트 스페이스 비움, 안산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08 잠실종합운동장, 서울  
 호퍼+비트리넨+쿤스트+프로젝트 호퍼 호텔, 쾰른, 독일

2007

리히트 마크트 2007 베역카멘, 독일  
 의재 공공미술프로젝트 2007 광주  
 쿤스트 폰크테 뒤셀도르프, 독일

2006

마이스터 클라쎄 마이크 운 디억 뢰버트 겔젠크르헨 시립 미술관, 독일

바쎄 베어케 2006 코오스펠트, 독일

쿠어하우스, 비스바덴어 쿤스트 줌머 2006 독일

의재 레지던시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의재 미술관, 광주

창문 아트 페스티벌 2006 창문 아트 벨리, 화성, 한국

메모리 비스바덴 미술협회 전시장, 독일

부억 인 엡슈타인 타우누스 캠프 플라츠, 오버요드슈타인, 독일

굿튼 모르겐, 굿튼 탁, 굿튼 아벤트, 굿테 낙흐트! 호프하임 박물관, 독일

부억 인 엡슈타인 타우누스 캠프 플라츠, 오버요드슈타인, 독일

후르띠 빼 두띠 빌라로마나, 피렌체, 이탈리아

오픈 스튜디오 2006, 슈파이서 II 윈스터, 독일

2005

압게파렌! 링겐 시립 미술관, 독일

오픈스튜디오 2005 슈파이서 II, 윈스터, 독일

디 크로이츨 KX 시립 미술관, 함부르크, 독일

퍼더프라이스 2005 윈스터 시립 현대 미술관, 윈스터, 독일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005 APAP1 안양아트벨리, 안양  
 피라미드의 재발견 경기아트센터, 수원  
 2004  
 프로인트 샤프트 슈필 미마 지난 자나틀러 대학 전시실, 이스탄불, 터키  
 임 보르트 아포스텔 교회, 윈스터, 독일  
 오픈 스튜디오 2004 슈파이서 II, 윈스터, 독일  
 쿤스트 줌머 2004 마이스터 쉐러전 오버하우젠, 독일  
 쿤스트 줌머 2004 학생전 오버하우젠, 독일  
 지아르디노 클로스터 벤틀라게, 라인에, 독일  
 운튼 두르히, 윈스터 랑에 나크트 무제움 2004 윈스터, 독일  
 공공미술 프로젝트 2004 츠비셴바췌, 바타이블링, 독일  
 프론도! 빌라로마나, 피렌체, 이탈리아  
 2003  
 쿤스트 아카데미 MS x 4 갤러리 윈스터란트, 엠스데튼, 독일  
 2002  
 마이스터 쉐러 인 베스트 펠리켄 술뢰췌렌 2002 베어카멘/하일, 독일

## 수상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9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가해외레지던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에너지 아트 레지던시 에너지, 독일  
 2017 공유도시 프로젝트 지원공모 당선 서울 디자인 재단, 서울  
 2017 중견작가 작품집 지원공모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6 문예진흥기금 전문예술 창작지원 경기문화재단, 수원  
 2013 아르코 공공예술아이디어공모 당선 서울  
 2012 스페이스캔 레지던시 입주작가 베를린, 독일  
 2011 경기창작센터 지역협력 프로젝트 기획안 당선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2010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선정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2008 2010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전시공모 당선 서울  
 2008 2009 브레인 팩토리 전시공모 당선 서울  
 2008 고양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08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기단 프로젝트 공모당선 서울  
 2008 문예진흥기금 개인전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 2006 의재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 광주  
 2006 Holz Bildhauer Symposium 2006 참여 작가 선정 옹슈타인, 독일  
 2005 DAAD Stipendium fuer Examensausstellung 뮌스터, 독일  
 2005 Förder Preis 2005, 대상 뮌스터, 독일  
 2004 Jahressbuch der Kunstakademien 2003, 독일 최우수 학생 작가들에 선정  
 2004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작가 선정 파리, 프랑스  
 2004 Speicher II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 선정 뮌스터, 독일  
 2004 DAAD Stipendium fuer Studierende 뮌스터, 독일  
 2003 Reisestipendium Kunstakademie in Muenster 피렌체, 이탈리아

## 평론

- 짓고 일으키는, 집 우주 집 주宙 천대광 공간미학, 김종길 미술평론가  
 틀 없는 틀, 이관훈 큐레이터  
 공간읽기-천대광, 박신영 큐레이터



이소연 1971~

경기도 안성 출생

마이스터 술러, 윈스터, 독일

윈스터 쿤스터 아카데미 졸업, 독일

수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 전시이력

### 개인전

2019

파자마시리즈 조현갤러리 해운대, 부산

검은숲 조현갤러리, 부산

2014

잉어 쿤스트하우스에쎄 에쎄(독일)

암 루스트 가르텐 1번지 조현갤러리, 부산

2013

자브라이예의 언덕에서 스페이스K, 과천

2012

나의 정원 카이스갤러리, 홍콩

2011

사슴숲 조현갤러리, 서울

2010

어둠을 기억하라 카이스갤러리, 서울

2009

Spring fever 테라도쿄, 도쿄, 일본

콘라트 갤러리 뒤셀도르프, 독일

2008

Insulted Anchises 카이스갤러리, 홍콩

2007

콘라트갤러리 뒤셀도르프, 독일

### 단체전

2020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18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임학임산학관, 수원

2017

반려 교감 세종미술관, 서울

2016

아틀리에 스토리 예술의전당, 서울

2015

미술관 동물이야기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어둡게 빛나는, 이소연&사타 2인전 룩스갤러리, 서울

2013

Be my sweetheart 롯데갤러리, 서울

2012

Korea Tomorrow 예술의전당, 서울

미술과 놀이 예술의전당, 서울

2011

달려라, 토끼-현대미술 토끼를 말하다 롯데갤러리본점, 서울

2010

SHIFT 조현갤러리, 서울

2009

SIHFT 조현갤러리, 서울

2008

The Bridge 가나갤러리, 서울

나, 너, 우리 조현갤러리, 부산

자아이미지, 거울시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7

젊은작가 동시대 회화전 에센미술관, 에센, 독일

재유럽 한국 작가전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 프랑스

2006

Face to Face 윈스터 시립미술관, 윈스터, 독일

면과 색: 회화의 현대위치 시립미술관, 립슈타트, 독일

마이스터 슬러전 겔켄키르헨, 독일

다르게보기 I, II,III 콜롬부스 아트파운데이션, 라벤스부르크, 독일

2005

Abgefaren 쿤스트할레, 링겐, 독일

중심적 회화: 오늘날의 예술적 전략 콜롬부스 아트 파운데이션, 라벤스 부르크,  
독일

2004

Empreise Art Award 2004 NRW-포럼 분화와 경제/바덴미술관, 뒤셀도르프/줄링겐, 독일

## 수상

2005 독일 콜롬부스 아트파운데이션 젊은 작가상 수상

## 레지던시

2012 캔 아트 파운데이션 베를린, 독일

## 평론

이소연: 기억을 소환하는 법-엔캐니에 숨은 21세기 자화상, 진취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행처 양평문화재단

발행인 양원모

총괄 조두호

기획 이유림

사업지원 강수민, 김은지, 맹홍균, 이종은

경영지원 정순돈, 이채영, 김세중, 박수아, 전유정

홍보 이은지

인터뷰·글 장세원

구술채록 이유림

참여작가 민정기, 서용선, 안창홍, 육근병, 이영섭, 이재효, 이재삼,

최운영, 정원철, 김용철, 김나리, 김창환, 천대광, 이소연

선정위원 김종길, 안소연, 윤익영, 최윤정

디자인/인쇄 그리스그레이

주최/주관 양평문화재단

후원 양평군

※ <2021 양평아트아카이브> 결과물로 발행된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은  
저작권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